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2월  
석사학위논문

# 전남 방언 담화 표지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태 성

# 전남 방언 담화 표지 연구

A Study on Discourse Markers  
in Jeonnam Dialect

2019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태 성

# 전남 방언 담화 표지 연구

지도교수 강희숙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태 성

이태성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강옥미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희숙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영주 (인)

2018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ABSTRACT .....	VIII
I. 서론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 연구 .....	2
3. 연구 대상 및 방법 .....	11
4. 논의의 구성 .....	13
II. 담화 표지의 특성 및 발달 요인 .....	15
1. 담화 표지의 개념 .....	15
2. 담화 표지의 특징 및 유형 .....	18
3. 담화 표지의 발달 요인 .....	25
3.1. 문법화 .....	25
3.2. 주관화 .....	29
3.3. 영입 .....	31
III. 전남 방언 개별 담화 표지의 유형 및 기능 ..	34
1. 고유형 .....	37
2. 단어 기원형 .....	43
2.1. 대명사 기원형 .....	44
2.1.1. ‘거시기’ .....	44

2.1.2. ‘머/뎃(무엇)’ .....	49
2.1.3. ‘어디’ .....	55
2.2. 관형사 기원형 .....	59
2.2.1. ‘뎃(무슨)’ .....	59
2.2.2. ‘이/요, 그/고, 저/조’ .....	64
2.3. 부사 기원형 .....	70
2.3.1. ‘기양(그냥)’ .....	70
2.3.2. ‘궁께/궁께(그러니까)’ .....	76
2.3.3. ‘근디(그런 데)’ .....	80
2.3.4. ‘딱(마구)’ .....	83
2.3.5. ‘왜’ .....	85
2.3.6. ‘인자(이제)’ .....	87
2.3.7. ‘죵/잔(조금)’ .....	94
2.3.8. ‘야튼/하이튼(하여튼)’ .....	98
2.4. 감탄사 기원형 .....	102
2.4.1. ‘그래’ .....	102
2.4.2. ‘글씨/크메(글쎄)’ .....	104
2.4.3. ‘아/어’ .....	108
2.4.4. ‘아니/아이’ .....	112
2.4.5. ‘아면/하모(아무렴)’ .....	116
2.4.6. ‘응/잉, 예/야’ .....	118
3. 체언·용언의 활용 형태 기원형 .....	124
3.1. ‘말이다/마다’ .....	124
3.2. ‘말하자면/말하자믄(말하자면)’ .....	127

3.3. ‘머시냐/머이냐(무엇이냐)’ ..... 131

4. 구절 기원형 ..... 132

4.1. ‘가만 있어’ ..... 132

4.2. ‘그래가꼬/그래가(그래 가지교)’ ..... 134

IV. 결론 ..... 139

<참고 문헌> ..... 148



## <표 목 차>

<표 1> 중양어 개별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 목록 .....	4
<표 2> 방언권·지역별 방언 개별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 목록 .....	7
<표 3> 연구 대상 자료 목록 .....	11
<표 4> 자료별 제보자 정보 .....	12
<표 5> 담화 표지의 특징 .....	18
<표 6> 담화 표지 분류 기준에 따른 세부 유형 .....	22
<표 7> 문법화와 영입의 차이점 (Heine, 2013: 1222~1223) .....	32
<표 8> 담화 표지의 기능 분석틀 .....	35
<표 9> 고유형 담화 표지 ‘와’, ‘웨’, ‘잉’, ‘야’의 지역별 변이형 .....	37
<표 10> 강희숙(2011)에서 논의된 담화 표지 ‘와’, ‘웨’, ‘잉’, ‘야’의 통사적 제약 .....	39
<표 11> 담화 표지 ‘와’, ‘웨’, ‘잉’, ‘야’의 기능 .....	40
<표 12> 담화 표지 ‘거시기’의 지역별 변이형 .....	45
<표 13> 담화 표지 ‘거시기’의 기능 .....	46
<표 14> 담화 표지 ‘머/똥(무엇)’의 지역별 변이형 .....	50
<표 15> 담화 표지 ‘머/똥(무엇)’의 기능 .....	50
<표 16> 담화 표지 ‘어디’의 지역별 변이형 .....	55
<표 17> 담화 표지 ‘어디’의 기능 .....	55

<표 18> 담화 표지 ‘먼(무슨)’의 지역별 변이형 .....	60
<표 19> 담화 표지 ‘먼(무슨)’의 기능 .....	60
<표 20> 담화 표지 ‘이/요, 그/고, 저/조’의 지역별 변이형 .....	65
<표 21> 담화 표지 ‘이/요, 그/고, 저/조’의 기능 .....	66
<표 22> 담화 표지 ‘기양(그냥)’의 지역별 변이형 .....	70
<표 23> 담화 표지 ‘기양(그냥)’의 기능 .....	72
<표 24> 담화 표지 ‘공께/공계(그러니까)’의 지역별 변이형 .....	76
<표 25> 담화 표지 ‘공께/공계(그러니까)’의 기능 .....	77
<표 26> 담화 표지 ‘근디(그런데)’의 지역별 변이형 .....	80
<표 27> 담화 표지 ‘근디(그런데)’의 기능 .....	81
<표 28> 담화 표지 ‘막(마구)’의 기능 .....	83
<표 29> 담화 표지 ‘왜’의 기능 .....	85
<표 30> 담화 표지 ‘인자(이제)’의 지역별 변이형 .....	87
<표 31> 담화 표지 ‘인자(이제)’의 기능 .....	89
<표 32> 담화 표지 ‘좀/잔(조금)’의 지역별 변이형 .....	94
<표 33> 담화 표지 ‘좀/잔(조금)’의 기능 .....	94
<표 34> 담화 표지 ‘야튼/하이튼(하여튼)’의 지역별 변이형 .....	98
<표 35> 담화 표지 ‘야튼/하이튼(하여튼)’의 기능 .....	99
<표 36> 담화 표지 ‘그래’의 기능 .....	103
<표 37> 담화 표지 ‘글씨/크메(글쎄)’의	

지역별 변이형 .....	105
<표 38> 담화 표지 ‘글씨/크메(글쎄)’의 기능 .....	105
<표 39> 담화 표지 ‘아/어’의 기능 .....	108
<표 40> 담화 표지 ‘아니/아이’의 지역별 변이형 .....	112
<표 41> 담화 표지 ‘아니/아이’의 기능 .....	112
<표 42> 담화 표지 ‘아면/하모(아무렴)’의 지역별 변이형 .....	117
<표 43> 담화 표지 ‘응/잉, 예/야’의 지역별 변이형 .....	119
<표 44> 담화 표지 ‘응/잉, 예/야’의 기능 .....	119
<표 45> 담화 표지 ‘말이다/마다’의 지역별 변이형 .....	124
<표 46> 담화 표지 ‘말이다/마다’의 기능 .....	125
<표 47> 담화 표지 ‘말하자면/말하자믄(말하자면)’의 지역별 변이형 .....	127
<표 48> 담화 표지 ‘말하자면/말하자믄(말하자면)’의 기능 .....	128
<표 49> 담화 표지 ‘머시냐(무엇이냐)’의 지역별 변이형 .....	131
<표 50> 담화 표지 ‘가만 있어’의 지역별 변이형 .....	133
<표 51> 담화 표지 ‘가만 있어’의 기능 .....	133
<표 52> 담화 표지 ‘그래가꼬/그래가(그래 가지고)’의 지역별 변이형 .....	134
<표 53> 담화 표지 ‘그래가꼬/그래가(그래 가지고)’의 기능 .....	135

<표 54> 고유형 담화 표지의 기능 ..... 140  
 <표 55> 대명사 기원형 담화 표지의 기능 ..... 141  
 <표 56> 관형사 기원형 담화 표지의 기능 ..... 142  
 <표 57> 부사 기원형 담화 표지의 기능 ..... 144  
 <표 58> 감탄사 기원형 담화 표지의 기능 ..... 145  
 <표 59> 체언·용언의 활용형 기원형 담화 표지의  
           기능 ..... 146  
 <표 60> 구절 기원형 담화 표지의 기능 ..... 147

# ABSTRACT

## A Study on Discourse Markers in Jeonnam Dialect

Lee, Taeseo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dvisor: Prof. Kang Hui-suk,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discourse markers in Jeonnam dialect by analyzing the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and discourse functions of the individual discourse markers in Jeonnam dialect by employing the existing dialectic transcription data. In this regard, we set up the upper criteria that can cover various functions of discourse markers according to the context of discourse, and tried to grasp its function in relation to the lexical meaning of its each originated form. In addition, we tried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gional dialects by summarizing and presenting the variations of the individual discourse markers in regional dialects of Jeonnam dialect.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In Chapter 1, we present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is study, and review the previous research and describe how research on discourse markers has been done. Then, the subjects and methodology of the research are introduced, and the process of the discussion is presented.

In Chapter 2, we discuss the concepts, features, and types of discourse markers that correspond to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discourse markers, as well as their developmental mechanisms in terms of ‘Grammaticalization’, ‘Subjectification’, and ‘Cooptation’.

In Chapter 3, we classify the types of individual discourse markers in Jeonnam

dialect according to its originated form: ‘Inherent forms’, ‘Word originated forms’, ‘Conjugated forms of nominals and verbals originated forms’, ‘Phrase originated forms’. And we analyze functions of individual discourse markers by setting the criteria to analyze functions of each discourse markers: ‘functions on speaker’s discourse strategy’, ‘functions on topic’, ‘functions on speaker’s attitude’. In addition, we describe functions of individual discourse markers by considering that the discourse function of the individual discourse sign was derived according to the original lexical meaning.

In Chapter 4, we summarize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study and try to clarif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challenge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we confirmed that the discourse sign, which is commonly used in most dialects of Korea from word to phrase, was also found in Jeonnam dialect. In addition, unlike the central and other dialects, there were discrepant discourse markers with different distribution and function, and features that characterize the transitional areas according to regional dialect. This indicates that discourses, which are commonly used in many dialects, may differ according to region or dialectal area.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systematically approached the discourse markers in dialect transcription and extended the existing research on discourse in dialect.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to clarify the actual usage patterns of the dialectal discourse markers by quantitative analysis and the characteristics of discourse markers through the contrast between other dialects.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기존의 방언 전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남 방언에 나타나는 개별 담화 표지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그 통사적·의미적 특성 및 담화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전남 방언 담화 표지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담화 표지가 담화 내에서 맥락에 따라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의 기능을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개별 담화 표지의 어휘적 의미를 고려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개별 담화 표지의 지역별 변이형도 제시하여 각 지역어에서의 실현 양상 또한 살펴보고 하겠다.

담화 표지(discourse markers)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발화 의도 및 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담화상의 장치를 말하는바, 발화 내용보다는 발화의 전달에 관여하는 언어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강희숙, 2006: 6). 곧 담화 표지는 발화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담화 책략의 일환으로, 담화의 진행을 돕는 언어 형식이다. 특히 담화 표지는 정제된 글말보다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입말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주로 입말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입말 담화는 글말과 다르게 비계획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담화 표지는 글말과 구별되는 입말의 특성을 명징하게 나타내는 요소라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담화가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담화 표지의 일반적인 논의에 해당하는 실현 환경 및 형식과 운율·형태·통사적 특징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개별 담화 표지의 다양한 담화 기능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변인에 따른 담화 표지의 실제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담화 표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 성과는 주로 개별 담화 표지의 문법적 특징과 담화 기능에만 주목하였을 뿐, 다수의 담화 표지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는 데에 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듯하다. 또한 임규홍(1996: 4)에서 제시한 담화 표지의 특징 가운데 공간적·계층적으로 상당한 보편성을 지니며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역 방언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영옥(2017: 133~135)에서 제시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앙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방언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는 중앙어를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여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방언에 나타나는 여러 담화 표지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는 경남 방언을 대상으로 한 이수현(2014), 강민정(2015)이 있으나, 전남 방언에 대한 것은 사실상 없는 편이다.

또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담화 표지의 발생 기제를 주로 문법화(grammaticalization)와 관련지어 이해해 왔다. 문법화는 이른바 ‘어휘적인 것, 혹은 덜 문법적인 것이 더 문법적인 것으로 바뀌어 가는 현상’이다. 이성하(1998)에서는 ‘문법적인 것’을 ‘문법상 적합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자립적으로 쓰이는 단어 의미의 완전성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sup>1)</sup>. 다시 말하면 단어의 의미가 완전한 것은 ‘어휘적’이며, 불완전한 것은 ‘문법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로는 어떠한 것이 문법적인 것이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남 방언에 나타나는 담화 표지의 특성 및 기능을 기원형의 유형에 따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담화 표지의 정의와 특성을 정리하고, 담화 표지의 발달 기제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담화 표지의 발달 기제는 일반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문법화뿐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도입된 주관화(subjectification) 및 영입(cooptation)의 개념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개별 담화 표지의 기능을 정리하여 각 담화 표지의 기능을 분석하는 기준을 세우고, 전사 자료에 나타나는 전남 방언 담화 표지의 의미·통사적 특성 및 담화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2. 선행 연구

그동안 한국어 담화 표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연구는 크게 용어 및 개념에 관한 연구, 담화 표지의 분류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입말 담화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담화 표지의 실제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및 개별 담화 표지에 관한 연구<sup>2)</sup>로 나눌 수 있다.

- 1) 이성하(1998: 23)에서는 ‘문법적’이라는 말은 통사적 차원에서의 적합성 뿐 아니라 화용상 적합성을 논하는 데에도 쓰이기 때문에 항상 문맥에 따라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2) 이외에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담화 표지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와 담화 표지 대조 연구 또한 다수 발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전남 지역의 구어 전사 자료에 나타나는 방언 담화 표지를 고찰하는 것임을 상기한다면, 앞서 언급한 유형의 연구는 본 연구의 목적과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다만 담화 표지 대조 연구는 한국어 담화 표지의 담화 기능을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한 것에 한하여 선행 연구에 일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중앙어 담화 표지, 그리고 방언 담화 표지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sup>3)</sup>. 특히 방언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는 개별 담화 표지에 집중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담화 표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한 것도 포함된다.

먼저 담화 표지의 실제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는 임규홍(2004), 강소영(2014a), 김진수·이윤희(2015), 김미진(2018)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임규홍(2004)와 강소영(2014a)는 중앙어 입말 담화 자료를 활용한 연구이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김진수·이윤희(2015)와 김미진(2018)은 방언 입말 담화 자료를 바탕으로 담화 표지의 사용 양상을 사회언어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해당한다.

임규홍(2004)는 2000년과 2001년에 개최된 전국 중·고등학생 이야기대회 녹화 자료에 나타나는 담화 표지의 사용 양상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담화 표지 사용 빈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다고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남성 화자는 지시성 담화 표지 가운데 ‘이’를, 부사성 담화 표지 가운데 ‘막’, ‘인제’, ‘마<sup>4)</sup>’를, 비어휘적 담화 표지 가운데 ‘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화자의 경우, 접속성·의문성 담화 표지와 함께 지시성 담화 표지 가운데 ‘그’, ‘저’를, 부사성 담화 표지 가운데 ‘참’과 ‘딱’을, 비어휘적 담화 표지 가운데 ‘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강소영(2014a)는 방송 담화 가운데 하나인 오락 방송 담화의 화제 전개 양상을 구조화하여 그에 따른 담화 표지의 분포 양상을 살핀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오락 방송 프로그램의 특징을 고려하여 담화의 구조를 ‘시작(재시작)-전개(심화, 일탈, 복귀)-종결(화제의 마무리)’로 나누어 각 부분의 첫머리에 나타나는 담화 표지의 분포를 고찰하였다.

김진수·이윤희(2015)에서는 대전 지역의 입말 담화 자료에서 대전 지역 화자의 담화 표지 사용 양상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다<sup>5)</sup>. 연령에 따른 담화 표지 사용 양상으로는 청년층에서 축약형 담화 표지, 화제 도입 및 전환에서 동일한 유형의 담화 표

부 포함하였다.

- 3) 이 절에서는 한국어 담화 표지의 실제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와 개별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담화 표지에 대한 일반론적 연구 성과는 담화 표지의 이론적 배경을 다루는 제2장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 4) ‘마’는 동남 방언의 담화 표지로, 임규홍(2011)과 이기갑(2018)에서는 부사 ‘그만’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았다.
- 5) 해당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언어 계층으로 10대를 청소년층으로, 20대와 30대를 청년층으로, 40대와 50대를 중년층으로 구분하였으며, 60대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분하였다. 노년층에서는 대덕의 구전 설화 자료와 대전 지역 방송의 시민 인터뷰 자료를, 그 이하의 언어 계층은 일상 대화 자료와 방송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지 및 감탄사의 빈번한 사용이 특징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노년층에서는 방언형 담화 표지와 화제 도입과 전환에서 다양한 유형의 담화 표지 사용 양상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대체적으로 사용 비율이 높으나, 10대와 60대에서는 남성의 사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진(2018)에서는 제주도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20대와 80대 남녀 화자를 대상으로 나이와 성별, 교육의 정도에 따라 제주 방언 화자의 실제 담화 표지 사용 양상을 연구으로써 제주 방언 화자의 언어 습관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나이에서는 20대 화자가 표준어 및 축약형 담화 표지의 사용 빈도가 높았으며, 표준어와 방언형이 혼합된 담화 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담화 표지의 사용 비율이 높으며, 특히 지시대명사에서 기원한 담화 표지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80대 여성과 같이 부사 및 감탄사 기원형 담화 표지를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성과에서는 담화의 유형 및 연령, 성별, 지역을 비롯한 사회적 변인에 따라 담화 표지의 사용 양상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세대나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담화 표지의 유형이 다르다는 분석 결과는 화자에 따라 언어 습관 및 언어 사용에 대한 경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미진(2018)에서 제시한 20대 남성 화자의 언어 습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세대의 교체에 따라 언어 습관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개별 담화 표지에 관한 연구는 기원형에 따라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이 유형의 연구는 중앙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다음 표에 간략하게 정리하였다<sup>6)</sup>.

**<표 1> 중앙어 개별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 목록**

구분		연구 목록
단어	대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시기(이봉선, 1998, 박근영, 2000, 김영철, 2004, 전성호, 2007)</li> <li>· 뉘(김선희, 1995, 이정애, 1998, 이한규, 1999, 구종남, 2000, 김명희, 2005, 이효진, 2005, 정윤희, 2005, 박석준, 2007, 남길임·</li> </ul>

6) <표 1>에서 해당 담화 표지의 형태적 특징을 나타내는 ‘구분’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는 품사 분류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표의 형식은 전영옥(2017a: 134~135)을 일부 참고하였다.

		차지현, 2010, 차지현, 2010, 송인성, 2013, 유나, 2017) ·어디(김선희, 1995, 구종남, 1999, 박석준, 2007, 이한규, 2008, 유나, 2015) ·이, 그, 저(김선희, 1995, 이정애, 1998, 박근영, 2006)
	조사	·-는/-가(홍정하, 2011) ·-로(이정애, 1998) ·-은/-는(서정숙, 2016) ·-요(이정민·박성현, 1991, 윤석민, 1994, 이정애, 1998, 김명희·이다미, 2003)
	형용사	·당연하다(한국희, 2013)
	관형사	·무슨(김명희, 2006, 김선영, 2016)
부사	일반부사	·가만(김선희, 1995) ·그냥(이정애, 1998, 이기갑, 2010a, 박혜선, 2012, 심란희, 2013, 안정아, 2015) ·그러게(안윤미, 2012) ·그만(이기갑, 2009b, 2010a) ·그저(이기갑, 2010a) ·다(구종남, 2008) ·딱(안정아, 2008, 2015, 안주호, 2009, 김영철, 2010, 송인성, 2014, 조민정, 2015a, 2016) ·왜(김선희, 1995, 이한규, 1997, 김영란, 2000, 정윤희, 2000, 구종남, 2004, 김명희, 2005, 박석준, 2007) ·이제(이원표, 1992, 이기갑, 1995, 임규홍, 1996, 이정애, 1998, 김광희, 2004, 박지윤, 2011, 김영철, 2015) ·정말, 진짜(김현지, 2015, 송인성, 2017) ·좀(손세모들, 1988, 구종남, 1998, 주경희, 2000, 2004, 목정수, 2001, 안주호, 2009, 2010, 송인성·신지영, 2014, 안정아, 2015, 조민정, 2015b, 2016, 장경현, 2016)
	접속부사	·‘그러-’류(차윤정, 2000, 조민정, 2015c, 김인환, 2018) ·‘그래’류(정미진, 2017) ·그래서(신현숙, 1989, 전영옥, 2016a, 2016b, 윤소연,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러니까(신현숙, 1989, 강소영, 2009, 전영옥, 2016b, 2017)</li> <li>·그런데(김미선, 2012, 이주화, 2014)</li> </ul>
	감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래(신현숙, 1990, 이한규, 1996)</li> <li>·글쎄(이원표, 1993, 이해영, 1994, 김선희, 1995)</li> <li>·네(강현석, 2009, 전정미, 2011, 안주호·김영란, 2013, 임선희·김선희, 2014)</li> <li>·아(강우원, 2002, 김영철, 2005)</li> <li>·아니(이원표, 1993, 송병학, 1994, 김미숙, 1997, 구종남, 1997, 이한규, 1997)</li> <li>·어(강우원, 2002, 김영철, 2006, 전영옥, 2015)</li> <li>·예(이원표, 1993, 강현석, 2009, 이한규, 2011, 임선희·김선희, 2014)</li> <li>·오(서승아·김혜숙, 2008)</li> <li>·웅(전영옥, 2015)</li> <li>·자(임규홍, 2005, 김영철, 2008)</li> <li>·참(강우원, 2000, 김영철, 2007, 구종남, 2015a)</li> </ul>
	체언·용언 활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됐어(안주호, 2014, 장아남, 2017)</li> <li>·말이다(이정애, 1998, 임규홍, 1998, 김향화, 2005, 서희정, 2010, 김민국, 2011, 유나, 2016)</li> <li>·말하자면(김정남, 2017)</li> <li>·물론이다(한국희, 2013),</li> <li>·뭐냐(김선희, 1995, 임규홍, 1995)</li> <li>·있잖아/있지(임규홍, 1995, 김주미, 2004, 이동혁, 2017)</li> </ul>
	구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건 그렇고(노은희, 2012)</li> <li>·그래 가지고(강소영, 2005)</li> <li>·다름 아니라(노은희, 2012)</li> <li>·아 근데/아니 근데(강소영, 2014b)</li> <li>·-어 가지고(임규홍, 1994, 이정애, 1998, 문순덕·김원보, 2016)</li> </ul>

<표 1>과 같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중양어 대상 개별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는 어휘에서 구절까지 다양한 언어 형식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 성과는 개별 담화 표지의 형태·통사적 특성과 담화 기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개별 방언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는 <표 1>에 제시된 연구 성과에 비하여 수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다음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개별 방언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 성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방언권·지역별 방언 개별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 목록

방언권	지역		연구 목록
동남방언	전체		고마(이기갑, 2009)
	경상도	전체	·마(임규홍, 2011) ·아이가(임규홍, 2009)
		경남	·머꼬(강우원, 2013) ·있다아이가(강우원, 2012)
		경북	인자(박지윤, 2011)
동북방언	함경도		웅, 야(오선화, 2008)
서남방언	전체		이(김태인, 2015)
	전라도	전남	·와, 웨, 잉(강희숙, 2006) ·와, 웨, 잉, 야(강희숙, 2011)
제주방언	제주도		·-어 가지교(문순덕·김원보, 2016) ·계메(문순덕·김원보, 2012, 신우봉, 2015) ·근, 예(이기갑, 2013) ·마쌌, 양, 예(문순덕, 2005) ·양, 기(김원보, 2017) ·접속부사(김미진, 2016)

<표 2>는 방언권과 그 하위 지역에 따라 개별 방언 담화 표지에 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sup>7)</sup>. ‘서남방언’ 항목에서는 김태인(2015)가 있으며, 그 하위 지역어인 ‘전남’에서는 강희숙(2006, 2011)이 있다. 해당 연구는 전남 방언 고유의 담화 표지이자 대부분 담화의 맨 끝 부분에서 실현되는 종결 담화 표지<sup>8)</sup>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 본 연구에서는 전남 방언의 담화 표지를 고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방언에 나타나는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 성과는 본문에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8) ‘종결 담화 표지’라는 용어는 강희숙(2011)에서 제시된 것으로, 담화의 맨 끝 부분에 나타나는 분포적 특징과 함께 일정한 담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김태인(2015)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사업의 결과물인 《지역어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남방언에서 실현되는 ‘이’의 문법화 양상과 담화 기능을 밝힌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sup>9)</sup>’가 두루낮춤의 문두 위치에서는 의지감탄사로, 문말에서는 판정의문문을 형성하는 부가의문문 표지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현대 중앙어의 ‘응’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서남 방언의 ‘이’는 중앙어의 ‘응’과 달리 실현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문법화와 관련지어 해석하였다. 또한 문법화된 ‘이’의 담화 기능은 발화의 첫 부분에서는 시간 끌기, 발화 내부 혹은 끝 부분에서는 확신, 강한 주장, 친밀감, 은밀함 등과 같은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을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강희숙(2006)에서는 전남 동부 지역의 방언이 반영된 소설 〈태백산맥〉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 담화 표지 ‘와’, ‘웨’, ‘잉’의 상대높임법 등급과 서법에 따른 문법적 특성<sup>10)</sup> 및 담화 기능을 고찰하였다. 이들 담화 표지는 화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강조하거나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염려 혹은 유감스러운 태도를 나타내는 한편, 청자의 호응을 유도할 의도로 친밀감을 표현하는 담화 기능이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이 연구는 문학 방언의 실체를 밝히려는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자료 자체적으로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이는 문학 방언이 일상적인 구어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더라도 자연스러운 입말 담화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의 연구인 강희숙(2011)은 실제 구어 담화 자료를 바탕으로 담화 표지 ‘와’, ‘웨’, ‘잉’, ‘야’를 대상으로 해당 담화 표지의 상대높임법 등급과 서법에 따른 문법적 특성과 담화 기능을 밝혀낸 연구이다. ‘와’, ‘웨’, ‘잉’의 문법적 특성과 담화 기능은 강희숙(2006)에 제시된 것과 유사하다. 다만 ‘야’는 상대높임법에서 두루높임의 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서 실현되며, 서법상으로는 설명법이나 명령법에서 주로 쓰이나, 큰 제약이 없어 비교적 자유로운 분포를 보인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담화 기능으로는 진술 내용을 강조하거나 확인하는 기능, 그리고 간곡한 요청 또는 하소연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위의 두 연구는 담화 표지의 실현에 상대높임법과 서법상의 제약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같은 담화 표지라도 서법에 따라 각기 다른 담화 기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한 연구에 해당한다.

9) 이는 후술할 강희숙(2006, 2011)에서 제시한 ‘잉’의 변이형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3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10) ‘와’는 아주낮춤, ‘웨’는 주로 예사낮춤의 종결어미와 결합하나, 경우에 따라 아주높임의 종결어미와 결합하기도 한다. 한편 ‘잉’은 상대높임법 등급과 서법에 별다른 제약 없이 넓은 분포를 보인다.

이상의 연구 성과는 해당 담화 표지가 본래부터 담화 표지였다는 견해, 즉 문법화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견해(강희숙, 2006, 2011)와 본래 응답어였던 것이 담화 표지로 발달하는 데에 문법화가 관여하였다는 두 가지 견해(김태인, 2015)로 나뉜다. 전자는 특정 지역에서 쓰이는 고유한 담화 표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게 한다. 후자의 경우 어떠한 담화 표지가 중앙어에 대응되는 담화 표지라도 특정 방언권에서는 중앙어와 구별되는 담화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비록 연구의 논의를 전개하는 데 전제된 견해는 서로 상충되지만, 이러한 두 가지 견해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sup>11)</sup>.

이외에도 방언 입말 담화에 나타나는 여러 담화 표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한 연구 및 개별 방언 담화 표지의 방언 간 비교를 시도한 연구도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는 이수현(2014)와 강민정(2015)으로, 경남 방언에 나타나는 개별 담화 표지의 형태 및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후자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이기갑(2018)이 있다. 이 연구는 개별 방언 담화 표지의 문법적·의미적 특징과 담화 기능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방언 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수현(2014)에서는 경남 지역 화자의 입말 담화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남 방언의 담화 표지를 ‘기원형의 품사’와 ‘담화 기능’에 따라 개별 담화 표지를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원형의 품사에 따른 분류 기준은 ‘대명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서술어’의 여섯 가지로 나뉘며, 담화 기능에 따른 것은 ‘담화 참여자, 담화 태도, 담화 상황’의 세 가지로 세분된다. 그러나 전자의 유형 가운데 ‘서술어’는 문장 성분이라는 점에서 기원형의 품사 유형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담화 참여자’ 유형에 인칭 대명사인 ‘내(나)’, ‘니(너)’, ‘우리’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 형태는 단순히 선행 발화에 실현된 주어나 목적어가 후행 발화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담화 표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능에 따른 분류는 기원형의 어휘적 의미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담화 표지의 기능이 어휘적 의미에서 확장된 것이기는 하나, 한 담화 표지가 담화의 맥락이나 화자의 의도에 따라 여러 기능을 지

11) 이와 관련하여 박지윤(2011)은 중부 방언의 ‘인제’와 경북 방언 ‘인자’의 실현 양상을 비교한 연구에 해당한다. ‘인제’는 ‘지연, 군말, 머뭇거림, 덧말’에 사용되었으나, ‘인자’는 ‘인제’에서 나타난 것 이외에도 ‘확인, 화제 전환, 유도, 다짐, 강조, 문장접속’에도 활발하게 사용되었음을 밝혀내었다. 이외에도 이기갑(2010a)은 공통적으로 ‘담화의 연속성을 돕기 위한 선행 발화의 일시적 단절’, ‘선행 발화의 부연’, ‘강조’의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그냥’, ‘그저’, ‘그만’의 방언 분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냥’은 한국의 서부 방언지대로, ‘그저’는 중앙아시아의 고려말과 한국의 동북 방언지대로, ‘그만’은 한국의 동남 방언 지대로 분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담화 기능은 유사하지만 어원과 형태가 다른 담화 표지가 방언 지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분화되었음을 밝힌 연구 성과에 해당한다.



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유형화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강민정(2015) 또한 경남 방언 전사 자료에 나타나는 방언 담화 표지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이며, 나아가 그 사용 양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담화 표지를 ‘고유형’과 ‘변이형’으로 나누어 그 담화 기능을 분석하였다<sup>12)</sup>. 또한 사용 양상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실현 형식, 실현 위치, 같은 담화 표지의 이형태,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다. 실현 형식에서는 대명사형과 부사형 담화 표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실현 위치에서는 발화 중간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에서는 남성이 8.2%, 여성이 10.5%로, 근소한 차이지만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위의 두 연구는 경남 방언 담화 표지를 형태나 기능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이며, 특히 강민정(2015)는 방언 내에서의 담화 표지 사용 양상과 이형태를 지닌 담화 표지의 대표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나 두 연구는 담화 표지의 유형화에만 치중하여 개별 담화 표지의 기능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방언 담화 표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유형화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형태 및 담화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기갑(2018)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실현되는 ‘암/하모/그럼’, ‘거시기’, ‘이제’, ‘무엇’, ‘그냥/그만’ 등의 여러 담화 표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각 담화 표지의 형태·통사적 특징 및 담화 기능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방언권에 따른 사용 양상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담화 표지의 지역적 분포 및 방언 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담화 표지의 지역적 분포와 방언 간 비교는 일부 담화 표지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방언에서 사용되는 담화 표지를 포괄적으로 고찰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져 온 담화 표지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담화 표지 연구는 용어와 정의, 그리고 유형화를 비롯한 일반적인 논의에서 중앙어를 중심으로 한 개별 담화 표지와 방언 담화 표지의 문법적 특징과 담화 기능 및 이에 따른 실제 사용 양상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중앙어 개별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방언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다수의 방언 담화 표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위에서 검토한 석사 논문 두 편과 한 편

12) 강민정(2015)에서 ‘고유형’은 기원형의 형태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것을 이르며, ‘변이형’은 담화 표지와 결합하여 화석화되거나, 형태 축약 등으로 이형태를 지니는 것을 뜻한다.



의 단행본 외에는 사실상 전무한 편이다. 그러므로 전남 지역어에 나타나는 다수의 담화 표지를 유형화하여 각 담화 표지의 특성 및 기능을 면밀히 살핀 연구가 필요하다.

###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04년에서 2013년까지 10년 동안 진행된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및 전사 사업’ 가운데 전남 방언 제보자의 입말 담화를 전사한 자료이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활용할 자료를 주요 자료와 보조 자료로 나누어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연구 대상 자료 목록**

자료 구분	자료명	발행처 (발행 연도)	제보자 발화 어절 수
주요 자료	전남 곡성 지역의 언어와 생활	국립국어원(2007)	19,661
	전남 진도 지역의 언어와 생활	국립국어원(2009)	11,072
	전남 영광 지역의 언어와 생활	국립국어원(2011)	17,491
	전남 보성 지역의 언어와 생활	역락(2016)	19,607
	전남 영암 지역의 언어와 생활	역락(2016)	20,215
	전남 광양 지역의 언어와 생활	역락(2017)	18,687
보조 자료	2012년도 전남 지역어 전사 보고서	국립국어원(2012)	15,163
	2013년도 전남 지역어 전사 보고서	국립국어원(2013)	12,568

<표 2>에 제시된 자료 가운데 주요 자료는 모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방언 조사 가운데 약 4시간 분량의 구술 발화를 전사한 것이다. 해당 자료들은 모두 단행본으로 출간되기 이전에도 보고서로 발행된 바 있으나<sup>13)</sup>, 본 연구에서는 보고서에 나타난 전사 및 표준어 대역의 오류를 수정하고, 주석을

13)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권역별 지역어 조사 결과 보고서’ 가운데 전남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것은 광양 지역을 제외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년 주기로 발행되었다. 2005년에 곡성, 2006년에 진도, 2007년에 영광, 2008년에 보성, 2009년에 영암 지역어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발행되었으며, 2011년에는 광양 지역어의 전사 결과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추가하는 등의 보완 작업이 이루어진 단행본을 주요 자료로 삼도록 한다.

한편 보조 자료는 모두 보고서의 형식으로 발행되었다. 먼저 《2012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된 지역 가운데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지역에서 수집한 구술 발화 자료를 전사한 것이며<sup>14)</sup>, 다음으로 《2013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조사된 지역 가운데 보성, 영암, 신안, 광양 지역에서 수집한 구술 발화 자료를 전사한 것이다<sup>15)</sup>. <표 2>에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구술 발화 제보자의 정보는 자료에 따라 주요 제보자와 보조 제보자로 나누어 다음 표에 정리하였다.

**<표 4> 자료별 제보자 정보**

자료명	조사 지역	조사 연도	제보자 정보		
			구분	성별	나이 <sup>16)</sup>
전남 곡성 지역의 언어와 생활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2005	주요	남	80세
			보조	여	74세
전남 진도 지역의 언어와 생활	전남 진도군 지산면	2006	주요	남	78세 <sup>17)</sup>
			보조	여	80세
전남 영광 지역의 언어와 생활	전남 영광군 백수읍	2007	주요	여	72세
			보조	남	76세
전남 보성 지역의 언어와 생활	전남 보성군 노동면	2008	주요	남	77세
			보조	-	-
전남 영암 지역의 언어와 생활	전남 영암군 신북면	2009	주요	남	78세
			보조	여	74세
전남 광양 지역의 언어와 생활	전남 광양군 진상면	2011	주요	여	70세
			보조	-	-
2012년도 전남 지역어	전남 신안군	2010	주요	여	89세

14) 《2012년도 전남 지역어 전사 보고서》에서는 총 482분의 전사 분량 가운데 각 조사 지역의 구술 발화는 신안 178분, 곡성 100분, 진도 121분, 영광 83분 정도의 분량으로 전사되어 있다.

15) 《2013년도 전남 지역어 전사 보고서》에서는 총 454분의 전사 분량 가운데 각 조사 지역의 구술 발화는 보성 114분, 영암 141분, 신안 145분, 광양 53분 정도의 분량으로 전사되어 있다.

전사 보고서	압해면	보조	남	64세
2013년도 전남 지역어 전사 보고서				

이상의 자료는 일생 의례를 포함한 생애담, 의식주와 생업을 포함한 생활담에서 세 시풍속, 민간요법, 금기 등 민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제보자가 답한 내용을 전사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이 자료들은 전남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해당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토박이 화자의 생생한 입말로 전남 각 지역의 생활과 문화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전사된 제보자의 발화 내용은 모두 제보자의 배경 지식과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연스러운 입말 담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자료는 전남의 모든 지역을 포괄하지 못한다. 또한 제보자의 수도 한 지역당 대략 한두 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극히 적다는 한계를 지닌다<sup>16)</sup>. 하지만 자료 조사 지역이 전남의 동부, 서부, 남부, 북부를 아우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sup>19)</sup>, 그리고 한 지역에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하면서 그 지역 방언을 사용해 온 화자들의 말을 전사하였다는 점에서 전남 방언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에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 4. 논의의 구성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그간 담

16) 제보자의 나이는 조사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17) 본 제보자는 1928년생으로, 주민등록상으로는 78세이지만 실제 나이는 80세이다.

18) 이외의 한계로는 전사 방식이 형태 전사가 아닌 음운 전사라는 점에서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실제 발화가 모두 온전한 문장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절 단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보자의 발화를 억양 단위가 아닌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담화 표지의 실현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전사의 문제는 표준어 대역이 함께 이루어졌고, 후자의 문제는 기존 연구자들이 밝힌 담화 표지의 실현 위치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 해당 전사 자료에서 조사한 지역의 위치는 각각 곡성은 동북부, 진도와 영암은 서남부, 영광은 서북부, 보성은 동남부, 광양은 동부, 그리고 신안은 서부에 해당한다. 비록 남부와 북부 지역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곡성과 영광, 그리고 영암과 보성의 경우에는 각각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 인접해 있다. 따라서 조사 지역이 전남의 모든 지역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 표지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기술한다. 이어 연구 대상과 방법을 소개하고, 본 연구에서 이루어질 논의의 전개 과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담화 표지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담화 표지의 발달 기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담화 표지의 정의를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세부 특성을 밝히기로 한다. 다음으로 담화 표지의 발달 기제를 문법화에서 이해하여 온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문법화, 주관화, 영입의 개념으로써 담화 표지의 발달 요인을 보다 다양하게 살펴보겠다.

제3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담화 표지의 유형과 개별 담화 표지의 기능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분류와 분석의 기준을 제시한 후, 개별 담화 표지의 형태·통사적 특성 및 담화 기능을 분석한다. 더불어 전남 방언 화자가 사용하는 담화 표지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사 자료에 나타난 개별 담화 표지의 지역별 변이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제4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밝히고자 한다.

## II. 담화 표지의 특성 및 발달 요인

본 장에서는 담화 표지의 개념과 특징 및 유형과 더불어 담화 표지의 발달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선 담화 표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실제 담화 자료 내에서 담화 표지를 식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담화 표지의 개념은 그 특성에 따라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에서 정의한 담화 표지의 개념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담화 표지의 특징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것에 기대어, 그 실현 환경, 운율·형태·통사·의미적 측면 및 담화·화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한편 담화 표지 발달 요인의 경우, 기존에는 문법화 이론을 주축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문법화 외에도 화용화(pragmaticalization)와 연관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담화 표지의 발달 요인을 문법화, 주관화, 그리고 영입의 개념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문법화의 정의 및 그 원리와 기제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 외의 발달 요인과 문법화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 1. 담화 표지의 개념

먼저 담화 표지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선행 연구에서는 담화 표지를 가리키는 용어를 어떻게 설정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1986년 이전까지 담화 표지를 품사 가운데 감탄사를 이르는 ‘느낌씨(최현배, 1929)’, ‘군말(김종택, 1982)’, ‘머뭇말, 텃말(노대규, 1983)’, ‘머뭇거림, 입버릇(남기심·고영근, 1985)’ 등으로 정의해 왔다. 이러한 정의에는 감탄사 이외에 말실수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그러나 그 이후부터 담화가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담화 표지’라는 용어 이외에도 ‘담화불변화사(송병학, 1987)’, ‘담화대용표지(신현숙, 1989)’, ‘간투사(신지연, 1988, 오승신, 1995)’, ‘담화 표지어(이한규, 1996)’, ‘화용 표지(이정애, 1998)’ 등의 용어로 연구되었다<sup>21)</sup>. 이러한 용어들은 담화 표

20) 이와 관련하여 임규홍(1996)에서는 이를 전통 문법가들의 견해라 언급한 바 있으며, 황병순(2010)에서는 통사론을 중심으로 문법을 기술하였기 때문이라 추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담화 표지에 대한 초기 연구의 부정적 시각은 당시의 담화 표지가 통사론적 관점에 의거하여 문법상 잉여적인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지가 지닌 일부 특징이나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담화 표지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sup>22)</sup>. 이러하여 현재에는 담화상의 쓰임에 따라 기원형과는 다른 새로운 담화 기능을 획득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담화 표지’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는 주로 담화 표지의 일부 특징을 중심으로 언급해 왔다. 여기에서는 연구자들이 제시한 각각의 논의를 검토하여 담화 표지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담화 표지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 (1) 가. **Schiffrin(1987: 31)**: 말(발화)의 단위를 결속시키는 연속적으로 의존적인 요소 (Sequentially dependent elements which bracket units of talk)
- 나. **안주호(1992: 22)**: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
- 다. **임규홍(1995: 53)**: 담화를 이끌어 가는 끈의 기능을 하는 것
- 르. **이한규(1996: 1)**: 문장이나 발화의 명제 의미, 혹은 진리 조건적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화자의 믿음, 전제, 태도 등을 보여주는 모든 언어적 형태
- 로. **김태엽(2000: 3)**: 화자가 담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입시키는 의도적인 양상표지
- 비. **전영옥(2002: 113)**: 의미론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표현이나, 기존의 의미·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게 된 표현이 언어 사용 또는 담화 차원에서 새롭게 존재 이유를 갖고 사용되는 것
- 사. **김영철(2005: 161)**: 담화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지로서, 담화에 참여하는 상대방에게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리적인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형식

21) 임규홍(1996: 3)에서는 담화 표지에 관한 용어를 기능, 형태, 환경, 현상의 네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가. 기능 중심: 디담말, 담화 개시어, 관심획득표지(attention getters)
- 나. 형태 중심: (담화) 불변화사, 간투사(환투사)
- 다. 환경 중심: 담화(화용) 표지
- 르. 현상 중심: 군말, 입버릇, 머뭇거림, 덧말

22) 전영옥(2017: 132-133)에 따르면 ‘담화불변화사’는 담화 표지가 곡용이나 활용을 하지 않아 형태적으로 고정성이 높다는 특징을 반영한 것이며, ‘간투사’는 감탄사를 달리 이르는 말로, 문장 내 독립적인 성분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한편 ‘담화대용표지’는 담화 결속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접속부사에 국한된 개념이다. 또한 ‘담화 표지어’는 구보다는 어휘에 한정된 개념에 해당한다. ‘화용 표지’는 담화 내에서의 쓰임보다는 담화 표지가 화용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에 제시된 담화 표지의 정의는 크게 담화의 연결, 화자와 청자의 상호 작용, 그리고 의미와 기능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1ㄱ~1ㄴ)은 담화의 연결, 즉 담화의 연속적 전개에 주목한 정의라 할 수 있다. 이들 정의는 담화 표지는 발화와 발화, 나아가 담화와 담화를 연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ㄴ~1ㄷ)은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에서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적 태도를 드러내는 양태적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의이다<sup>23)</sup>. 이 가운데 (1ㄴ)에서는 담화 표지를 ‘모든 언어적 형태’라 정의함으로써 담화 표지가 단어뿐 아니라 구나 절의 형식까지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담화 표지는 발화의 명제적 의미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1ㄱ)과도 연관이 있다.

(1ㄱ)은 담화 표지의 의미와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의로, 담화 층위에서는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지니는 반면 의미론적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이는 전영옥(2002)에서 담화 표지가 문장이나 발화에서 특정 성분과 수식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적인 성분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담화 표지는 문장 문법의 차원이 아니라 담화 문법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담화 표지의 의미적 측면과 관련하여, 담화 표지는 본래의 언어 형식이 지닌 어휘적 의미가 약화되거나 추상화되어 담화 내에서 문맥에 따라 어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기능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 따르면 본래의 언어 형식에서 담화 표지로서의 발달 기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3) 다만 담화 표지가 양태적 기능을 지닌다고 하여도, 그러한 언어 형식을 모두 담화 표지로 아우를 수는 없다. 대표적인 예로 울타리 표현(hedge)과 감탄사를 들 수 있다. 울타리 표현은 Lakoff(1972)에서 “어떠한 것을 더, 혹은 덜 모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단어(words whose job is to make things more or less fuzzy)”라 정의하였다. 즉 울타리 표현은 담화 표지와는 달리 문장이나 발화를 수식하여 그 명제적 의미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감탄사는 이전에 ‘간투사’로 연구되어 온 사례로 알 수 있듯, 감탄사와 담화 표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예컨대 임규홍(1996: 3)에 따르면 전통 문법가들은 담화 표지를 주로 감탄사나 부사의 문법 범주로 분류하였다고 언급한 것, 그리고 안주호(1992)에서는 기존의 문장부사나 감탄사 등이 담화 표지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언급한 것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감탄사는 엄연히 문법 범주에 해당하는 반면, 담화 표지는 본래의 어휘적 기능이 약화되어 담화 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언어 형식이라는 점에서 문법 범주의 차원에서 논의되기는 어렵다. 또한 황병순(2010)에서는 감탄사가 단순히 화자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를 표현한 것과는 달리 담화 표지는 담화에 대해 상대방에게 화자 자신의 태도를 덧붙여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발화의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즉 담화 표지는 발화 맥락으로서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감탄사와는 차이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담화 표지는 주로 발화의 단위를 결속하여 담화를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일종의 담화 전략으로서,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발화나 문장의 명제 의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단위이며, 기존의 언어 형식이 지니던 의미가 약화되거나 추상화되어 담화 내에서 새로운 기능을 지니는 것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담화 표지의 특성과 일부 중첩되는바, 다음 절에서는 담화 표지의 정의와 연관되는 여러 세부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담화 표지의 특징 및 유형

담화 표지의 특징을 밝히는 작업은 담화 표지의 범위와 식별 기준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발화에서 담화 표지를 식별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담화 표지의 특성을 정리한 연구로는 임규홍(1996)과 전영옥(2002)가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에서 논의한 담화 표지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담화 표지의 특징

분류	임규홍(1996: 4)	전영옥(2002: 118)
실현 환경	담화(입말)	구어 담화
실현 형식	-	여러 언어 형식(감탄사, 부사, 구절 등)
운율적 특징	-	억양, 휴지와 관련
형태적 특징	고정성이 높음	고정성이 높음
통사적 특징	다른 문장 성분과 독립성이 높음	문장의 다른 성분과 독립적이며, 필수 성분은 아님
의미적 특징	어휘적 의미에서 변이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어휘의 명제적 의미에서 변이
담화·화용적 특징	나름대로 독특한 담화 기능 수행	다양한 담화 기능 수행



사용 범위	쓰임에서 공간적·계층적 보편성을 가져야 함	-
-------	-------------------------	---

<표 5>에 제시된 특징들은 다양한 측면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 가운데 실현 환경, 형태·통사·의미적 측면, 그리고 담화·화용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실현 형식과 의미적 특성에 관한 것은 이전 절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담화·화용적 특성은 기존의 어휘적 의미에서 벗어나 하나의 언어적 형식에도 담화의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둘 이상의 기능을 지닌다는 것으로, 이는 다음 장의 내용과 연관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표 5>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특징 가운데 실현 형식과 의미적 특성, 그리고 담화·화용적 특성을 제외한 실현 환경, 형태·통사적 특성, 그리고 그 외의 특성에 해당하는 운율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먼저 실현 환경에 관한 특징은 언어가 기원적으로 입말에서 비롯되었으며,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언어의 특성이 입말에서 가장 잘 실현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영옥(2002: 120)에서는 글말 담화에 청자의 체면을 고려한 표현이나 중단되려는 발화를 잇는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글말이 계획적이고 정제된 성격을 지닌 데에 반하여 입말은 대체로 비계획적이고 즉흥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형태적 측면에서 고정성이 높다는 특징은 곧 담화 표지가 곡용이나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담화 표지는 다른 문법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이 그 예이다.

- (2) ㄱ. 베를 먼 [인자/\*인자는] 저 베 나라가꼬 한 노미 또 이리 네로옴스러 자꾸 네 루게 오게 함스러 올림서 또 거그다는 이르케 가머. (베를 무슨 이제 저 베 날 아가지고 한 것이 또 이리 내려오면서 자꾸 내려오게 오게 하면서 올리면서 또 거기다는 이렇게 감아.) 《2012보고서-신안: 29》
- ㄴ. 그런디 여그 옹게는 읍:24뜨만. 사네도 취도 업:꼬 꼬사리도 업:꼬 근디 인자는 꼬사리가 나. (그런데 여기 오니까는 없더구먼. 산에도 취도 없고 고사리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고사리가 나.) 《영광: 228~229》

24) “:”은 전사 자료에서 장음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2)는 모두 전사 자료에서 나타난 ‘이제(인자)’에 대한 용례이다. (2ㄱ)은 담화 표지 ‘인자’에 대한 예로, 조사가 붙으면 의미가 상당히 어색해진다. 반면, (2ㄴ)의 ‘인자’는 ‘인자’<sup>25)</sup>으로 나타나 있어 시간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기갑(1995: 267~268)과 임규홍(1996: 10)에서는 담화 표지 ‘인자’와 시간 부사 ‘인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는’, ‘-까지’, ‘-부터’ 등의 조사 결합 여부로 보았다.

그러나 모든 담화 표지가 형태적으로 고정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말이다’, ‘있잖아’, ‘뭐냐’ 등은 예외적으로 어미 활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말이다’는 ‘말입니다’, ‘말이지’, ‘말이야’, ‘있잖아’는 ‘있잖아요’, ‘있잖습니까’, 그리고 ‘뭐냐’는 ‘뭐죠’와 같이 실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종결어미의 교체는 담화 내에서 화자가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통사적 측면에서 담화 표지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어떠한 수식 관계도 맺지 않기 때문에 독립성이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담화 표지는 문장이나 발화의 명제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 (3) ㄱ. 거따가 인자 머 거석 그걸 가꼬 마:니 해. 저:얼 닥 날:개 거 큼 거 큼 거 거  
 ㅁ: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뭐 거시기 그걸 가지고 많이 해. 저 닭 날개 그 큰  
 것 큰 것 그 빼어다가,) 《광양: 316~317》
- ㄴ. 거따가 그걸 가꼬 마:니 해. 닥 날:개 까 큼 거 큼 거 ㅁ:다가 (거기에다가 그  
 걸 가지고 많이 해. 닭 날개 큰 것 빼어다가,) 《광양: 316~317》

(3ㄱ)은 발언권 유지 기능에 관한 담화 표지 ‘인자(이제)’, ‘머(뭐)’, ‘거석(거시기)’, ‘그’가 함께 실현되어 있는 예이다. 그러나 (3ㄴ)과 같이 담화 표지를 생략하면 더욱 명료한 발화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발화에 실현된 여러 형태가 기원형의 어휘적 의미와 통사적 제약에서 벗어나 화자의 의도 및 태도를 드러내는 기능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발화의 명제적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3)과 같이 생략해도 자연스러운 담화 표지의 유형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유형도 존재한다<sup>25)</sup>.

25) 이는 전영옥(2002: 13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ㄱ. 근까(그까, 그러니까), 근테(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그래가지고(그래가지구, 그래갖구),  
 그 담에

생략이 부자연스러운 담화 표지는 그 의미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전영옥(2002)는 ‘어휘 의미적 기능 - 중간 단계 - 담화 표지’의 과정 가운데 중간 단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운율적 특징은 억양 단위(intonation unit) 내에서 담화 표지가 실현되는 위치와 관련이 있다. 억양 단위는 Chafe(1988: 2)에서 화자가 어떠한 순간에 자신의 의식 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특정 정보를 나타내는 언어 표현(linguistic expression of the particular information on which a speaker is focusing his or her consciousness at a particular moment)이라 정의하였다. 전영옥(2002: 123)에 따르면 억양 단위는 화자의 의식에 떠오른 생각이 발화된 단위로, 상승, 하강의 억양 굴곡이나 휴지 등의 초분절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억양 단위는 곧 발화의 단위이자 정보의 단위라 할 수 있다. 담화 표지는 이러한 억양 단위의 시작이나 끝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분포적 양상은 담화 내에서 화자가 말을 이어나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억양 단위의 첫 부분에 실현된 담화 표지는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켜 발화를 시작하겠다는 의도를 청자에게 알리며, 끝 부분에 실현된 것은 발화를 지속할 목적으로 다음 발화를 준비하거나, 발화를 마무리하는 기능을 한다<sup>26)</sup>. 그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4) # [그 사람드른 기양] [완:저니 기양] [몰쌀지:경당 주거부러꼬,] (그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몰살지경 죽어 버렸고),

@ 애. (예.)

# [하가꼬 아치개 가서봉께] [막 시:체가] [막 들과내고] [지서아내고 늘비헨는디 먼] [정시니 한나도 읍써요.] (그래 가지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막 시체가 막 들판이고 지서 안이고 늘비헨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보성: 434~435》

(4)에 실현된 담화 표지 가운데 ‘기양(그냥)’과 ‘뭐’는 후행 발화 내용을 생각할 시간을 버는 기능을 한다. 이는 곧 자신의 발화를 지속하려는 의도를 청자에게 알리는 것

- 
- ㄴ. 어쨌든, 하여튼, 아무튼
  - ㄷ. -어 가지고, 말이야, 있잖아
  - ㄹ. 자, 저, 아니, 글썄
  - ㅁ. 응, 아, 음, 어, 예, 네, 예

26) 이에 관하여 황병순(2010)에서는 담화 표지가 모든 억양 단위의 앞뒤에 실현된다고 보았다. 다만 담화 표지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더 적절한 위치에 결합되는 정도의 제약이 있을 뿐이라 언급한 바 있다.

으로, 억양 단위의 끝에 실현된다. 한편 ‘하가꼬(그래 가지고)’는 여기에서 화제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담화 표지로, 억양 단위의 처음에 실현된다. 마찬가지로 ‘막’ 또한 예문에서는 뒤따르는 말의 내용을 강조하는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억양 단위의 앞에 발화되었다<sup>27)</sup>. 비록 (4)의 용례가 입말 담화를 전사한 자료이기에 억양 단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억양 단위는 끝 부분의 변화에 따라 화자가 강조하는 정보나 발화를 계속할 의도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단서가 된다.

또한 담화 표지는 공간적·계층적으로 보편성을 지니며 사용된다. 임규홍(1996: 3)에서는 담화 표지가 담화의 특성상 개별적인 특성도 지닐 수 있지만, 담화 문법적으로는 공간적, 혹은 계층적으로 상당한 보편성을 지녀야 함을 전제하였다. 이는 국가적 단위의 언어 공동체뿐 아니라 그 언어에서 분화된 변종을 사용하는 지역 공동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담화 표지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담화 표지에 대한 분류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실현 형식과 담화 기능에 따른 유형화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억양 단위 내 실현 위치 및 생략 가능성과 기원형의 유형 및 의미를 기준으로 담화 표지를 분류하기도 하였는데, 자세한 것은 <표 6>에 정리하였다.

<표 6> 담화 표지 분류 기준에 따른 세부 유형

분류 기준	관련 연구	세부 유형
실현 형식	임규홍 (1996)	<b>어휘적 담화 표지</b> (반복 정보 담화 표지, 어휘 담화 표지) <b>비어휘적 담화 표지</b> (지시어·감탄사·초분절음 담화 표지)
	김태엽 (2000)	<b>본디 담화 표지</b> (감탄사, 부사어, 지시어, 운소) <b>전성 담화 표지</b> (내용어→기능어, 기능어→담화적 기능어)
	전영옥 (2002)	<b>어휘 담화 표지</b> (부사, 감탄사, 대명사, 용언, 관형사, 조사 등) <b>구절 담화 표지</b> (동사구, 문장 등)
담화 기능	안주호 (1992)	<b>부름표지</b> (담화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을 부르는 기능) <b>시발표지</b> (도입부에서 담화를 시작하는 기능) <b>전환표지</b> (화제부에서 화제를 바꾸는 기능)

27) 이러한 강조 기능은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억양 단위의 처음에 실현되는 담화 표지의 특징과 일부 유사하다.

		<b>종결표지</b> (종결부에서 담화를 적절하게 끝맺는 기능)
	전영옥 (2002)	<b>화제와 화제 결속</b> (담화 내 화제 전개) <b>화자와 화제 결속</b> (화자 자신의 발화 지속 의도) <b>화자와 청자 결속</b> (상호작용)
기타	전영옥 (2002)	<b>역양 단위 내 실현 위치</b> (시작, 중간, 끝) <b>생략 가능성</b> (생략하면 자연스러운 것, 생략이 자연스러운 것과 생략하면 어색한 경우를 모두 가진 것)
	황병순 (2010)	<b>기원형의 유형</b> (단어형, 구형) <b>기원형의 의미</b> (화자와 청자, 담화 상황에 대한 수용 태도, 담화 상황에 대한 의문, 담화 상황에 대한 확인, 담화 시점의 부각, 담화상황 지시)

<표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현 형식에 따른 유형 분류를 제시한 연구는 임규홍(1996), 김태엽(2000) 등이 있으며, 담화 표지의 기능에 따른 분류에 대한 연구는 안주호(1992) 등이 있다. 한편 전영옥(2002)에서는 실현 형식과 기능 외에도 역양 단위 내 실현 위치 및 생략 가능성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담화 표지의 여러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유형화가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각 연구의 유형화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실현 형식에 대한 것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임규홍(1995)이 제시한 ‘반복 정보 담화 표지’는 담화 내에서 반복되는 모든 성분을 담화 표지로 오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초분절음 담화 표지’는 화자의 발화 내에 실현되는 휴지(pause)나 역양 및 강세에 따라 일정한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언어 형식이 아닌 반언어적 요소이기 때문에 담화 표지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sup>28)</sup>. 마찬가지로 김태엽(2000)에서도 이러한 한계가 지적되는바, 해당 연구에서는 담화 표지의 발달 기제를 문법화로 보았음에도 ‘본디 담화 표지’에 운소를 포함하였다는 사실이 그러하다.

28) 이와 관련하여 전영옥(2002:121)에서 운율적 요소는 담화 표지의 실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담화 표지로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황병순(2010:128)에서는 운율적 요소가 담화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이를 담화 표지로 간주하게 되면 담화 기능을 수행하는 화자의 표정이나 몸짓까지 담화 표지의 범주에 포함해야 하는 문제를 낳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르면 운율적 요소는 담화 기능을 지니기는 하지만, 담화 표지의 실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보조적 수단이라 할 수 있기에 그 자체로 담화 표지라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담화 표지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른 유형화에 대한 연구 가운데 안주호(1992)에서는 담화 기능을 ‘도입부-화제부-종결부’의 세 단계로 나뉘는 담화의 구조에 따라 담화 표지를 <표 6>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부름표지’에 해당하는 것들의 유형화에 다소 문제가 있다. 이는 강희숙(2006: 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봐’나 ‘여보세요’ 등과 같은 지시 대명사 ‘이’ 계열 외에도 대화 상대자의 이름이나 직책명과 같은 호칭까지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전영옥(2002)는 담화 참여자와 화제 전개 양상에 따라 담화 표지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연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능에 따른 담화 표지는 황병순(2010: 131)에서 특정한 형태의 담화 표지가 특정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담화 표지가 맥락에 따라 여러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능에 따른 특성으로 유형화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발화 내에 실현되는 담화 표지가 맥락에 따라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능에 따른 담화 표지의 유형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황병순(2010)에서는 담화 표지를 기원형의 유형 및 의미에 따른 유형화를 제안하였다. 이 가운데 기원형의 의미에 따른 분류는 담화 표지가 지닌 기능이 기원형의 의미를 따라 발달한다는 특징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화 표지의 기능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맥락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이를 기원형의 의미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는 전영옥(2002: 122)에서 담화 표지를 ‘다양한 언어 형식이 구어에서 획득하는 기능을 중요시한 개념’이라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기원형의 유형에 따른 분류는 담화 표지로 발달하기 이전의 어휘나 구절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실현 형식에 따라 분류한 전영옥(2002)에서 제시한 것과 유사하다. 다만 전영옥(2002)에서 제시한 ‘어휘 담화 표지’와 ‘구절 담화 표지’에서 ‘어휘’와 ‘구절’은 용어 자체적으로 어휘적 의미와 통사적 제약을 내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명명은 개념상의 혼란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황병순(2010)이 제시한 ‘기원형의 유형’을 품사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 3. 담화 표지의 발달 요인

#### 3.1. 문법화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담화 표지의 발달 요인을 문법화와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만큼 담화 표지의 발달 요인을 논의하기에 앞서 문법화의 정의와 원리, 그리고 그 기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문법화’라는 용어는 Hopper & Traugott(1993: 1)에서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틀로서 문법화된 형태와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언어를 형성하는가와 연관된 이론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이론이 다루고자 하는 실질적인 언어 현상으로, 시간에 따라 어휘적인 것이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이른다. 다시 말하면 ‘문법화’라는 용어는 ‘이론으로서의 문법화’와 ‘언어 현상으로서의 문법화’ 두 가지로 나뉜다.

현상으로서의 문법화는 초기에 Antonio Meillet에서 “완전한 자립적 단어에 문법적 특징을 부여하는 것(Meillet, 1912; 이성하, 1998: 23에서 재인용)”이라 정의되었다. 이후 Jerzy Kuryłowicz는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증가되는 현상(Kuryłowicz, 1975 [1965]: 52; 이성하, 1998: 23에서 재인용)”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즉 문법화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문법적인 것이 더 문법적인 것으로 이행하는 현상이자, 점진적인 언어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법화는 Bybee et al.(1994)에서 의미와 음운, 그리고 범주의 변화가 단일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단일방향성 가설(Hypothesis of Unidirectionality)을 따른다. 이 가설에 따르면 의미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음운의 측면에서는 자립적인 것에서 주변 환경에 의한 의존적인 것으로, 범주의 측면에서는 어휘적인 것이 문법적인 것으로 변해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 측면에서만 일어나는 것뿐 아니라, 여러 측면이 병행하여 일어나기도 한다. Hopper & Traugott(1993: 96)에서는 문법화의 특징으로, 기원형이 지닌 의미 항목의 일반화(Generalization)나 약화(Weakening)의 과정으로 문법적 의미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이러한 의미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친 음성적 축소(Phonetic erosion)



와 병행하여 일어난다고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Hopper(1991)은 문법화의 원리를 층위화(Layering), 분화(Divergence/Split), 특수화(Specialization), 의미 지속성(Persistence), 탈범주화(Decategorization)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층위화의 원리는 언어 형식의 기능 영역에서 새로운 층위가 지속적으로 생겨남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층위와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층위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층위와 공존함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문법화소들이 자꾸 같은 영역 안에서 문법화되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같은 기능을 지니는 여러 표현들이 공존하는 현상이다(김태엽, 2001: 7).

분화의 원리는 한 언어 형식이 문법화를 겪게 될 때, 기원형은 자율적인 어휘적 요소로 남게 되면서 일반적인 어휘 항목과 같은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그 결과는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된 둘 이상의 문법 형태가 의미·기능상으로 나뉘는 현상을 분화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하(1998: 178)에서 광의로서의 분화는 하나의 어원에서 여러 문법소들이 갈라져 나오는 모든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며, 협의로서는 한 단어가 문법소가 되면서 기원형은 어휘적 의미를 지닌 내용어로 남게 되고, 파생된 문법소는 새로운 의미를 얻으며 변해 가는 현상을 가리킨다고 정의하였다.

특수화의 원리는 이른바 ‘선택의 축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새롭게 생겨난 문법의 구조를 특징짓는다. 이는 층위화의 원리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는 같은 기능을 지니는 여러 문법소들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한 경쟁의 결과로 특정 문법소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문법소를 제치고 해당 범주를 전담하는 문법소가 되는 것을 특수화라고 한다.

의미 지속성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문법화를 겪은 언어 형식은 기원형의 의미가 추상화되거나 약화되어 형태와 의미가 변화하지만, 기원형의 의미가 어느 정도 지속되어 있음을 이룬다. 이러한 까닭에 기원형의 문법상 분포나 공기에 제약이 문법화를 겪은 형태에도 반영된다.

탈범주화의 원리는 문법의 주요 범주(major category)의 형태·통사적 자질을 상실하고 점차적으로 주변 범주(minor category)의 특징으로 변화해 감을 이룬다. Hopper & Traugott(1993: 104)에서는 이러한 주요 범주에서 주변 범주로의 연속 변이(cline) 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높은 파생 접사 ‘-hood’, ‘-dom’, ‘-ly’의 예를 제시하였다.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다.

- (6) ㄱ. **childhood**: cild-had(‘condition’과 같은 의미)
- ㄴ. **freedom**: freo-dom(‘realm’과 같은 의미)
- ㄷ. **manly**: man-lic(‘body’, 혹은 ‘likeness’와 같은 의미)

(6ㄱ)의 ‘had’, (6ㄴ)의 ‘dom’, (6ㄷ)의 ‘lic’은 기원적으로 모두 명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6)에서 제시된 예는 본래 합성어에 해당하였다. 이는 재분석이 언어 형식의 외적 변화가 아닌,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 형식의 구조와 체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화용적 추론은 대화상에서 함축된 한 언어 형식의 의미가 실제 의미로 관례화(conventionalization)되는 것을 이른다. 즉 언어 형식의 본래 의미에서 화자의 대화 함축으로 나타난 문맥 의존적 의미가 청자의 추론에 따라 그 언어 형식이 지닌 실제 의미의 일부로 추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용적 추론에서 관례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 형식의 높은 사용 빈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화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언어 형식일수록 그에 따른 청자의 추론 또한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문법화 이론은 언어의 체계적인 변화 과정과 그 경향을 설명하는 토대가 되어 왔다. 그러나 문법화는 일반적으로 ‘어휘적인 것, 혹은 덜 문법적인 것이 더 문법적인 것으로 바뀌어 가는 현상’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는 통시적인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형태 변화 위주의 정의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의로는 담화 표지의 발달, 특히 구절 형식의 담화 표지의 발달을 다루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문법화의 일반적 정의로는 언어 사용에서 유동성이 강한 담화·화용적 관점을 아우르기에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문법적인 것’과 관련하여 이성하(1998)에서는 문법상 적합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으로 쓰이는 단어 의미의 완전성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즉 단어의 의미가 완전한 것은 ‘어휘적’이며, 불완전한 것은 ‘문법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로는 어떠한 것이 문법적인 것이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낳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여러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 3.2. 주관화

주관화는 Traugott(1982)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언어 형식의 의미가 덜 주관적인 것에서 더 주관적인 의미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곧 주관화는 명제적 의미에 화자의 관점이나 태도가 언어 형식에 개입되어 점점 주관적인 의미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특성을 ‘주관성(subjectivity)’이라 한다. 주관화는 어휘 범주가 문법 범주로 변화하는 과정에 주목한 형태 변화가 중심이 되었던 기존의 정의와는 달리, 의미 변화에 초점을 둔 개념에 해당한다. 즉 주관화는 기존의 문법화에 대한 연구 경향을 의미 변화의 측면으로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 변화는 어휘적 의미가 소실되고 점차 추상화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주관화 이론의 등장으로 의미의 변화 양상과 성격, 이를 동기화하는 인지적 기제를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게 된 것이다(조미희, 2016: 68). 이는 특히 실제적 의미에서 담화적 의미로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바, Traugott & König(1991)에서는 주관화의 경향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7) 주관화의 의미·화용적 경향(Traugott & König, 1991: 208-209)<sup>32)</sup>

- |            |            |   |                    |
|------------|------------|---|--------------------|
| ㄱ. 경향성 I   | 외적인 기술적 상황 | > | 내적(가치판단/지각/인지적) 상황 |
| ㄴ. 경향성 II  | 외적/내적인 상황  | > | 텍스트적 상황            |
| ㄷ. 경향성 III | (텍스트적 상황)  | > | 화자의 주관적 신념 상태      |

(7)은 의미가 점점 주관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조미희(2016)는 영역 내 의미 변화와 영역 간 의미 변화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이에 따르면 (7ㄱ~ㄷ)의 영역 내 변화에서, (7ㄱ)은 어휘의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의 변화에 해당한다. (7ㄴ)에서는 앞 절에 언급한 문법화의 기제 가운데 ‘화용적 추론’과 연관된 것으로, 명제 의미에 대하여 화자의 평가가 강화된 의미로 변화한다. (7ㄷ)은 화자의 평가적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청자를 고려하는 의미로 나아간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상호주관화(intersubjectification)’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담화가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즉 주관화 과정을 통하여 획득된 주

32) 이성하(1998: 42)에서 재인용.

관성이 화자 중심이라면, 상호주관성은 화자와 청자를 모두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영역 간 의미 변화는 앞서 언급한 영역 내 의미 변화에서 미루어 볼 수 있다. 곧 (7ㄱ)에서 (7ㄴ)으로의 변화는 어휘에서 명제 의미로, 그리고 (7ㄴ)에서 (7ㄷ)으로의 변화는 명제 의미에서 담화 의미로 나아간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임규홍(2003: 285)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8) 명제적(개념적) 의미 > (텍스트적 의미) > 표현적(화용적) 의미

(8)의 ‘표현적(화용적) 의미’로의 변화는 앞서 언급한 (7ㄷ)의 과정과 함께 화용화와도 연관된다. 이는 의미 변화로서의 주관화를 담화의 차원까지 확장한 개념에 해당한다. 화용화는 문자 그대로 한 언어 형식이 화용적 상황에서 그에 맞는 특성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증가하는 과정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주관화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임규홍(2003)에서는 화용화가 문법화 이전에 나타난다고 하였다<sup>33)</sup>. 그러나 이들은 화용론과 담화 문법에 기반한 것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문법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문법화를 전제하지 않고, 그 역 또한 그러하다<sup>34)</sup>. 다시 말하면 주관화는 기존의 문법화와는 달리 의미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는 화용화 또한 마찬가지로, 문법화와 주관화는 유추에 의한 화용적 추론이라는 기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영향을 주지만, 이 두 개념이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화용화의 관점에서 담화 표지의 발달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는데, Kaltenböck et al.(2011), Heine et al.(2012), Heine(2013)에서 제시한 ‘영입’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것은 다음 항에 설명하고자 한다.

33) 임규홍(2003: 285)에서는 화용화가 문법적 기능으로 전환되기 전의 단계로 나타나며, 문법적 기능으로 바뀌어 화석화(fossilization)된 것을 문법화라고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화용화를 ‘Pragmaticization’이라 명명할 바 있다. 이는 문법화의 두 가지 관점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과정으로서의 문법화(Grammaticalization)와 결과로서의 문법화(Grammaticization) 가운데 후자에 기반한 명명이라 판단된다.

34) 이와 관련하여 Heine(2013: 1218)에서는 문법화와 구별되는 화용화의 특징을 ‘통사적 분리(Syntactic isolation)’, ‘융합의 감소(Lack of fusion)’, ‘의미·화용적 작용역의 범위 증가(Increase in semantic-pragmatic scope)’, ‘수의성(Optionality)’, ‘비진리조건성(Non-truth conditionality)’, ‘특유의 문법적 지위(Peculiar grammatical status)’의 여섯 가지로 언급하였다. 이는 다음 절에 후술할 ‘영입’의 특성 과도 연관된다.

### 3.3. 영입

Kaltenböck et al.(2011: 874~875)의 정의에 따르면 영입은 단어나 절, 구, 이외에도 다른 언어 형식을 포괄하는 문장 문법(Sentence Grammar)의 단위가 독립된 말로써 쓰이기 위해 배치되는 작용을 이른다. 담화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러한 언어적 현상은 Kaltenböck et al.(2011), Heine et al.(2012), Heine(2013)에서 제시한 담화 문법(Discourse Grammar)의 체계와 관련이 있다. 앞에 제시한 연구에 따르면 담화 문법은 구어·문어 담화를 구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언어적 자원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르며, 이는 문장 문법과 단독 문법(Thetical Grammar)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문장 문법은 발화 및 문장, 절, 구, 단어, 형태소를 다룸과 더불어 형태론적·통사론적 체계를 문장의 구성 요소와 서로 관련짓는 데에 관한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이론 언어학 가운데 통사론과 같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단독 문법의 영역은 담화의 구성을 위하여 문장 문법 영역의 요소를 새로운 독립적 삽입어(theticals)<sup>35)</sup>로 끌어 오는 능력뿐 아니라 문장 문법에서 유래하여 독립적으로 쓰이는 표현 및 그 구조<sup>36)</sup>를 다룬다.

독립적 삽입어의 특징은 Kaltenböck et al.(2011: 853)에서 다섯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통사적으로 독립적이며, 둘째, 발화의 공백에서 운율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셋째, 의미에 제한이 없으며<sup>37)</sup>, 넷째, 분포에 유동적인 경향을 띠게 되며, 다섯째, 그 내적 구조가 문장 문법 영역을 기반으로 하나,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영입의 개념을 상기해 보면, 문장 문법의 단위가 단독 문법으로 편입될 때 그 의미가 더 이상 문장이나 발화의 구성 요소와 관련성을 잃고 담화의 상황<sup>38)</sup>과 연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현상으로서의 영입은 담화 표지의 발달과

35) Heine(2013: 1215)에서는 ‘thetical’이라는 용어가 삽입어를 뜻하는 ‘parenthetical’이 줄어든 것이라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술할 그에 대한 특징을 따라 ‘독립적 삽입어’라 명명하고자 한다.

36) Heine et al.(2012)에서는 이에 대하여 ‘개념적 독립 삽입어(Conceptual theticals)’,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형 표현(Formulae of social exchange)’, ‘부름말(Vocatives)’, 명령문(Imperatives), ‘감탄사(Interjections)’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이들은 모두 Kaltenböck et al.(2011: 872)에서는 ‘정형화된 독립적 삽입어(formulaic theticals)’라 언급한 것들인데, Heine(2012: 165)에서는 이 가운데 개념적 독립 삽입어를 이루는 하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37) 이는 Heine(2013: 1215)에 따르면 문장이나 그 구성 요소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담화 상황에 근거한 추론 과정 및 그 기제와 관련된 것이다.

38) 이를 결정하는 구성 요소는 ‘텍스트 구조(Text organization)’, ‘정보의 원천(Source of information)’, ‘화자의 태도(Attitudes of the speaker)’, ‘화자와 청자 간 상호작용(Speaker-hearer interaction)’, ‘담화 환경(Discourse settings)’, ‘세상에 대한 지식(World knowledge)’의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담화의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서로 관계를 이루어 담화의 상황을 결정한다.

관련하여 거시적이며 통시적인 성격을 띠는 문법화와는 달리, 담화 상황이라는 미시적 이고 공시적인 성격을 띠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영입은 문법화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Heine(2013: 1222~1223)에 제시된 문법화와 영입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표 7> 문법화와 영입의 차이점(Heine, 2013: 1222~1223)**

특징	설명
즉흥성 (Spontaneity)	문법화는 그 과정이 완료되는 데에 수 세기가 걸리는 점진적인 과정에 해당하나, 영입은 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작용역 (Scope)	문법화는 언어 단위의 의미·화용적 작용역의 제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영입은 작용역의 범위 증가를 수반한다.
통사적 특징 (Syntax)	문법화는 예컨대 형태음운론적 특성이나 자립성의 감소와 같은 내적·외적 탈범주화로 이어진다. 그러나 영입은 언어적 단위가 그 환경에서 통사적으로 독립적이라는 점에서 외적 탈범주화를 겪지 않는다.
의미적 특징 (Semantics)	문법화된 단위의 의미는 그 단위가 실현된 문장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입을 겪은 언어 단위인 독립적 삽입어의 경우 문장 의미의 일부로서가 아닌, 비제한적·상위의사소통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형태음운적 특징 (Morphophonology)	탈범주화와 관련하여 문법화된 항목은 결합 가능한 문장 내 어휘 및 다른 요소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형태는 접어나 접사가 될 수 있다. 한편 영입의 과정을 겪은 언어 단위의 경우, 발화의 공백과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운율적 특징 (Prosody)	문법화는 대부분 언어 단위가 지닌 특유의 억양 및 그 외의 운율적 특징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이와는 달리 영입에서는 휴지와 함께 특유의 억양 곡선이 특징인 자립적인 단위를 만들어 낸다.
배열적 특징 (Word order)	문법화가 진행 중인 정보 단위는 배치가 점차 제한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정 어휘의 뒤에 한정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영입을 거쳐 독립적 삽입어가 된 경우는 배열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경향을 보인다.

언어 형식의 통시적 발달과 관련된 문법화의 경우, 그 과정 사이에 영입이 관여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으나, <표 7>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영입은 총 일곱 가지 측면에서 문법화와 구별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문법화의 일부로 포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두 이론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나, 필연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견해는 Heine and Kuteva(2010: 34; 전영옥, 2017: 142~143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담화 표지의 발달 과정을 ‘부사, 전치사, 접속사 > [영입] > 삽입구 > [문법화] > 담화 표지’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문법화는 문장 구조 및 담화 구조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Heine(2013: 1238)에서는 문법화가 영입 이전에 나타날 수 있으며, 담화 내에서 즉흥적으로 실현된 독립적 삽입어가 담화 표지로 발달하게 될 때에는 영입 이후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담화 표지의 형태와 의미를 연구할 때, 통시적인 발달 여부뿐 아니라 담화 상황이나 맥락 또한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 Ⅲ. 전남 방언 개별 담화 표지의 유형 및 기능

본 장에서는 2004년에서 2013년까지 10년 동안 진행된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및 전사 사업’의 결과물 가운데 전남 방언 체보자의 입말 담화를 전사한 자료에 나타난 개별 담화 표지의 형태와 기능을 유형에 따라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담화 표지의 분류 및 분석에 일정한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담화 표지의 분류에 대한 기준은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병순(2010)에서 제시한 기원형의 유형에 따른 분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이 유형은 ‘단어형 담화 표지’와 ‘구형 담화 표지’로 나뉘는데, 앞선 두 유형만으로는 전남 방언에 나타난 모든 유형의 담화 표지를 포괄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어 기원형’과 ‘구절 기원형’ 이외에 두 가지 유형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9) ㄱ. 고유형<sup>39)</sup>

- ㄴ. 단어 기원형: 대명사 기원형, 관형사 기원형, 부사 기원형, 감탄사 기원형
- ㄷ. 체언 및 용언의 활용형 기원형
- ㄹ. 구절 기원형

(9ㄱ)의 ‘고유형’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지닌 유형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담화 표지는 그 기원형 및 지역에 따른 사용 양상에 따라 결정된다<sup>40)</sup>. 기원형에 관한 조건은 해당하는 담화 표지의 기원형이 불분명하거나, 기원형이 존재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발달한 것이라 추정되는 담화 표지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적 사용 양상에 대한 것은 대체로 전남 지역에 국한하여 쓰이는 담화 표지, 혹은 지역적으로 널리 사용되더라도 타

39) 강민정(2015)에서도 담화 표지의 유형 가운데 ‘고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과 명명상 유사하다. 그러나 강민정(2015)의 ‘고유형’은 각 담화 표지의 형태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것, 즉 이형태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40) 이 유형에 속하는 담화 표지로는 ‘와’, ‘웨’, ‘잉’, ‘야’가 있다. ‘와’와 ‘웨’의 경우 전남 지역에서만 쓰이며, 기원형이 불분명하다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고유형 담화 표지에 속할 수 있으나, ‘잉’과 ‘야’의 경우 김태인(2015), 이기갑(2016c, 2018)에서는 각각 확인의문문을 형성하는 부가의문문 표지 ‘응’과 ‘예’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합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할 ‘응’과 ‘예’가 담화상에서 ‘잉’과 ‘야’로 실현된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과 ‘잉’과 ‘야’가 지닌 기능 가운데 상대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기능은 ‘응’과 ‘예’에는 없는 고유한 기능이기에 때문에 일반적인 ‘응’과 ‘예’의 쓰임에서 나아가 독자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유형에 포함하였다.



지역어에 비하여 분포적 제약이 비교적 자유로워야 한다. (9ㄴ)의 유형은 일반적인 품사 분류에 따른 것으로, 대명사와 관형사, 부사, 감탄사에서 기원한 담화 표지가 이에 포함된다. (9ㄷ)의 ‘체언 및 용언의 활용형 기원형’은 체언 및 용언과 계사 ‘-이다’가 결합한 담화 표지와 용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것을 다룬다. (9ㄹ)의 ‘구절 기원형’은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한 것을 대상으로 한 유형으로, (9ㄷ, ㄹ)에서는 담화 표지의 형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어미의 제한적인 활용 이외에 다른 어휘적·문법적 요소와는 일절 결합하지 않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담화 표지의 기능을 분석하는 기준에 대하여 그간의 선행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개별 담화 표지의 기능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개별 담화 표지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에 일정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담화 자료의 맥락에 의존하여 단순히 기능만을 제시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담화 표지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 전영옥(2017: 144)에서는 담화 표지가 담화상에서 화자의 다양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연구자의 관점이나 담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제시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국 언어 현상을 유형화하여 기술하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담화 상황에서 어떠한 기능으로 실현되는가를 아울러 설명할 수 있는 상위의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담화 표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8> 담화 표지의 기능 분석틀**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별기
		교정
		부연
		열거
	발언권 가져오기	-
	완곡한 발화 표현	-
	상호작용 유도	

	발화 내용 강조	-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시작	-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화제 복귀
	화제 종결	-
태도 관련 기능	주저하기	-
	긍정적 태도	동의
		호응
		친밀감 표시
부정적 태도	반박	

<표 8>에 제시된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발화 전략 기능’과 ‘화제 관련 기능’, ‘태도 관련 기능’이 그것이다. ‘발화 전략 기능’은 화자의 발화 의도에 따라 나타나는 담화 기능을 이른다. 이 유형에서 나타나는 하위 기능들은 주로 의사소통에서 화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에 해당한다. ‘화제 관련 기능’은 화제의 전개와 관련한 기능이다. 이 가운데 ‘화제 전환’의 경우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를 경계로 화제가 전환되는 기능과 기존에 전개되던 화제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막고 본래의 화제로 되돌리는 기능으로 나누었다. 한편 태도와 관련된 기능은 화자의 태도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sup>41)</sup>. 여기에서는 화자의 불확실한 태도나 망설임을 나타내는 주저하기 및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에 따른 것으로 나뉜다.

위의 표에 나타난 기능들은 대부분 화자의 발화 전략과 관련되어 있어 화자와 상대방의 상호작용에 관한 기능이 부족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담화에서 참여자의 역할이 일방적인 화자와 청자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표 7>에 제시된 바를 참고하여

41) 유나(2015: 289)에서는 화자의 태도는 발화의 전후 맥락이나 어조에 따라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강조의 기능과 가깝다고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강조’ 기능은 화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발화의 정보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태도 관련 기능’의 하위 기능들을 살펴보면 ‘주저하기’, ‘호응’, ‘친밀감 표시’ 등 강조의 기능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강조’의 하위 기능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전사 자료에서 나타나는 개별 담화 표지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구종남(2015b: 74)에서 담화 표지의 기능은 발달 과정에 따라 본래의 어휘적 의미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를 연관지어 분석하기는 용이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결국 담화 표지의 기능도 기본 의미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성을 논하지 않고는 담화 표지의 기능을 설명할 수 없다(전영옥, 2017: 14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사 자료에서 발췌한 예문을 중심으로 <표 8>에 제시된 담화 표지의 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기원형의 어휘적 의미와의 연관성을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전남 방언에서는 각 담화 표지가 어떠한 형태로 실현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지역별 변이형도 제시하도록 하겠다.

## 1. 고유형

전남 방언에서 실현되는 고유형 담화 표지는 ‘와’, ‘웨’, ‘잉’, ‘야’가 있다. 이기갑(2003)에서는 이들 담화 표지를 상대높임법 등급이나 서법에 따라 문장의 종결어미 뒤에 제한적으로 호응하는 일종의 특수 조사로 보았다. 한편 강희숙(2006, 2011)에서는 ‘와’, ‘웨’, ‘잉’, ‘야’를 발화의 끝 부분에 실현되는 종결 담화 표지로 파악하였다. 특히 ‘잉’은 전남 방언에서 대부분 ‘이’로 실현되기도 하는데<sup>42)</sup>, 이와 관련하여 ‘와’, ‘웨’, ‘잉’, ‘야’의 지역별 변이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9> 고유형 담화 표지 ‘와’, ‘웨’, ‘잉’, ‘야’의 지역별 변이형

대표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와	-	-	-	-	-	-	-

42) 강희숙(2011: 56)에 따르면 ‘잉’은 ‘잉~인~이’의 변이형을 지니는데, 각 변이형의 음절 말음의 교체는 음운론적 강도의 약화 현상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조음 위치에 따른 국어 자음의 상대적 강도는 ‘연구개음>양순음>경구개음>치경음>후음’의 순으로(강희숙, 2011: 56), 이에 따르면 이러한 양상은 ‘[ŋ]~[n]~[Ø]’, 즉 ‘연구개음>치경음>영 음소(zero phoneme)’로 약화된다. 그러나 ‘이’의 경우 음절말 비자음이 탈락된 것으로 보이나, 이기갑(2003: 174)에서는 ‘이’가 실현될 경우 콧소리가 없어져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김태인(2015)에서는 ‘이’가 [+비음성] 자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사 자료에서도 ‘이’의 경우 비모음을 뜻하는 기호 ‘~’가 덧붙여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는 ‘이’가 음절말 비자음의 흔적이 잔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웨	-	-	-	-	웨	-	-
잉	잉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야	야	-	야	야	야	-	야

<표 9>에 따르면 전남 방언에서 ‘잉’과 ‘야’가 지역적으로 널리 사용됨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와’는 단 한번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웨’는 영암 지역어에서 한 차례만 실현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전사 자료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사자와 제보자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상대높임의 변수<sup>43)</sup> 가운데 상대적 변수에 해당하는 ‘위계’와 ‘친밀도’에 따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위계상으로는 제보자가 조사자보다 나이가 많으나, 조사자의 사회적 지위가 교수라는 점에서 서로를 함부로 낮추어 말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친밀도의 측면에서 조사자와 제보자는 서로 낯선 관계이거나, 지속적인 조사 및 면담을 통하여 그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하여도 허물없이 말을 할 만큼 친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특징과 관련하여 전사 자료에서 제보자의 발화는 대부분 두루높임과 두루낮춤으로 나타나는데<sup>44)</sup>, 이는 ‘와’와 ‘웨’가 지닌 통사적 제약과도 연결된다.

‘와’, ‘웨’, ‘잉’, ‘야’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높임법 등급이나 서법에 따라 각기 다른 통사적 제약을 지닌다. 이러한 사실은 강희숙(2011)에서도 논의된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5)</sup>.

43) 이기갑(2003)에서는 상대높임법 변수로 ‘발화 참여자’와 ‘발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분류하였다. 전자는 세대, 계층, 성으로 나뉘는 ‘절대적 변수’와 위계, 친밀도, 대우에 따른 ‘상대적 변수’로 세분된다. 한편 후자의 경우 격식성에 따른 것으로, [+격식]의 자질을 지닌 상대높임법 등급으로는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이 있으며, 그 역으로는 ‘두루높임’, ‘두루낮춤’이 있다. 이들 등급은 일반적으로 담화 상황에 따른 분류이기는 하지만, 담화 참여자 간의 친밀도에 따라 서로 달리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44) 이기갑(2003: 199)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담화 참여자 간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친밀]에 비해 한 등급 이상 낮은 말투로 변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서로의 친밀도에 따라 ‘두루높임>예사낮춤>아주낮춤’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전사 자료에 나타나는 제보자의 발화는 아직 조사자와 크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5) <표 10>의 ‘관련 통사적 특성’ 가운데 ‘상대높임법 등급(서남 방언)’은 이기갑(2003: 254)에서 제시한 서남 방언의 상대높임법 등급을 참고하였다.

<표 10> 강희숙(2011)에서 논의된 담화 표지 ‘와’, ‘웨’, ‘잉’, ‘야’의 통사적 제약

관련 통사적 특성		고유형 담화 표지			
대분류	소분류	와	웨	잉	야
상대높임법 등급 (서남 방언)	아주높임 (허씨요체)		○	○	○
	예사낮춤 (허소체)		○	○	○
	아주낮춤 (해라체)	○		○	○
	두루높임 (하라우체)			○	
	두루낮춤 (해체)			○	○
서법	서술문	○	○	○	○
	의문문	○		○	△ (아주높임, 두루낮춤)
	명령문	○	○	○	○
	청유문	○	△ (아주높임)	○	△ (아주높임, 아주낮춤)

<표 10>에 따르면, ‘와’는 아주낮춤의 종결어미에만 결합하며, ‘웨’는 아주높임과 예사낮춤의 종결어미와 호응한다. 이러한 특징에 미루어 보면 전사 자료에서 ‘와’와 ‘웨’가 단 한 차례도 실현되지 않거나 극히 드물게 실현되는 양상에 대한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 앞선 상대높임의 변수에 따른 설명에 기대어 보면 ‘와’와 ‘웨’는 두루높임과 두루낮춤의 종결어미와 결합하지 못한다는 제약을 지니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다. 특히 ‘와’의 경 손윗사람이 나이가 한참 어린 손아랫사람을 대할 때 쓰이는 담화 표지라 할 수 있어 전사 자료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sup>46)</sup>. 이와는 달리 ‘잉’과

‘야’는 상대높임법 등급에서 자유로운 분포를 보이는데<sup>47)</sup>, 이러한 특징은 ‘잉’과 ‘야’가 수행하는 담화 기능과도 연관된다. 본 연구의 기능 분석틀에 따라 담화 표지 ‘와’, ‘웨’, ‘잉’, ‘야’의 담화 기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1> 담화 표지 ‘와’, ‘웨’, ‘잉’, ‘야’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발화 중간에서 ‘잉’, ‘야’만 실현됨
	발화 내용 강조	-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종결	-	발화의 끝 부분에서만 실현됨
태도 관련 기능	긍정적 태도	친밀감 표시	

<표 11>에 제시된 기능 가운데 ‘발화 내용 강조’와 ‘화제 종결’, ‘친밀감 표시’의 경우 하나의 형태가 이들 기능을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실현 위치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가운데 발화의 끝 부분에 실현되는 기능은 ‘와’, ‘웨’, ‘잉’, ‘야’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것부터 먼저 살펴보겠다.

발화의 끝 부분에 나타나는 기능은 ‘발화 내용 강조’, ‘화제 종결’, ‘친밀감 표현’이 있다. 이들 기능은 강희숙(2011)에서 ‘와’, ‘웨’, ‘잉’, ‘야’를 분포상의 공통점에 비추어 종결 담화 표지로 정의한 바와 부합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와’, ‘웨’, ‘잉’, ‘야’의 공통 기능으로 ‘진술 내용 강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즉 선행 화제와 관련된 발화의 끝 부분에 실현되어 화제를 종결하고, 다음 화제에 대한 발화가 이어질

46) 이러한 견해는 이기갑(2003, 2018)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기갑(2003: 176)에서는 ‘와’가 주로 어른들이 나이 어린 상대에게 당부하는 말로 쓰인다고 하였다. 또한 이기갑(2018: 113)에서는 ‘와’가 흔히 여자들이 자식이나 손자 또는 조카 등에 대한 사랑스러움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며, 평균 간에는 화자가 상대방을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어색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47) 이와 관련하여 이기갑(2018: 81)에서는 담화 표지 ‘잉’의 분포에 대한 방언 간 비교를 시도하였는데, 동남 방언과 제주 방언과의 비교를 통하여 서남 방언의 ‘잉’이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동남 방언에서의 실현 제약은 상대높임법 등급 가운데 두루높임과 두루낮춤, 서법 가운데 편향의문문, 실현 위치에서는 문장 중간에 나타나며, 제주 방언에서는 상대 높임법 등급에서 두루높임 등급의 발화에 실현되지 못한다. 또한 오선화(2008: 103)에서는 동북 방언의 ‘웅’이 아주높임과 두루높임의 등급에서 실현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서남 방언의 ‘잉’은 실현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넓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한편 ‘야’의 경우 오선화(2008)에서는 아주높임, 두루높임, 아주낮춤의 등급의 종결어미와 호응하지 못한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서남 방언의 ‘야’ 또한 ‘잉’과 마찬가지로 타 지역어에 비하여 넓은 분포를 보인다고 하겠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제와 화제를 연결하는 담화 연결자로서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 (10) ㄱ. 우리 저, 큰따를, 큰딸 임:신혜:가꼬 저금나와서 나:쏘웨<sup>48</sup>). (우리 저, 큰딸을, 큰딸 임신혜 가지고 분가 나와서 낳았소.) 《영암: 114~115》
- ㄴ. 그렇게 넘더리 어즈게 해서 이:를 그르코 얼릉 허냐고 모다 그레제이~<sup>49</sup>).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해서 일을 그렇게 얼른 하느냐고 모두 그랬지.) 《영광: 78~79》
- ㄷ. 아따 절문 사람드리 밤남 나이도 덜:무근 사람드리 주궁께 성가시네야 우덜 가튼 사라미 먼춤 가야텐디 (아따, 젊은 사람들이 밤남 나이도 덜 먹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성가시네. 우리들 같은 사람이 먼저 가야 되는데.) 《2012보고서-신안: 40》
- ㄹ. 거 세무서제이~? (거 세무서지?) 《곡성 158~159》
- ㄱ. 요:요 대대봄부중대 봄부 칠씨보미리 무반동총 인는다 너 사격 잘해고 그래쑹개 너 그:리 보내줄꺼잉개 거가 쪼끔만 기다려바:라이~ 그래. (이이 “대대 본부중대 본부 칠십오 미리 무반동총 있는 곳, 너 사격 잘 하고 그랬으니까 너 그리 보내 줄 테니까 거기에 조금만 기다려 바라.” 그래.) 《보성: 460~461》
- ㄴ. 그렇게 오메오메 암:트 마레야. (그러니까 워메 워메 아무 말도 마라.) 《2013보고서-신안: 269》
- ㄷ. 예:러서 마라자 올을 드들빵애를 줌 가자이~. (예를 들어서 오늘 디딜방아를 줌 가자.) 《2012보고서-곡성: 141》

(10ㄱ~ㄷ)은 발화의 끝 부분에 각각 ‘웨’, ‘이(잉)’, ‘야’가 실현된 서술문의 예로, 선행하는 발화의 내용을 강조하며 화제를 끝맺고 있다. (10ㄹ)은 의문문<sup>50</sup>), (10ㄱ, ㄴ)은

48) 이기갑(2003, 2018)에서는 ‘웨’가 오직 예사낫춤의 종결어미와 호응한다고 주장한바, 이 예는 사실상 예사높임의 위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웨’가 아닌 ‘예’가 종결어미의 모음 /ㅛ/에 동화되어 결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강희숙(2011: 54~55)에서 제시된 예문 가운데 “아이고, 쪼깐씩만 들어갑시다웨.”를 보면, 아주높임의 청유형 종결어미 ‘-읍시다’에 ‘웨’가 함께 실현되었다. 여기에서는 해당 종결어미의 어말 모음이 평순모음인 /ㅏ/이기 때문에 음운론적으로 ‘예’가 ‘웨’로 바뀔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아니다. 이는 자료의 제약으로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웨’가 아주높임의 종결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49) ‘~’은 전사 자료에서 비모음화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50) 김태인(2015)에 의하면 ‘잉’은 부가의문문 표지로서 설명의문문과 중립적(unbiased) 판정의문문에서는 실현되지 못하며, 가운데 청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편향적(biased) 판정의문문에만 제한적으로 실현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야’에도 적용되는바, 이기갑(2018: 116)에서도 의문문에 결합하는 ‘야’는 확인물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립적인 의문문에는 결합할 수 없다고 언급한 데에



명령문, (10人)은 청유문인데, 서술문과는 달리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이상의 예문은 강희숙(2011)에서 언급한 ‘확인’ 및 ‘간곡한 요청’ 및 ‘하소연’의 기능과 연관되는데, 이는 발화에 내재한 화행이나 맥락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담화 효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발화 내용의 강조를 통하여 부차적으로 발현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앞선 ‘간곡한 요청’ 및 ‘하소연’의 경우 친밀감을 표시하는 기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발화의 끝 부분에 실현된 ‘와’, ‘웨’, ‘잉’, ‘야’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발화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시킴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친밀감을 표현함으로써 ‘와’, ‘웨’, ‘잉’, ‘야’가 사용되지 않았을 때보다 더욱 부드러운 어감을 느끼게 하는 기능을 지닌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발화 중간에 나타나는 기능에는 ‘시간 별기’와 ‘친밀감 표시’가 있다. 이 가운데 ‘시간 별기’는 ‘잉’과 ‘야’가 지닌 독특한 담화 기능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예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 (11) ㄱ. 토굴 쏘게다이~, 토굴 쏘게다 여:서 인자, (토굴 속에다 토굴 속에다 넣어서 이제) 《2012보고서-곡성: 130》
- ㄴ. 음: ○○<sup>51)</sup> 아집네가 농사를 안정게 이자 여로고 가시레먼이~ 수루메 장사를 해. (음 ○○ 아주머니네가 농사를 안 지니까 이제 이렇게 가을이면 마른 오징어 장사를 해.) 《2013보고서-영암: 224》
- ㄷ. 이뿌기도 하고야 어:따 네:노트이 머시메네에서는 암 빠져야 그르드라고. (예쁘기도 하고 어디에 내놓더라도 사내아이 중에서는 안 빠져 그러더라고.) 《2012보고서-신안: 24》
- ㄹ. 나 노래도야 이데꿈 함번도 모:빨러바쑈. (나 노래도 여지껏 한 번도 못 불러 봤소.) 《2012보고서-신안: 112》

(11ㄱ)과 (11ㄴ)은 ‘이(잉)’과 관련된 예로, (11ㄱ)에서는 조사 ‘-에다’ 뒤에, (11ㄴ)에서는 연결어미 ‘-먼(면)’ 뒤에 실현되었다. 한편 (11ㄷ)에서는 연결어미 ‘-고’ 뒤에, (11

---

서도 알 수 있다.

51) 예문의 출처인 《2013년도 전남 지역어 전사 보고서》에서는 인명이 명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로 대체하고자 한다.



ㄹ)에서는 조사 ‘-도’ 뒤에 각각 ‘야’가 실현되어 후행 발화를 이어가기 위한 시간을 버는 기능을 한다. 이는 발화의 끝에 실현되는 분포적 제약을 벗어난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11)에 나타나는 ‘잉’과 ‘야’는 발화 내용을 강조하거나, 혹은 그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일정한 반응을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사실은 ‘잉’이 두루뎛춤, 즉 반말 표현에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52)</sup>. 특히 ‘잉’의 경우 김태인(2015: 32~33)에서는 발화 내부에 나타났을 때, 상대방에게 친밀감과 은근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메움말의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 것과 같다.

## 2. 단어 기원형

단어에서 기원한 담화 표지는 대명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에서 발달한 것들이 있다. 본 절에서 다룰 대명사와 관형사 기원형 담화 표지는 공통적으로 지시적 의미를 지니던 어휘에서 유래하였다. 부사 기원형 담화 표지는 총 여덟 개로, 본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원인은 Hopper & Traugott(1993: 104)이 제시한 문법화의 연속 변이 과정에서 부사를 ‘중간 범주’로 분류한 데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 유형에서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부사와 문법적 의미를 지닌 접속 부사 외에도 지시 부사, 의문 부사에서 기원한 담화 표지로 나누는데, 어휘적인 것에서 문법적인 것까지 다양한 의미 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감탄사 기원형 담화 표지 또한 부사에서 기원한 것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로 감정감탄사보다는 의지감탄사에서 발달한 것에 편중되어 있다. 담화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볼 때,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화자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드러내는 의지감탄사가 담화 표지로 발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감정감탄사와 의지감탄사는 상대방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리 쓰인다고 하겠다. 이외에 서술어에 해당하는 담화 표지도 존재하나, 서술어는 문장 성분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품사 분류를 기준으로 한 본 절의 성격과 맞지 않아 후술할 ‘체언·용언의 활용형 기원형’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본 절에서는 일반적으로 품사를 나열하는 순서에 따라 대명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순으로 각 유형에 해당하는 담화 표지의 특징 및 기능을 고찰하고자 한다. 각 유형에 속하는 담화 표지의 나열 순서는 한글 자모 순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지역별

52) 이는 이기갑(2018)에서도 ‘와’, ‘웨’가 반말 표현 뒤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문장 내부에 나타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변이형도 함께 제시하였다.

## 2.1. 대명사 기원형

대명사에서 기원한 담화 표지는 ‘거시기’, ‘머/뻬(무엇)’, ‘어디’가 있다. 이들 담화 표지는 불특정한 대상을 지시하는 지시대명사이며, 이 가운데 ‘머/뻬’와 ‘어디’는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대명사에도 포함된다. 세 담화 표지는 모두 의문사에서 기원하였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거시기’는 이기갑(2018: 251)에서 ‘거시기’의 중세국어 의문사 ‘므슴’에 유추되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머/뻬(무엇)’과 ‘어디’의 경우, 김명희(2005: 53)에서는 ‘내용의문문의 의문사>간접의문문의 의문사>부정사>담화 표지’의 발달 과정을 거쳤다고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본래 내용의문문에만 쓰이던 것이 18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간접의문문에도 실현된 이후, 100여년에 걸쳐 부정사에서 담화 표지로 발달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마찬가지로 ‘거시기’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담화 표지가 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담화 표지 ‘거시기’와 ‘머/뻬’, ‘어디’는 각 형태의 의미 및 문법적 특징에 따라 담화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이에 관한 세부적인 특징을 각 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2.1.1. ‘거시기’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거시기’는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로 쓰이며<sup>53)</sup>, 하려는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가 거북할 때에 감탄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기갑(2018: 251)에서 ‘거시기’의 어원이 ‘무엇’을 뜻하는 ‘그슴’에서 온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그슴’은 중세국어 의문사 ‘므슴’에 유추되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3) 이기갑(2018: 225)에서는 대명사로 사용될 때 일반적인 대명사와 같은 통사적 역할을 하나, 지시대명사 ‘그것’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전제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청자도 충분히 알 수 있음을 전제하는 반면 ‘거시기’는 그러한 전제가 없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영(2000)에서는 ‘거시기’가 ‘그것’과 유사하지만, ‘거시기’는 상념적 지시만을 지닌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전남 방언에서는 중앙어형과 같은 ‘거시기’ 이외에도 고어형인 ‘그스’와 유사한 형태인 ‘거석’, ‘거스’, ‘그스’으로도 실현된다. 전남 방언에서 실현되는 ‘거시기’의 지역별 변이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2> 담화 표지 ‘거시기’의 지역별 변이형**

중앙어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거시기	거시기 거석	-	거시기 거석	거시기 그서기 머시기	거시기 거스	거시기	거시기 거석 거스 그스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남 방언에서는 ‘거시기’와 같은 의미를 지닌 ‘머시기<sup>54)</sup>’ 또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머시기’는 영암 지역어에서만 드물게 실현되었으며, 이외의 지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각 지역어 제보자의 개인적 언어 습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바, 한두 명의 제보자가 각 지역어 화자의 특징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시기’뿐 아니라 ‘머시기’ 또한 전남 방언 화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담화 표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명사 ‘거시기’의 문법적 특징으로 이기갑(2018)에서는 지시 대상이 화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나, 그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을 때 이를 대신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특징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거시기’는 명사나 지시대명사를 써야 할 자리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모호한 표현이라는 특성에서, 이 연구에서는 그 대명사적 용법을 ‘placeholder<sup>55)</sup>’의 개념을 빌려 설명하였다. 이러한 ‘placeholder’의 하위 용법은 ‘생각나

54) 이기갑(2018: 245)에서는 ‘므스’의 주격형인 ‘므스기’가 ‘무스기’를 거쳐 ‘머시기’로 발달한 것으로 보았는데, ‘무엇’의 서남 방언형 ‘멧’에 유추되어 ‘무스기’의 모음 /ʌ/가 /ɪ/로 변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거시기’의 주격형을 ‘그스기’로 상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는 지시어 ‘그’가 전남 방언에서 ‘거’로 실현되기도 한다는 점에 미루어 본다면 ‘그스’에서 ‘거시기’로의 변화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55) 이기갑(2018: 225)에서는 사람, 사물, 지점, 장소 등의 특정 명칭 대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문법적으로 명사와 같은 구실을 하는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지시 대상이 발화 상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대명사와 유사하나, 지시 대상이 없을 때에도 사용되기 때문

지 않는 체언을 지시하는 표현’, ‘역행대용(cataphora)의 선행사<sup>56)</sup>’, ‘부정대명사’의 세 가지 용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역행대용의 선행사’는 ‘거시기’에 대응되는 명사가 후행하는 경우를 이르는데, 당장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부정대명사’의 경우 화자가 지시하려는 대상을 청자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그럼으로써 화자는 굳이 정확한 명칭 대신 모호한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거시기’에 ‘하다’가 결합한 ‘거시기하다<sup>57)</sup>’로도 쓰인다. 이러한 ‘거시기’의 세 가지 용법은 담화 표지로 발달하였을 때 그 기능을 유추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전체에 따라 ‘거시기’의 담화 기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3> 담화 표지 ‘거시기’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별기	
		교정	
		부연	
		열거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태도 관련 기능	주저하기	-	

<표 13>에 제시된 기능들은 모두 대명사 ‘거시기’의 ‘placeholder’로서의 용법에서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발언권 유지’와 ‘화제 전환’은 화자의 의식 속에서 생각나지 않는 정보 내용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생각나지 않는 지시 표현’ 및 ‘역행대용의 선행사’와 유사한 양상을 띤다. 또한 ‘주저하기’는 ‘부정대명사’의 용법이 모호한 지시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화자의 불확실한 태도 및 망설임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

에 대명사와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56) 이기갑(2018: 265)에서는 역행대용의 선행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거시기/뭐시기’ 이외에도 의문대명사인 ‘어디’, ‘누구’, ‘언제’, ‘뭐’를 들었다.

57) 전남 지방에서는 ‘거식허다/머식허다’나 ‘거석허다/머석허다’로도 쓰이는데, 이는 ‘거시기’와 ‘머시기’의 보수적인 형태가 반영된 것이다.

먼저 ‘발언권 유지’에 대한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시간 별기를 제외한 ‘교정’, ‘부연’, ‘열거’의 예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기능 또한 화자가 뒤에 이어질 말의 내용을 생각해 내기 위하여 발화를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시간 별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교정’, ‘부연’, ‘열거’는 서남 방언의 ‘거시기’의 담화 기능을 고찰한 이기갑(2018)에서는 ‘고쳐 말하기’, ‘부연’, ‘열거’로 제시된바, 이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 (12) ㄱ. 일:손 저:근 사람드리 그르케 저 파:중 거시기 직파를 마:니 해:요. (일손 적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 파:중 거시기 직파를 많이 해:요.) 《보성: 202~203》
- ㄴ. 콩 당과따가 골로 싹:싹 칼 거시 주레다가 불라. (콩 담갔다가 그것으로 싹싹 칼 거시기 줄에다가 발라.) 《영광: 160~161》
- ㄷ. 요, 모게 가서 거시기, 갑쌍서니 이씨가꼬 고, 수술허고. (이, 목에 거시기, 갑상선이 있어 가지고 그 수술하고.) 《영암: 126~127》
- ㄹ. 더 마:니 잡쑤 낭반들 거시기 두:리고, (더 많이 잡쑤 분들 거시기 돌이고) 《2013보고서-영암: 143》
- ㅁ. #58) 고추아고 (고추하고)  
@59) 고추 하시고 (고추 하시고)  
# 응, 찌절 머시기 호:박 (응, 저것 뭐 호박.) 《영암: 396~397》
- ㅂ. 그러무 인야 막 뽕 가:지를 쳐다가 인자 상:구 그스 굴:근 가지만 뜯내고 그냥 바로 채파네다가 인자 언:저 주머 그냥 거그야 우예 기:땡김성 무꼬. (그러면 이제 막 뽕 가지를 쳐다가 이제 사뭇 거시기 굵은 가지만 뜯어 내고 그냥 바로 설에다가 이제 엇어 주면 그냥 거기에 위에 기어다니면서 먹고.) 《광양: 320~321》

(12ㄱ)와 (12ㄴ)은 교정에 관한 예로, (12ㄱ)은 ‘파:중→직파’, (12ㄴ)은 ‘칼→줄’로 발화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12ㄷ)과 (12ㄹ)은 부연에 관한 예문으로, 화자가 수술을 받은 부위가 ‘목→갑상선’으로, ‘나이 먹은 사람의 수→두 명’으로 ‘거시기’를 경계로 선행하는 대상을 후행 발화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을 띠는 구

58) ‘#’은 전사 자료에서 제보자를 나타내는 약호로, 예문으로 제시한 제보자가 두 명일 경우, 주요 제보자는 ‘#1’, 보조 제보자는 ‘#2’로 표기하였다.

59) ‘@’은 전사 자료에서 조사자를 나타내는 약호로, 예문으로 제시한 조사자가 두 명일 경우, 주요 조사자는 ‘@1’, 보조 조사자는 ‘@2’로 표기하였다.

문에 실현된 ‘거시기’는 선행 정보를 즉각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보다 적절한 표현을 찾는 과정에 해당한다. 한편 (12口)과 (12ㄴ)은 열거에 관한 예이다. (12口)에서는 채소류에 속하는 고추와 호박을 연속적으로 발화하는 데에, (12ㄴ)에서는 누에를 치는 과정을 절차에 따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를 나열하는 데에 ‘거시기’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열거의 기능은 같은 범주에 있는 명사에서 어떠한 일의 절차를 나타내는 절까지 그 대상이 다양하다.

다음으로 화제 전환과 관련한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앞서 다루었던 ‘발언권 유지’ 기능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발언권 유지’가 화제와 관련된 정보를 회상할 시간을 버는 기능이라면, ‘화제 전환’은 이에 더 나아가 기존의 화제와는 다른 이야기의 내용을 지시하기 위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기갑(2018: 240)에서 ‘거시기’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담당한다고 언급한 사실과 부합한다. 이에 대한 예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13) 머:술 빌려오지를 마:랑거슨 그렇거는 모:르건는데 거시기 연장 가통거술 나무꺼시 이녁찌베가 이쏘 안? 바끄럭 까통거시나 머 연장이나 이쓰머는 (뭘 빌려 오지를 말라는 것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거시기 연장 같은 것은 남의 것이 자기 집에 있잖소? 밥그릇 같은 것이나 뭐 연장이나 있으면은) 《2013보고서-보성: 140》

(13)에 실현된 ‘거시기’에 선행하는 이야기는 남에게 어떠한 물건을 빌려오면 안 된다는 금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후행하는 발화는 자기 집에 있는 남의 물건에 관련한 이야기로, 선행하는 이야기의 내용과 큰 연관성은 없다.

마지막으로 화자의 주저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저하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자의 불확실한 태도나 망설임을 반영하는 표지에 해당한다. 예컨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사실성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언급하려는 상황이 부정적일 때에 사용한다. 이때의 ‘거시기’는 그러한 내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마음을 가다듬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4) ㄱ. 그래가지고 다시 인자 워낙 인자 사장이 야물고 서울대학교 먼::60) 거 거시기 광:부광가 머잉가 나와써요. (그래 가지고 다시 이제 워낙 이제 사장이 야물고

60) 전사 자료에서는 “::”을 인상적 장음을 나타내는 부호로 사용하였다.

서울대학교 무슨 거 거시기 광부과인가 뭐인가 나왔어요.) 《보성: 408~409》  
 나. 음: 우리동네도 우리 나: 친정동네 거시기 절 아지미라고 그냥바니 쟤:보 이쨌  
 요. (음. 우리 동네도 우리 나 친정 동네 거시기 저 아주머니라고 그분이 언청  
 이 있어요.) 《2013보고서-영암: 166》

(14ㄱ)에서는 화자가 정확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 이를 얼버무리고 있다. 이는 ‘광부평가 머인가 나와쨌요(광부과인가 뭐인가 나왔어요)’와 같이 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 (14나)의 경우 ‘쟤:보’(언청이)와 같이 화자에게 부정적인 대상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분으로, ‘거시기’를 사용함으로써 후행할 말의 내용 때문에 말하기를 잠시 주저하고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전남 방언의 담화 표지 ‘거시기’는 중앙어 및 타 방언의 ‘거시기’와 기능상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중앙어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인 이봉선(1998)과 박근영(2000)에서는 각각 ‘양보하기, 난처한 입장 피하기, 시간 벌기, 관심 끌기, 직접 언급 피하기’와 ‘시간 벌기, 머뭇거림’을 들었다. 또한 전북 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김영철(2004)에서는 ‘주의 집중, 간접 표현, 시간 벌기, 망설임 표시’를 언급하였는데, 이들 기능은 모두 ‘주의 집중’, ‘시간 벌기’와 ‘주저하기’로 정리된다<sup>61)</sup>.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남 방언의 ‘거시기’가 지닌 담화 기능은 선행 연구에 제시된 것보다 다양한데, 이는 ‘거시기’가 표준어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전남 방언의 담화 표지인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 통념을 방증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 2.1.2. ‘머/땃(무엇)’

‘무엇’은 본래 특정되지 않은 대상을 지시하는 부정대명사이자 의문대명사로, 전남 방언에서는 중앙어의 축약형 ‘땃’에 대응되는 ‘머’나 ‘땃’ 이외에도 ‘무/땃’, ‘메’ 등의 이 형태를 지닌다. ‘머/땃’의 지역별 변이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1) 이 가운데 ‘직접 언급 피하기(이봉선, 1998)’와 ‘간접 표현(김영철, 2004)’은 대명사로서의 용법을 예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담화 기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양보하기, 난처한 입장 피하기(이봉선, 1998)’는 어떠한 사실 및 상황에 대한 화자의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망설임 표시(김영철, 2004)’ 및 본 연구의 ‘주저하기’와 중첩된다.



<표 14> 담화 표지 ‘머/멋(무엇)’의 지역별 변이형

중앙어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무엇 (뒤)	머/멋 모 머이	머	머/멋	머/멋 무/뭇	머/멋 머이	머/멋 무/뭇 머이	머/멋 메 무어

‘머/멋’의 담화 기능은 본래 대명사라는 문법적 지위 안에서 부정대명사와 의문대명사의 두 가지 범주에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에서 추정할 수 있다. 부정대명사의 범주에서는 생각나지 않는 후행 발화 내용을 떠올리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에 관한 기능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의문대명사의 범주에서는 부정대명사에서 기원한 담화 기능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선 견해를 따라 본 연구에서 파악한 담화 표지 ‘머/멋’의 기능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표 15> 담화 표지 ‘머/멋(무엇)’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채택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교정	
		부연	
		열거	
	완곡한 발화 표현	-	‘부정적 태도’ 기능에서 파생되었음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화제 종결	-	‘완곡한 발화 표현’ 기능과 함께 나타남
태도 관련 기능	주저하기	-	
	부정적 태도	반박	주로 수사의문문의 형식에서 실현됨

<표 15>에서 제시된 ‘머/멋’의 담화 기능 가운데 ‘발언권 유지’, ‘화제 전환’, ‘주저하



기'의 경우 이 항의 제1목에서 언급한 '거시기'의 담화 기능과 같다. 그 외의 기능인 '완곡한 발화 표현', '화제 종결', 그리고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대한 반박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태도'는 의문대명사에서 발달한 담화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정적 태도'의 경우 본래 어떠한 사실이나 정보에 대한 의문의 뜻에서 화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어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대한 의심의 태도를 드러내는 기능으로 확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완곡한 발화 표현' 또한 발화에서 언급하는 대상을 화자의 관점에 따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과 일부 유사한 양상을 띤다. '머/뎃'이 이 기능으로 실현될 때에는 '화제 종결' 기능이 부가적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한 기능들을 자료에 나타난 예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발화 책략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겠다. 그중 '발언권 유지'는 화자의 의식 속에서 생각나지 않는 정보의 내용을 떠올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발화를 지연시키는 기능이다. 곧 상대방이 자신의 발언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발화가 유지될 것임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기능이기도 하다. '머/뎃'의 경우 '시간 벌기'를 비롯하여 '교정', '부연', '열거'의 예가 모두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교정', '부연', '열거'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이 그 예이다.

- (15) ㄱ. 거그 교:육꾸청애가서 교:감 저 뎃 교:육짱도 허고 그런 양바니 이씨씨요. (거기 육육청애 가서 교감 저 뎃 육육장도 하고 그런 양반이 있었어요.)

《보성: 16~17》

- ㄴ. 인자 울 오빠들 싹:: 구니네 재피가고 인자 도피한다고 인자 어디로 더::그 서, 섬나라에 그런 디 가서 머 강원도 우리 세째 오빠는 강원도 뎃 무코당가 거그 가가꼬 또 오징에뻔 딸 타로 따라댕기다가. (이제 우리 오빠들 싹 군인에 잡혀가지고 이제, 도피한다고 이제 어디로 저기 서, 섬나라에 그런 데 가서 뭐 강원도 우리 셋째 오빠는 강원도 뭐 목호인지 거기 가가지고 또 오징어배 타러 따라다니다가,)

《광양: 30~31》

- ㄷ. 주로 인자 요즈메는 거 생선 뎃 지:사 안 지넌 생선 이썸 안? (주로 이제 요즈메는 그 생선 뎃 제사 안 지내는 생선 있잖소?) 《2012보고서-신안: 47》
- ㄹ. 인자 주로 우리가 멍는 거 멍는 나물도 드:레가 마:니 인는 거시 시장에도 나고 그러자나요? 미나리, 취, 뎃 개:미취, 뎃 또 뎃 숙:찌, 뎃:뿌쟁이 뎃 달래, 뎃 또 그러거시지요. 뎃 냉:이. (이제 주로 우리가 먹는 것 먹는 나물도 들에 많이 있는 것이 시장에도 나고 그러잖아요? 미나리, 취, 뎃 개미취, 뎃 숙지, 질

- 경이. 뭘 달래, 뭘 또 그런 것이지요, 뭘 냉이) 《곡성: 110~111》
- ㄱ. 뚜들고 기양 다라머꼬 먼: 돈 열:마를 네라고 막 허고, 먼 소 잡자 돼:지 잡자  
 허고 다라머꼬 기양 뚜들고 그러고. (뚜들기고 그냥 다뤄 먹고 무슨 돈 얼마를  
 내라고 막 하고, 뭘 소 잡자 돼지 잡자 하고 다뤄 먹고 그냥 뚜들기고 그러  
 고.) 《영광: 70~71》

(15ㄱ)은 교정에 관한 예로, 이 예문에서는 ‘머’를 경계로 ‘교감→교육장’으로 발화가 수정되었다. (15ㄴ, ㄷ)은 부연에 관한 예이다. (15ㄴ)에서는 화자가 강원도의 하위 지역인 ‘목호’를 언급하고 있다. (15ㄷ)에서는 ‘생선→제사 안 지내는 생선’으로 선행하는 대상을 후행 발화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1ㄴ, ㄱ)은 열거에 관한 예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화자가 생각하는 여러 가능성을 제시(이한규, 1999, 정윤희, 2005)’하는 기능과 부합한다. (15ㄷ)에서는 나물의 종류인 미나리, 취, 개미취, 숙지, 질경이, 달래, 냉이를 나열하는 데에 ‘뭘’이 여러 차례 실현되었다. (15ㄱ)에서는 ‘머구때’, ‘취나물’ 등과 같은 나물 종류에 대한 것을 나열하고 있다. (15ㄷ)에서는 전통 혼례식에서 ‘신랑 다루기’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다.

다음으로 ‘완곡한 발화 표현’ 기능은 중앙어에 대응되는 형태인 ‘뭘’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부드럽게 하거나 에두름(김명희, 2005)’ 혹은 ‘겸손(이한규, 1999, 이효진, 2005)’의 기능과 연관된다. 이 기능은 ‘평가절하의 태도(김선희, 1995, 구종남, 2000, 송인성, 2013)’에서 비롯되는데, 발화에 제시된 대상이 화자의 관점에서 대수로운 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발화를 다소 완곡하게 한다<sup>62)</sup>. 이러한 쓰임은 화자의 부정적 태도가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서 화자 자신의 발화에 언급된 대상으로까지 확장되어 그 중요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발화 내에 ‘머/멋’이 이 기능으로 실현되었을 때에는 ‘화제 종결’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데, 이에 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16) ㄱ. 애 앤:나래는 큰니린대 지그른 먼 야:무일 업써요. (예, 옛날에는 큰 일인데 지  
 금은 뭘 아무 일 없어요.) 《보성: 154~155》
- ㄴ. 거 나랑만 나랑만 빼:가꼐 가을한닥 하면 나랑만 빼:가꼬 지베 올 따르미제  
 뭘. (거 벼만 벼만 빼 가고 가을한다고 하면 벼만 빼 가지고 집에 올 따름이

62) 이기갑(2018)에서도 이에 대하여 ‘별것이 아님’이라는 화용적 의미가 화자의 발화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지 뵤.)

《영암: 198~199》

- ㄷ. 전: 부치고 테:지 잡고 머 내:나 그렇 거이지요 뵤. (전 부치고 돼지 잡고 뵤  
 내나 그런 것이지요 뵤.)

《광양: 64~65》

(16ㄱ)은 ‘머/뵤’이 발화 중간에 나타난 예로, 현재 모 심는 일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표현하는 데에 ‘뵤’이 사용되었다. (16ㄷ, ㄷ)은 발화의 끝 부분에 각각 ‘뵤’과 ‘뵤’이 실현된 예에 해당한다. (16ㄴ)에서는 현재는 기계로 벼를 수확하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는 없음을 말하고 있다. (16ㄷ)에서는 화자가 혼인식이 있을 때마다 늘 전과 돼지고기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1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자가 자신의 발화 내에서 언급하는 대상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그 대상에 대하여 더 할 말이 없다는 뜻을 함께 내비치고 있다. 이는 ‘화제 관련 기능’ 가운데 ‘화제 종결’ 기능과 연관된다. 이 기능은 발화의 중간에서도 실현되기는 하지만 (16ㄴ, ㄷ)과 같이 ‘머/뵤’이 발화의 끝에 실현될 때 더욱 명확해진다.

한편 ‘화제 전환’ 기능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바가 없으나, 이기갑(2018: 260)에서 ‘머/뵤’이 화제부에서도 실현된다고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화제를 전환하는 기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이 기능은 발화의 공백을 메우는 ‘발언권 유지’와 유사한 양상을 띠나, ‘화제 전환’은 선행 화제와 다른 발화 내용을 떠올린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한 예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 (17) 요고 인자 최빠리 업씨면 씨가 안드러가요. 능청능청허니까. 그렇게 생계씨요. 갑 파요. 뵤 속따메 엔:날 마리 이씨요. 머 베틀 연장 챙기다가 풀 베틀고 달아나뵤다 고 엔나레 하도 (씨가 잘 들어가지, 이것 이제 쳇발이 없으면 씨가 안 들어가요. 능청능청거리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힘들어요. 뵤 속담에 옛날 말이 있어요. 뵤 베틀 연장 챙기다가 팔 베틀 버리고 달아나 버린다고.)

《곡성: 48~49》

(17)에서는 베틀에 딸린 쳇발에 관한 설명에서 베틀을 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든 일이라는 화자의 평가가 담긴 이야기로 화제가 전이되었다. 이 예문에서는 베틀 짜는 일이 힘들다는 사실을 속담을 예로 들어 언급하는 데에 ‘머’가 실현되었다.

마지막으로 ‘태도 관련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기능에서는 ‘주저하기’와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대한 반박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태도’에 관한 것으로 세분된다. ‘주저하기’의 경우 ‘머/땀’이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대상을 지시하는 부정대명사라는 특징에서 비롯된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비단정적 태도(구종남, 2000, 김명희, 2005, 남길임·차지현, 2010, 송인성, 2013)’와 연관된다. 또한 ‘부정적 태도’는 본래 어떠한 사실이나 정보에 대한 의문대명사의 뜻에서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대한 의심의 태도에서 확장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앞선 두 기능은 모두 기원형의 의미가 약화되어 담화 표지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화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18) ㄱ. 그때 머 구켤가 뉼 구케으워닝가 서울써 해쓸 거이요. (그때 뭐 국회인가 뭐 국회의원인가 서울에서 했을 거예요.) 《광양: 40~41》
- ㄴ. 근데 뉼 그 듣는 말로 헤서는 맥주 공짜에로 간담말도이꼬 그란테 모르거썸떠다. (그런데 뉼 그 듣는 말로 헤서는 맥주 공장으로 간단 말도 있고 그런데 모르겠습디다.) 《진도: 64~65》
- ㄷ. 사:람드리 또 뉼 만난 사:람마다 엄:마주고 산냐고 엄:마주고 산냐고 그레썸트만. 아니 줄만치 주제 뉼 엄:마나 준다우 네가, 다 가치 가치제. 똑 가터야라우, 나는 잘 모:쌍께라우. (사람들이 또 무슨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 주고 샀느냐고 얼마 주고 샀느냐고 그레 쌍터구뉼. 아니 줄 만큼 주지 뉼 얼마나 준대요 내가?, 다 같이 같지. 똑 같아요. 나는 잘 못 사니까요.) 《2012보고서-신안: 100》
- ㄹ. @ 그러면 머 아래에서 무를 퍼가지고 우:로 올리거나 이렇 거슨. (그러면 뭐 아래에서 물을 퍼가지고 위로 올리거나 이런 것은.)  
# 엄:찌요. 뉼 기계가 이쏘? 양수기가 이쏘? (없지요. 뭐 기계가 있소? 양수기가 있소?) 《진도: 42~43》

(18ㄱ, ㄴ)은 ‘주저하기’와 관련된 예이다. 두 예문에서는 화자가 기억하는 바에 대한 사실성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머’가 실현된 뒤에도 머뭇거리는 듯한 발화가 이어지고 있다. (18ㄷ, ㄹ)의 경우는 ‘부정적 태도’에 관한 예로,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반박함으로써 화자의 신념에 반하는 상대방의 믿음이나 생각을 부정한다. 특히 두 예문에서는 ‘머’가 수사의문문 형식에서 실현되었는데, 수사의문문이 상대방의 생각을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내어 부정한다는 점에서 남길임·차지현(2010)과 이기갑(2010)의 견해

와 일치한다.

### 2.1.3. ‘어디’

담화 표지 ‘어디’는 본래 불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부정대명사이자 의문대명사이다. 또한 ‘어디’는 감탄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벼르거나 다짐할 때 쓰는 말’, ‘되물어 강조할 때 쓰는 말’, ‘남의 주의를 끌 때 쓰는 말’,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여 딱한 사정이 있는 형편을 강조할 때 쓰는 말’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후술할 ‘어디’의 담화 기능과 일부 유사하다.

전남 방언에서는 ‘어디’가 표준어형과 동일한 형태로 실현된다. 이외에 처격 조사 ‘-에’의 전남 방언형 ‘-에가’와 결합하여 축약된 ‘어디가’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 형태는 주로 부정적인 태도와 연관된 발화에서 흔히 나타난다. 각 지역어에 따른 변이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6> 담화 표지 ‘어디’의 지역별 변이형

중앙어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어디	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	어디(가)

‘어디’가 담화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같은 유형에 속하는 ‘거시기’와 ‘머/멧’보다 적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의 의미상 포괄할 수 있는 대상이 장소 및 상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전제에 따라 전남 방언에 나타나는 담화 표지 ‘어디’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7> 담화 표지 ‘어디’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열거	

	발화 내용 강조	-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태도 관련 기능	부정적 태도	반박	주로 수사의문문의 형식에서 실현됨

먼저 ‘발언권 유지’에서는 ‘시간 벌기’ 및 ‘열거’에 대한 예가 나타났다. 이 기능에서는 대체로 장음으로 실현된다. 그중 ‘열거’의 경우 같은 의미 범주에 속하는 단어를 제시하는 용법에서는 주로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나, 절을 나열하는 예문에서는 그에서 벗어난 특징을 보인다. 이는 ‘시간 벌기’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예는 아래와 같다.

- (19) ㄱ. 나 어:디 인자 그러자 인자인자 우리 여 너메 똥네 나허고 가치 시지본 사립 도망을 간는다. (나 어디 이제 그러자 이제 이제 우리 이 너메 동네 나하고 같이 시집온 사람이 도망을 갔는데,) 《광양: 70~71》
- ㄴ. 그러믄 또 어:디 도리께질 하면 뇌인다고 뇌이며는 도리께로 썩::리 근 상:모시미 이러케 까라조요. (그것을 또 어디 도리께질하면 놓인다고 놓이면은 도리께로 저리 그 상머슴이 이렇게 깔아 줘요.) 《영암: 218~219》
- ㄷ. 그래가지곤 지그른 인자 막 사:방 천지 대한민국 다 기냥 막 강주도 오고 어:디 부산 머 대구 막 어:디 다 인자 출짱을 땡인탁 험띠다마는 (그래 가지고는 지금은 이제 막 사방 천지 대한민국 다 그냥 막 광주도 오고 어디 부산 뭐 대구 막 어디 다 이제 출장을 다닌다고 합디다마는) 《보성: 112~113》
- ㄹ. 야, 모시도 오:꼬 어디 멩기베도 우:꼬. (예, 모시도 없고 어디 명주 베도 없고.) 《2012보고서-신안: 111》
- ㄹ. 그거시 야기 작따든지 어디 바람이 드러가따든지 방이 덜 따신다든지 허믄 쫓깨:, (그것이 약이 작다든지, 어디 바람이 들어갔다든지, 방이 덜 따뜻하다든지 하면 조금.) 《곡성: 30~31》

(19ㄱ, ㄴ)은 ‘시간 벌기’의 예로, ‘어:디’ 뒤에 반복되어 실현되는 ‘인자’와 함께 나타나 화자는 뒤따르는 말을 떠올리기 위하여 자신의 발화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19ㄷ~ㄹ)은 ‘열거’의 예로, 단어를 나열하는 (19ㄷ)에서는 한국의 지명인 ‘광주, 부

산, 대구’를 나열하는 데에 ‘어디’가 사용되었다. (19ㄷ, ㄱ)에서는 비슷한 형식의 절을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예문에서는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는 절을 전달하여 발화하고 있다. 이한규(2008: 86~87)에서 장소는 곧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확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건/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비추어 보면 (19ㄷ)에서는 ‘어디’의 어휘적 의미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예문은 그에서 확장되어 쓰인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발화 내용 강조’는 화자의 다짐이나 상황을 발화 내에서 강화하는 기능으로, 발화 내용 및 그에 담긴 태도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려는 화자의 의도에서 비롯된다. 두 기능에 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20) ㄱ. 그래 노문 그냥 자는 디 와서 그냥 뛰디리고, 악 아글 씨고 그냥, 어디 시방 그람 하나도 안 사꺼이요. (그래 놓으면 그냥 자는 데 와서 그냥 두들기고, 악 악을 쓰고 그냥, 어디 시방 그러면 하나도 안 살겨요.) 《광양: 368~369》
- ㄴ. 일 해:무글 팔짜다. 지비서 어디 나갈라게도 나갈 수도 업:꼬 쌀, 서 어머니 서 쌀, 서이 이쓰른 쌀 서: 데만 주씨요. (일 해 먹을 팔짜다. 집에서 어디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도 없고, 쌀, 어머니 쌀, 서이 있으면 쌀 석 되만 주십시오.) 《영암: 108~109》

(20ㄱ)에서는 화자가 당시의 고된 시집살이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시어머니에게 버르는 말의 내용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ㄴ)에서는 화자가 해방 이후에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일만 해야 했던 당시의 상황을 강조하는 데에 ‘어디’가 사용되었다. 앞선 설명과 관련하여 (20)에 제시된 예문은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된 감탄사 ‘어디’의 의미와 상응한다. (20ㄱ)에서는 ‘벼르거나 다짐할 때 쓰는 말’의 의미와, (20ㄴ)에서는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여 딱한 사정이 있는 형편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의 뜻과 같다. 특히 (20ㄱ)에서는 이한규(2008)에서 제시한 ‘벼름’의 기능과 연관된다. 그러나 이는 사전적 의미 및 발화의 특정한 맥락에 의존한 해석으로 판단되는바, 오히려 대상에 대한 비우호적인 감정이나 그에 대한 다짐 및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는 기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화제와 관련한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아래 (21)에서는 고들빼기 씨앗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어디’가 실현된 제보자의 발화 이후 조사자와 그 처가의



거주지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되고 있다.

- (21) #1 우리는 지방 꼬들빼기 씨를, 꼬들빼기를 좀 가라볼라고 지금 꼬들빼기 씨를 상  
 땡이 바다 나꺼든요. 꼬들빼기 씨 어디 갈 띠 이씨면 쫘 디리까요? (우리는 시  
 방 고들빼기 씨를, 고들빼기를 좀 갈아보려고 지금 고들빼기 씨를 상당히 받아  
 냈거든요? 고들빼기 씨 어디 갈 데 있으면 좀 드릴까요?)
- @ 아니 지금 (웃음) (아니 지금)
- #1 (웃음)
- @ 먼, 아파트 사는데 지금 땅 한평도 엄:는데. (웃음) (무슨, 아파트 사는데 지금  
 땅 한 평도 없는데.)
- #1 (웃음) 어디 어디 아파트 사세요? (어디 어디, 아파트 사세요?)
- @ 예. 아파트 살면 머 땅이 업쫘. (예 아파트 살면 뭘 땅이 없쫘)
- #2 시골에 처가찌비 계신다든지 허며는 인자 그런디서는 (시골에 처가집이 계신다  
 든지 하면은 이제 그런 데서는)
- #1 처가찌비 어디여? (처가집이 어디요?)
- @ 처가집도 다 광주 아파트인데요. 우린 시고리 업:습니다. 예 다른 집들은 다 어디  
 (처가집도 다 광주 아파트인데요. 우린 시골이 없습니다. 예 다른 집들은 다 어  
 디)
- 《곡성: 126~127》

마지막으로 화자의 부정적 태도에 관한 예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경우 전남 방언  
 에서는 주로 ‘어디가’형으로 실현된다. 이 기능으로 실현되는 ‘어디’ 또한 ‘뭘’와 동일하  
 게 수사의문문 형식으로 실현되는데,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  
 냄으로써 발화에 전제된 상대방의 생각이나 믿음을 부정한다. 다음 (22)는 모두 조사자  
 의 발화에 반박하는 예에 해당하는데, (22ㄱ)에서는 높이 수확량의 절반보다 적은 양을  
 샀으므로 지급한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22ㄴ)에서는 정신을 차려서 베를 짜기 때문에 즐  
 릴 틈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22) ㄱ. @ 보:통 절반씩은 자기가 간나요? (보통 절반씩은 자기가 가지나요?)  
 # 절반은 어디가 절반 준다우? 쫘:끔만 주제. (절반은 어디 절반 준다요? 조금  
 만 주지.) 《2012보고서-신안: 103》
- ㄴ. @ 그런데 그 즐리고 피곤하고 그러면 (그런데 그 즐리고 피곤하고 그러면)  
 # 그러든 아네. 베에 정신 체려서 쫘:디 어디가 즐린다우? (그러지는 않아. 베



## 2.2. 관형사 기원형

관형사에서 기원한 담화 표지는 ‘먼(무슨)’과 ‘이, 그, 저’가 있다. ‘먼(무슨)’은 불특정한 대상을 수식하는 부정관형사이자 의문관형사의 특징을 지니는바, 담화 표지로서의 통시적 발달 과정은 제1항의 머리말에서 언급한 김명희(2005: 53)의 논의와 같다. ‘이, 그, 저’의 경우 ‘먼(무슨)’과는 달리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며, 그 지시적 의미는 거리에 따라 세 형태에 차이를 보이는 지시관형사의 특징만을 지닌다. 박근영(2006)에서는 ‘이, 그, 저’의 의미 차질을 [+지시], [+한정], [+대용]으로 설정하여 지시대명사에서 인칭대명사, 지시관형사, 담화 표지로 그 기능이 분화되는 통시적인 발달 과정을 겪었다고 언급하였다<sup>63)</sup>.

그러나 ‘먼(무슨)’과 ‘이, 그, 저’가 담화 표지로 발달하였을 때, 위에서 언급한 의미를 모두 상실하고 담화를 연결하는 언어 장치로 쓰인다. 그러나 ‘먼(무슨)’과 ‘이, 그, 저’는 서로 다른 문법적 특징을 지니므로, 담화 기능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 그, 저’의 경우 화자와 지시 대상의 거리에 따라 교체된다는 점에서 세 형태 간에도 담화 기능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담화 표지 ‘먼(무슨)’과 ‘이, 그, 저’의 특징 및 담화 기능을 고찰하겠다.

### 2.2.1. ‘먼(무슨)’

‘무슨’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무엇인지 모르는 일이나 대상, 물건 따위를 물을 때 쓰는 말’ 혹은 ‘사물을 특별히 정하여 지목하지 않고 이를 때 쓰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전남 방언에서는 주로 축약형인 ‘먼’으로 실현되며, 이외에도 ‘문’이나 ‘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남의 각 지역어에 따른 담화 표지 ‘먼’의 변이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3) 박근영(2006)에서 인칭대명사는 [+지시], [+한정], [+대용], 지시관형사는 [+지시], [+한정], [-대용], 담화 표지는 [-지시], [-한정], [-대용]으로, 특히 음성적인 면에서 담화 표지의 경우는 강세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표 18> 담화 표지 ‘먼(무슨)’의 지역별 변이형

중앙어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무슨	먼	먼	먼 문	먼 똥	먼 문	먼	먼 똥

‘무슨’이 확실하지 않은 대상을 지칭하는 부정사 및 의문사라는 점에서 그 담화 기능은 ‘머/땃’과 유사하다<sup>64</sup>). 그러나 ‘발언권 유지’나 ‘화제 전환’ 이외의 다른 기능에서는 명사나 명사구 앞에서만 실현된다는 통사적 제약을 지닌다는 점에서 ‘머/땃’과는 차이를 보인다<sup>65</sup>). 전사 자료에서 나타난 ‘먼’의 담화 기능을 본 연구의 기능 분석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9> 담화 표지 ‘먼(무슨)’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별기	
		교정	
		부연	
		열거	
	완곡한 발화 표현	-	‘부정적 태도’ 기능에서 파생되었으며, 명사나 명사구 앞에서만 실현됨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화제 종결	-	‘완곡한 발화 표현’ 기능과 함께 나타나며, 발화의 끝 부분에서 실현이 불가능함

64) 이는 선행 연구인 김명희(2006)와 송인성(2015), 김선영(201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발언권 유지’, ‘완곡한 발화 표현’, ‘부정적 태도’ 기능과 일치한다.

65) 이에 대해서는 이 목의 마지막에 언급하도록 하겠다.

태도 관련 기능	주저하기	-	
	부정적 태도	반박	주로 수사의문문의 형식으로 명사나 명사구 앞에서만 실현됨

먼저 ‘발화 책략 기능’ 가운데 ‘발언권 유지’ 기능은 <표 19>에 제시된 모든 하위 기능에 고루 실현되었다. 다음에 제시된 (23) 가운데 (23ㄱ, ㄴ)은 ‘시간 벌기’에 관한 예로, (23ㄱ)에서는 ‘인자, 저’와 (23ㄴ)에서는 ‘거시기’와 함께 ‘먼’ 뒤에 실현되어 화자가 생각나지 않는 정보 내용을 떠올릴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23ㄷ)은 ‘교정’에 관한 예로, 화자는 발화 내에 언급된 ‘과리’를 ‘과리똥’이라 고쳐 말하고 있다. (23ㄷ)에서는 가뭄이 들어 말라버린 땅을 마치 시멘트 바닥 같았다고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연’의 예에 해당한다. (23ㄱ, ㄴ)은 ‘열거’의 예로, (23ㄱ)에서는 한과의 범주에 속하는 여러 어휘 항목을, (23ㄴ)에서는 금기 생활과 관련된 같은 형식의 절을 나열하고 있다.

- (23) ㄱ. 베를 먼 인자 저 베 나라가꼬 한 노미 또 이리 네로움스러 자꾸 네루게 오게 함스러 올림서 또 거그다는 이르케 가며. (베를 무슨 이제 저 베 날아가지고 한 것이 또 이리 내려오면서 자꾸 내려오게 오게 하면서 올리면서 또 거그다는 이렇게 감아.)  
《2012보고서-신안: 27》
- ㄴ. 부산 오유꾼 병:원 인는디 거가 먼: 거시기 장:정 대:기소라 하등만. (부산 5 육군 병원 있는데 거기에 무슨 거시기 장정 대기소라 하더구먼.)  
《보성: 448~449》
- ㄷ. 그러니까 마라자른 수:십년 한 배겨년 되는 거슨 파리가 똥을 싸서 포리 먼 파리똥이 까카:마니 머라자른 뚜꾸까이 생게 부러써.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십년 한 백여 년 되는 것은 파리가 똥을 싸서, 파리 무슨 파리똥이 까맣게 말하자면 두껍게 생겨 버렸어.)  
《곡성: 202~203》
- ㄷ. 시방 땡:땡 가무라가꼬 시방 똥 똥: 세덴바당 땡이야 호::거니 그냥 (지금 땡땡 가물어가지고 지금 똥 무슨 시멘트처럼 하얗게 그냥)  
《2013보고서-광양: 357》
- ㄱ. 엘:로 시방보다 시방은 모다 안 장만허자나요? 그때는 산:자 박싼 먼 여시고 먼 강정이고 머시고 지미서 사:: 헤써 그거슬. (오히려 시방보다 시방은 모두 장만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산자, 박산 무슨 엇이고 무슨 강정이고 뭐고 집에서 다 했어, 그것슬.)  
《영광: 68~69》

ㄴ. 우렁 귀:무금 안데고 먼: 거 저른 머:시기항걸 계:자버 무근디도 양가고 (우렁  
 이 구워 먹으면 안 되고 무슨 그 저런 뭐 한 것 개 잡아 먹는 곳도 안 가고)

《2013보고서-영암: 169》

한편 ‘완곡한 발화 표현’의 경우, 발화의 끝 부분을 제외한 모든 위치에 실현된다.  
 이러한 특징은 ‘머/땃’이 발화의 끝 부분에도 나타난다는 점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화자의 판단에 따라 발화 내에 언급된 대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써 그에 대해 더  
 할 말이 없음을 나타낸다는 점은 ‘먼’ 또한 같다. 아래 (24)에서는 산이 많기 때문에 땃  
 감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화자의 입장에서 땃  
 감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더 언급할 것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다.

(24) ㄱ. 애 요런디는 사니 만:해농께 그르케 먼 나:무애 거 구애바뜰 안해요. (예, 이런  
 데는 산이 많아 놓으니까 그렇게 무슨 나무에 그 구애 받지는 않아요.)

《보성: 272~273》

다음으로 ‘화제 전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능은 ‘발언권 유지’에서 확장  
 된 쓰임으로, 기존에 진행 중이던 화제와 다른 이야기를 생각해 내는 기능이라 하였다.  
 다음 (25)에서 ‘먼:’에 선행하는 발화는 화자가 서른 세 살에 혼자서 농사일을 시작한  
 이후, 지금은 농사에 대한 모든 과정을 다 터득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에 화자가 혼자서  
 농사를 지어도 웬만한 남자들보다 일을 빨리 끝낸다는 이야기가 뒤따르고 있다. 이 예  
 문은 큰 범위의 화제 전환은 아니더라도, 작은 범위 내에서 화제 전환이 이루어진 예  
 라 하겠다.

(25) 그런디다가 인자 딱:: 서른시살머거서 한자 테야버링게 얼::마나 이:를 허거쏘? 농  
 사 지꼬 밥 빨고 헨디. 얼::마나 이:를 허고 사라제라우. 이:를 그러코 상게 아조  
 이:리라 형거슨 기양 네 누나네 쪽 드러가꼬 나 아무리 지금 아퍼도 거름만 거르  
 먼 농사 빨거또 지꺼썬. 다:: \*\*66) 농사 방서글 다 아라버링게 농사 진는 거슨 일:  
 도 아니여. 먼: 한자 농사 지꼬 사라썬도 남자들 인는 사람보다 네가 농사도 잘

66) 전사 자료에서는 음성 파일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나 전사한 표현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 쓰는 약호이다. 이 약호의 수는 음절 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꼬이~ 일:도 더 빨리 끈네고 가실 일도. 그레썸. (그런 데다가 이제 딱 설흔 세 살 먹어서 혼자 되어 버리니까 얼마나 일을 하겠소? 농사 짓고 밭 부치고 하는데. 얼마나 일을 하고 살았지요. 일을 그렇게 사니까 아주 일이라 하는 것은 그냥 내 눈 안에 썩 들어가지고 나 아무리 지금 아파도 걸음만 걸으면 농사 어떤 것도 짓겠어. 다 \*\* 농사 방식을 다 알아 버리니까 농사 짓는 것은 일도 아니야. 무슨 혼자 농사 짓고 살았어도 남자들 있는 사람보다 내가 농사도 잘 짓고 일도 더 빨리 끝내고 가을 일도. 그랬어.)  
 《영광: 78~79》

마지막으로 ‘태도 관련 기능’의 경우 어떠한 사실에 관한 화자의 기억이 확실하지 않거나 대답하기 곤란한 경우를 나타내는 ‘주저하기’와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반박하는 ‘부정적 태도’ 기능이 나타난다. 이들 하위 기능에 관한 예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26) ㄱ. 그 너 하나씨 그런디 저 저녁에 후루지룽가 먼 낙쭈주 머:드로 간느디 (그 너 할아버지 그런테 저 저녁에 후리질인지 무슨 낚시질 뭐 하러 갔는데)

《2013보고서-신안: 334》

나. @ 길쌈할 때는 힘드니까 노래도 하고 그럼니까? (길쌈할 때는 힘드니까 노래도 하고 그럼니까?)

# 머 지그른 저 텔레비에서 보든 노래도 하지마는 엔:나레는 먼: 노래가 이따요? (뭐 지금은 저 텔레비전에서 보면 노래도 하지마는, 옛날에는 무슨 노래가 있답니까?)  
 《곡성: 52~53》

ㄷ. #1 운동바우라 하든가? (운동바위라고 하던가?)

#2 그레, 운동바우제 먼: 문동바우여. (그레, 운동바위지 무슨 문동바위야?)

《영암: 22~23》

(26ㄱ)은 ‘주저하기’의 예이다. 이 예문에서는 할아버지가 저녁에 한 일이 후리질이었는지 낚시질이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화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38ㄷ, ㄴ)은 ‘부정적 태도’의 예로, 두 예문 모두 상대방의 발화에 전제된 생각이나 믿음을 부정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슨’은 담화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머/멋’과 같으나, 이기갑(2018: 258~259)에서는 ‘발언권 유지’ 이외의 기능에서는 모두 실현상에 제약을 지니며 쓰이기 때문에 ‘먼’을 담화 표지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우 화자나 청자에게 거리가 먼 대상을 지칭할 때에 된소리로 실현<sup>67)</sup>된다고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렇듯 전남 방언에서는 대체로 ‘이~여~요’, ‘그~거~고’, ‘저~찌~조’의 이형태를 지닌다.

<표 20> 담화 표지 ‘이/요, 그/고, 저/조’의 지역별 변이형

증양어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이	이/여/요	이/요	이/여/요	이/여/요	이/요	이/요	이/여/요
그	그/거	그/거	그/거/게	그/거/고	그/거/고	그/거/고	그/거
저	저/찌	저/찌	저/찌/조	저/찌/조	저/찌/조	저/찌	저/찌

장경희(1980)에서는 ‘이, 그, 저’의 의미를 실제적 지시, 기호적 지시, 상념적 지시로 나누어 설명하였다<sup>68)</sup>. 이 연구에 따르면 실제적 지시의 개념으로 ‘이’는 화자와 가까우며 청자가 알고 있는 대상, ‘그’는 청자와 가까우며 화자와 청자 모두 알고 있는 대상<sup>69)</sup>, ‘저’는 화자·청자와 거리가 멀고 화자가 알고 있는 대상을 지시한다. 또한 가까이 있는 대상은 실제적 지시가 우선적이며, 대상이 담화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기호적 지시나 상념적 지시로 나아간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이, 그, 저’가 담화 표지로 발달하게 되면 지시적 의미는 화자의 의식 속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나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말하고자 할 정보의 시·공간적 혹은 담화상의 거리감만을 나타내는 정도로 약화된다. 이에 따라 담화 표지 ‘이, 그, 저’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달리 실현되는데<sup>70)</sup>, 그 담화 기능은 다음과 같다.

67) 이는 이기갑(2009a: 120) 소리와 의미 사이의 도상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68) 실제적 지시는 담화 현장 안에 실재하는 사물을 거리에 따라 지시하는 것이며, 기호적 지시는 담화 내에서 언어 기호에 언급된 대상을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념적 지시는 장경희(2002: 155)에 따르면 선행 발화에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현 담화가 일어난 시점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거나 혹은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알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라고 하였다. 이는 화자나 청자에게 아무 언급 없이도 늘 의식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69) 이기갑(2015: 46)에서는 지시 대상이 발화 현장에 없어 화자가 직접 볼 수 없어도 그 존재를 청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을 때에 쓰인다고 하여, 장경희(1980)의 ‘그’에 대한 언급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70) 이는 이정애(1998: 113~115)에서 언급한 ‘단순한 사고작용의 표출’을 그 기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순한 사고 작용의 표출은 화자가 ‘이, 그, 저’를 지시적 의미가 아닌, 하고자 할 말을 생각해 내려고 하는 사고 작용을 표출하려는 의도와 직결되어 있다.

<표 21> 담화 표지 ‘이/요, 그/고, 저/조’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전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그’와 ‘저’만 해당됨
		교정	
	부연		
	발화 내용 강조	-	‘이’만 해당됨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그’와 ‘저’만 해당됨
태도 관련 기능	주저하기	-	

<표 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그, 저’의 담화 기능은 ‘발언권 유지’, ‘발화 내용 강조’, ‘화제 전환’, ‘주저하기’가 있다. 그러나 ‘이’는 ‘그’나 ‘저’에 비하여 ‘발언권 유지’ 가운데 ‘시간 벌기’와 ‘발화 내용 강조’의 기능만을 지닌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근칭(近稱)의 지시관형사라는 의미지속성 원리에 따라 ‘이’의 어휘적 의미가 지닌 특성이 담화 표지의 발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국어사전에서도 ‘그’나 ‘저’는 지시대명사뿐 아니라 감탄사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이’는 지시대명사로만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먼저 ‘발언권 유지’에 관한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이 기능은 화자가 다음 발화를 생각해 내기 위해 발화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자신의 말이 지속될 것임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 가운데 ‘교정’과 ‘부연’의 경우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정보의 양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였을 때, 이를 수정할 시간을 버는 기능을 한다. 세 형태 가운데 ‘이’는 ‘시간 벌기’ 기능만을 지니며, ‘그’와 ‘저’는 모든 하위 기능에 고루 실현된다. 다음은 그 예이다.

- (28) ㄱ. 인자 웬: 동:네가 다 써썬음 인저 인자 인 머:다 인자 푸마시로 인자 품 아시라고 인자 (이제 온 동네가 다 썬서 이제 이제 인 뭐 이제 품앗이로 이제 품앗으라고 이제), 《2012보고서-신안: 43》
- ㄴ. 시방은 시방잉께 거 저 푸마시도 잘 안 하고 이녁 게잉게이 다 헤:분디. (시방



- 은 시방이니까, 그, 전, 품앗이도 잘 안 하고 자기 개인개인이 다 해 버리는 데,) 《영암: 28~29》
- 다. 아:니요. 전 저는 인자 인 트랙터 전 이:양기 인자 스농이:양기랑거슨 타고댕임 시롱 형거시고 (아니요, 전 저는 이제 트랙터 전 이양기 이제 승용이양기란 것은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보성: 150~151》
- 르. 내가 예:를 드러서 개:고기를 전 데:지고기를 먹꼬 체해쓰머는 체느로 가른 데: 지고기가 나와야 할거인디 데:지고기가 아니고 딴 생거시 나와. (내가 예를 들어서 개고기를 전 돼지고기를 먹고 체했으면 체내러 가면 돼지고기가 나와야 할 것인데 돼지고기가 아니고 딴 생것이 나와.) 《영광: 476~477》
- 모. 그서 그르문 아라서 해라 글고 그레가꼬 친정으로 가서 예:를 큰 크내를 나썩요. (그래서 그러면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레 가지고 친정으로 가서 예를 큰 크내를 낳았어요.) 《보성: 90~91》
- 바. 나 나한테 인자 점 뭉능 견 항 개 허고 자근 모이마하고 인자 가이나 저지 장애자 똥 가이네 저건허고 인자 테꼬 인자 자:째. (나 나한테 이제 쫓 먹는 것 하나하고 작은 사내애하고 이제 계집애 전 전 장애자 된 계집애 저것하고 이제 데리고 이제 잤지.) 《광양: 74~75》

(28ㄱ, ㄴ)은 ‘시간 벌기’에 관한 예로, (28ㄱ)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담화 표지 ‘인저/인자(이제)’, ‘머:다(뭐)’와 함께 실현되어 시간 벌기의 기능을 더욱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28ㄴ)에서는 ‘그’와 ‘저’가 발화에 같이 실현되었다. (28ㄷ, ㄹ)은 교정에 관한 예로, 각 예문에서는 ‘트랙터→이양기’, ‘개고기→돼지고기’로 고쳐 말하고 있다. 나머지 예는 부연에 관한 것으로, (28ㅁ)에서는 ‘애→큰애’로, (28ㅂ)에서는 ‘계집애→장애자 된 계집애’로 각각 ‘그’와 ‘저’에 선행하는 표현을 뒤따르는 발화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발화 내용 강조’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기능에서는 ‘이’만이 실현된다. ‘이’가 본래 근칭의 지시관형사라는 점에서 화자가 가까이 여기는 것, 즉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화 내에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후행하는 정보 내용 및 화자의 태도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29) ㄱ. 뜨더 강:개 인자, 요 우리 동네에서 인자 또 상:격꾸니라고 저너그로 지키는 사 را를 하나 도:요. (뜰어가니까 이제 인 우리 동네에서 이제 또 ‘상격꾼’이라고 저녁으로 지키는 사람을 하나 뒤요.) 《광양: 244~245》

나. 아 공개 새:상중거슬 요 닌:자 그래가꼬 재:가 인자 일:똥중사 개:급짱을 한 일  
 런 이상 달:고 (아, 그러니까 세상 좋은 것을 인 넌장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일등중사 계급장을 한 일 년 이상 달고) 《보성: 462~463》

다. 그 지리 요러코 졸조리 요러고요러고 도:기 지린는 디서 거그다 징: 데고 망치  
 로뚜루면 요 그냥 납짜꾸름해가꼬 빤:뜰뜰뜰 이려고 버러진 놈 이썸. (그 길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이렇게 돌이 길 있는 데서 거기다 정 대고 망치로 뚫으  
 면 인 그냥 납작스름해가지고 반듯반듯 이렇게 벌어진 것 있어.)

《영광: 348~349》

(29ㄱ)에서는 저녁에 도둑에게서 저녁에 마을을 지키는 상격꾼을 둔다는 내용으로,  
 여기에서는 ‘우리 동네’를 강조하고 있다. (29ㄴ)에서는 ‘닌:자(넌장)’에 ‘이’가 선행함으  
 로써 당시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못마땅한 심정을 강하게 드러낸다. (29ㄷ)은 ‘그냥’을  
 강조하는 예로, ‘그냥’은 ‘이’와 같이 강조의 기능을 하는 담화 표지에 해당한다. 이 예  
 문에서는 같은 담화 표지를 중첩하여 사용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더욱 선명하게 나타  
 낸다.

다음으로 ‘화제 관련 기능’에서는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화제  
 전환’이 있는데, 이 기능에서는 ‘그’나 ‘저’에 한하여 나타난다. 담화 내에서 화제를 전  
 환하는 기능은 일반적으로 이전의 화제와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와  
 ‘저’의 어휘적 의미와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 ‘그’와 ‘저’는 본래 ‘이’보다 더 먼 거리  
 에 있는 대상을 지시하는 의미를 지니는바, 기존에 이어지던 화제와 그에 후속하는 새  
 로운 화제는 내용상 서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시한 (30)이 그러한 예인데,  
 (30ㄱ)에서는 화자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서 아내의 성씨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전  
 이되었다. (30ㄴ)의 경우 ‘떼집’에 관한 이야기에서 ‘떼’가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것이라  
 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30) ㄱ. # 거그 녹차밭 뽕:짜 여패가 삼쟁이라고 인는다 거그서 인자 시지블 와찌요.  
 (거기 녹차밭 바깥 옆에 삼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집을 왔지요.)

@ 음

# 그 저히 마:느래 성은 문가고요. (그 저희 마누라 성은 문가고요.)

《보성: 68~69》

나. # 산쏘기로도 한번 가 보자 그라고는 아서 떼:로 지블 지서 가꼬라우 엔:나레

는. 떼지비라고 바:쫂? (산속으로도 한번 가 보자 그러고는 와서 떼로 집을 지어 가지고요 옛날에는. ‘떼집’이라고 봤소?)

@ 난 모빠썬요. (난 못 봤어요.)

# 저 이 썬른 인자 봉께 떼를 베까테가 마:니 이거이 즈 사:람 주그먼 떼에 이 피요 안? (저 이 저런 이제 보니까 떼를 밖에다가 많이 이것이 사람 죽으면 떼에 입히잖아요?)

《2012보고서-신안: 15》

마지막으로 ‘태도 관련 기능’의 ‘주저하기’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이 기능에 관하여 선행 연구인 이정애(1998)와 박근영(2006)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정애(1998: 118)에서는 말할 내용에 관한 화자의 망설임뿐 아니라 연령 및 사회적 지위, 혹은 친밀감에 따른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거리감 또한 반영한다고 하였다. 박근영(2006)에서는 ‘시간 벌기’의 기능에서 파생되었다고 보았는데<sup>71)</sup>, 두 견해를 종합하면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발언권 유지’의 기능에서 화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발화 내용에 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 기능에서는 앞선 ‘발언권 유지’ 가운데 ‘교정’, ‘부연’과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과 마찬가지로, ‘그’나 ‘저’로 실현된다<sup>72)</sup>. 그 예는 아래와 같다.

(31) ㄱ. 그: 가 애통해서 인자 거: 그 주꺼썬겘 아십니까? 부모는? (그 애통해서 이제 그 그 죽겠을 것 아십니까? 부모는?)

《2013보고서-보성: 43》

ㄴ. 썬: 네가 또 부르께 해, 드르썬요이~ (저, 내가 또 부를게 해, 들으시오.)

《영암: 36~37》

(31ㄱ)은 발화에 ‘그’가 실현된 예로, 화자는 부모를 여윈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예문에서는 바로 말하기 꺼려지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사용되었다. (31ㄴ)에서는 화자의 망설임을 나타내는데, 노래를 시작하겠다는 의도를 상대방에게 알리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을 목적으로 ‘저’를 사용하였다. (31)에 나타난 ‘그’와 ‘저’는 모두 장음으로 실현되는바, 이러한 음성적 특징은 화자가 이어갈 말의 내용에

71) 이 연구에서는 ‘주저하기’의 기능이 인접쌍(adjacency pairs)에서 비선호적인(dispreferred) 반응에서 쓰일 때 두드러지나, ‘시간 벌기’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72) 이정애(1998: 115)에서 ‘저’는 특히 말을 길게 끌거나 더듬는 경우에 단순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저’가 해당 기능에 더욱 많이 쓰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한 주관적 태도를 더욱 강하게 드러낸다.

### 2.3. 부사 기원형

부사 기원형에 속하는 담화 표지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마구’, ‘왜’, ‘이제’, ‘조금’, ‘하여튼’이 있다. 앞선 여덟 가지 형태는 각각 정상 부사, 지시 부사, 의문 부사, 접속 부사에서 발달한 담화 표지로 나뉜다.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상 부사에서 유래한 담화 표지는 ‘그냥’, ‘마구’, ‘조금’이 있으며,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을 가리키는 지시 부사에서 전성된 담화 표지는 본래 시간 부사인 ‘이제’가 있다. 화자의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 부사에서 기원한 담화 표지는 ‘왜’가 있으며, 문장 및 발화의 의미를 연결하는 접속 부사에서 발달한 것은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이 있다. 특히 접속 부사는 그 의미가 담화로 확장되어 담화를 연결하는 기능이 주를 이루며, 이외의 것들은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개입되어 담화 표지로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항에서는 위에 언급한 여덟 가지 담화 표지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기원한 부사의 유형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여 제시하지는 않겠다.

#### 2.3.1. ‘기양(그냥)’

담화 표지 ‘그냥’은 어떠한 변화 없이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정상부사에서 기원하였다. 전남 방언에서는 ‘기양’, ‘계양’, ‘강’ 등의 다양한 이형태를 보이는데, 각 지역어에서 실현된 ‘그냥’의 변이형은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2> 담화 표지 ‘기양(그냥)’의 지역별 변이형

중양어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그냥	기양	기양	그양/기양	기양/계양	기양/계양	그양/기양	계양
	그냥	기냥	/계양	기냥	그냥	/계양	그냥/그양

	강		그냥 강 양	강	강/장	그냥/기냥 강	
--	---	--	--------------	---	-----	------------	--

<표 22>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어에 따라 다양한 변이형을 보인다. 이들 형태는 중앙어형과 유사한 변이형인 ‘그냥’형과 이기갑(2018: 375)에서 상정된 어원적 형태와 유사한 변이형인 ‘그양’형<sup>73)</sup>, 그리고 축약형인 ‘강’형의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2>에 제시된 변이형을 앞의 세 유형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2) ㄱ. ‘그냥’형: 그냥, 기냥
- ㄴ. ‘그양’형: 그양, 기양, 게양
- ㄷ. ‘강’형: 강, 장
- ㄹ. 제1음절 탈락형: 양

(32ㄱ)의 ‘그냥’형에 속하는 ‘기냥’과 (32ㄴ)의 ‘그양’형 가운데 ‘기양’의 경우, 제2음절의 반모음 /j/의 영향으로 선행 음절의 모음인 /ㅡ/가 /ㅣ/로 교체되는 움라우트(umlaut)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32ㄷ)의 ‘강’형에서 ‘강’은 ‘기양’에서 축약된 한편, ‘장’은 ‘강’에서 ㄱ-구개음화를 겪은 형태에 해당한다. (32ㄹ)의 ‘1음절 탈락형’은 ‘기양’형에서 제1음절이 탈락한 것이다.

‘기양’의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더 이상의 변화 없이 그 상태 그대로’, ‘그런 모양으로 줄곧’, ‘아무런 대가나 조건 또는 의미 따위가 없이’의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sup>74)</sup>. 그러나 이기갑(2018)에서 사전적 정의는 어휘적 의미뿐 아니라 담화 표지로서의 쓰임을 총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그냥’의 어휘적 의미를 ‘전제된 사태의 부정<sup>75)</sup>’으로 재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곧 선행하는 항목에 전제된 것을

73) 이기갑(2018: 375)에서는 ‘그냥’의 어원을 지시사 ‘그’와 명사 ‘양(樣)’이 결합한 ‘그양’으로 상정하였다.

74) 이정애(1998: 121~122)에서는 ‘그냥’의 세 가지 의미가 상태의 지속에 따른 범주적 전이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더 이상의 변화 없이 그 상태 그대로’의 의미는 물리적 동일성을, ‘그런 모양으로 줄곧’의 경우 시간적 동일성을, ‘아무런 대가나 조건 또는 의미 따위가 없이’에서는 심리적 동일성을 나타낸다.

75) 이기갑(2018)에 따르면 어원적 형태인 ‘그양’은 곧 ‘그 모습’을 뜻한다. 여기에서 지시사 ‘그’가 대응적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담화 안에서 ‘그냥’이 나타나는 데에 특정 화제에 관한

부정하고 본래부터 이어져 온 상태를 지속하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발화를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지닐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전남 방언에서 발견된 담화 표지 ‘기양’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3> 담화 표지 ‘기양(그냥)’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부연	
	완곡한 발화 표현	-	
	발화 내용 강조	-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종결		‘완곡한 발화 표현’ 기능과 함께 나타남
태도 관련 기능	주저하기	-	

먼저 ‘시간 벌기’와 ‘부연’의 하위 기능을 포괄하는 ‘발언권 유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기능은 담화의 연속적 진행이라는 측면에서 ‘상태의 유지’라는 기본 의미에 부합한다. 그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33) ㄱ. 여르메는 여그 그저네 그러코 이씨:도 이씨:도 자바머글라 생가글 안헐는디 시방 보며는 여르메도 강 자바 머 이씨면 기양 거머머 전기로도 강 훌터서 먹꼬 글드라고. (여름에는 여기 그 전에 그렇게 있어도 있어도, 잡아먹으려 생각을 안했는데 시방 보면은 여름에도 그냥 잡아 뭐 있으면 그냥 거 뭐뭐 전기로도 그냥 훌어서 먹고 그러더라고.) 《곡성: 298~301》

ㄴ. 인자 거그다 액썸썸 조금 칠람 치고 그냥 거시기 절 장:만 치, 외간장만 칠람 치고 인자 거거 이녕 마:미여. (이제 거기다 액젓을 조금 치려면 치고 그냥 뭐 젓 장만큼 치, 왜간장 치려면 치고 이제 그것 자기 마음이야.) 《영암: 428~429》

ㄷ. 손툽모라고 기양 줄 업:씨 기냥 자기가 꼬시고 자푼대로 꼬징거시 손툽모 (‘손툽모’라고 그냥 줄 없이 그냥 자기가 꽃고 싶은 대로 꽃는 것이 ‘손툽모’.)

선행 발화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성: 194~195》

르. 고:또 인자 양님 여:가꼬 그냥 빼다:허이 거:는 (그것도 이제 양님 넣어가지고  
그냥 물이 많지 않게 그것은) 《2013보고서-광양: 349》

(33ㄱ, ㄴ)은 전형적인 시간 별기의 기능에 해당하는 예로, 두 예문 모두 ‘기양’이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담화표지와 함께 실현되었다. (31ㄱ)에서는 ‘그’, ‘뭐’, ‘(31ㄴ)에서는 ‘거시기’와 함께 사용되어 시간 별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41ㄷ, ㄹ)은 부연의 예로, (41ㄷ)에서는 ‘손톱모’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이어지는 한편, (41ㄹ)에서는 날김으로 국을 끓이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에 물이 많지 않게 하라는 보충 발화가 뒤따르고 있다.

한편 ‘완곡한 발화 표현’은 이기갑(2018: 381)에서 ‘기양’의 관용적 의미인 ‘특별한 것이 아님’에서 발달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의미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평가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발화에 언급된 대상의 상태가 변화 없이 기존의 상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화자의 관점에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자세한 예는 아래와 같다.

(34) ㄱ. 그란데 처:뿌런 그케 찰차리 한:나 하는데. 낭중에 인자 머글라고 하는 노른  
 쪼감만 여:코는 짜:치요, 기냥. (그런데 첫 벌은 그렇게 찰랑찰랑하게 가득 하  
 는데. 나중에 이제 먹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만 넣고는 쪼지요, 그냥.)

《진도: 58~59》

ㄴ. 지그밍게 기양 향:갑 췌고 칠순 세고 막 팔순도 세고 그러제 (지금이니까 그냥  
 환갑 쇄고 칠순 쇄고 막 팔순도 쇄고 그러지.) 《영광: 102~103》

(34ㄱ)은 보리를 쪄는 것에 관한 이야기의 일부이다. 첫 벌에서는 보리와 물을 가득 담아서 쪄는 반면, 그 다음 벌을 나타내는 발화에서는 끝 부분에 ‘그냥’이 실현됨으로써 후행 발화의 내용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후행 발화의 내용이 선행 발화의 내용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화자의 판단에 의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4ㄴ)은 환갑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 발췌한 것으로, 이 예문에서는 현재에 들어 이전 시대보다 평균 수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환갑뿐 아니라 칠순도 쇄고 팔순도 쇄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발화에서 특별한 일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발화 내용 강조’는 일반적으로 후행하는 발화 내용을 부각하나, ‘기양’의 경우 발화의 끝에 실현되어 선행하는 내용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 (35) ㄱ. 이노미 막 흐:카니 드령겨서 막 머그먼 기양 막 쏘내기 온 시늬을 해요 그런 노미 잠깐 이따가 도라서면 기양 싹: 무거블면 또 쥐노른 또 무거블고 또 쥐노른 )이것이 막 하얹게 들엇겨서 막 먹으면, 그냥 막 소나기 오는 시늬을 해요. 그런 것이 잠깐 있다가 돌아서면 그냥 싹 먹어버리면, 또 쥐 놓으면 또 먹어버리고, 또 쥐 놓으면.) 《곡성: 56~57》
- ㄴ. 지그른 기계로 함불 가라가꼬 기계로 노:타리를 떼레서 헤:봉께 놉빠닥 흐기 기양 죽떼야부는데. (지금은 기계로 한 번 갈아가지고 기계로 로타리를 떼레서 헤 버리니까 논바닥 흙이 그냥 죽처럼 되어 버리는데.) 《진도: 22~23》
- ㄷ. 어::트케 그 시어마이랑 험 냥바니 게양 여:시 쉬:께 마라자면 여:시 뺑녀시가 타가꼬 기양 (어떻게 그 시어머니라고 하는 양반이 그냥 여우 쉽게 말하자면 여우 불여우 갈아가지고 그냥) 《영광: 88~89》

(35ㄱ)에서는 ‘그냥’이 두 차례 실현되었는데, 모두 어떠한 행위의 강도를 나타내는 부사인 ‘막’과 ‘싹’ 앞에 실현되어 후행하는 부사가 수식하는 동작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예에 해당한다(이기갑, 2018: 388). (35ㄴ)은 후행하는 발화 내용을 강조하는 예로, 요즘은 기계로 쇠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논바닥의 흙이 다져져 죽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35ㄷ)에서는 시어머니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로, ‘기양’이 두 차례 실현되어 후행 발화와 선행 발화를 모두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 실현된 ‘게양’은 후행하는 ‘여시(여우)’를 부각하고 있으나, 두 번째에 실현된 ‘기양’은 발화의 끝에 사용되어 선행하는 ‘뺑녀시(불여우)’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태도 관련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하위 기능으로는 ‘주저하기’가 있다. 다음에 제시된 (36)은 장례 절차에 관련된 내용의 일부로, 화자가 품앗이로 부고를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천대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예문에서는 부고가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점에서 바로 말하기 꺼려지는 것에 해당하므로, 화자는 발화를 명확히 끝맺지 못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6) ㄱ. 그거 데~이머는 암:마네도 천:데 바꼬 먼, 그냥. (그거 다니면은 아무래도 천 데 받고, 뭐 그냥.) 《영암: 144~145》

이상에서 다룬 ‘기양’과 유사한 담화 기능을 지닌 담화 표지 가운데 ‘고마/마76)가 있다77). 이 담화 표지는 동남 방언에서 주로 실현되지만, 광양이 경남 지역과 인접한 전이지대(transitional area)이기 때문에 광양 지역어에서도 나타난다. ‘고마/마’의 담화 기능으로 임규홍(2011)에서는 ‘강조’의 기능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이기갑(2018)에서는 ‘부정적 태도 표현’, ‘강조’, ‘발언권 유지’의 기능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 가운데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은 기원형인 ‘그만78)이 어떠한 상황이나 행동의 중지를 나타내는 어휘적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37) ㄱ. 그래가 하꼬를 문 강 거이 만 그를 모 빼우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간 것이 글을 못 배우고.) 《광양: 18~19》

나. 금 조깅 포도씨 까:매 주고만 하리나 이트리나 가서 도라맹이다 오무 또 도로 그래 그냥. (그러면 조금 겨우 껌매주고 하루나 이틀이나 가서 돌아다니다 오면 또 도로 그래 그냥.) 《광양: 390~391》

다. 땀땀이 나모 만 애기드른 부늘 불러주고, 저네 (땀땀 나면 마 아이들은 분을 발라주고, 전에) 《광양: 174~175》

르. 애기를 움모게다가 인잔 쌀 한되나 허고 인자 인자 그 인자 봉 만, 북 빠드라고 그른::다고 마:른 인절 그래선 쌀 좀 허고 인자 미역 항 가닥허고 요리 물 떠 가꼬 상에다 저:리 나: 노코 나:먼 인자 사혈마네 인자 인자 오, 어찌녀야 나:썩개 오늘 하리 이따가 내라치메 인자 (아기를 윗목에다 이제 쌀 한되나 하고 이제 이제 그 이제 북 북 받으라고 그런다고 말은 이제 그래서, 쌀 좀 하고 이제 미역 한 가닥하고 이리 물 떠가지고 상에다 저쪽에 놔 놓고 나면 이

76) ‘고마’의 경우 광양 지역어에서 부사의 의미로 한 차례 실현되었다. 이는 ‘고마’가 부사로서의 어휘적 의미와 담화 기능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마’는 임규홍(2011)과 이기갑(2018)에서 ‘고마’보다 담화 표지로 더욱 발달된 형태임을 언급하였다. 이는 특히 명령문의 뒤에서 ‘마’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고마’와 차이가 있다.

77) 이에 관하여 이기갑(2010)에서는 ‘그저’와 ‘그만’, ‘그냥’을 유사한 담화 기능을 지닌 담화 표지로 보고, 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저’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한국어 및 동북 방언에, ‘그만’은 동남 방언에, ‘그냥’은 서남 방언을 비롯한 일부 방언에서 상보적인 분포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곧 이기갑(2018: 369)에서 담화 차원에서 나타나는 방언적 변이형이라 언급하였다.

78) ‘그만’은 어원적으로 지시사 ‘그’와 ‘만’이 결합한 형태로, ‘만’의 경우 임규홍(2011: 7)에서는 한정 의 의미를 지닌 보조사로 보았다. 한편 이기갑(2018: 338)에서는 의존명사와 보조사의 형태가 있으나, 역사적으로는 ‘제한’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단일한 형태로 보았다.

제 사흘만에 이제 이제 엿저녁에 낳았으니까 오늘 하루 있다가 내일 아침에  
이제,) 《광양: 84~85》

(37)에 제시된 예문은 모두 발언권 유지 기능에 포함된다. (37ㄱ)에서는 글을 배우지 못한 것이 학교를 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부연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37ㄴ)에서는 시동생의 찢어진 옷을 꿰매 주어도 밖에서 하루 이틀 놀다 오면 다시 옷이 헤어진다는 내용으로, 후행 발화를 이어가기 위한 시간을 버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예문에 나타나는 상황이 모두 화자에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37ㄱ, ㄴ)에서는 시간 벌기와 함께 언급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 또한 드러내고 있다. 비록 전사 자료에서는 ‘고마/마’가 적은 빈도로 실현되어 그 기능을 모두 살피지는 못하였으나, 서로 유사한 기능을 지닌 담화 표지들이 전이지대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라 하겠다.

### 2.3.2. ‘궁께/궁계(그러니까)’

담화 표지 ‘궁께/궁계’의 중앙어형인 ‘그러니까’는 본래 대응언 어간 ‘그러하-’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니까’가 결합하여 접속 부사로 발달한 것이다. 전남 방언에서는 중앙어형과 동일한 형태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그라니까’, ‘그라이까’, ‘그라이께’ 이외에도 다양한 축약형으로 실현된다. 전남의 각 지역어에 따라 실현된 변이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 담화 표지 ‘궁께/궁계(그러니까)’의 지역별 변이형

중앙어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라니까/ 그라이까/ 그라이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라니까	-	-
그니까	그니까	그랑께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릉께/	그랑께	그렇게/ 그릉께	그렇게

				그잉까			
근까	궁께/궁게	-	궁께/궁게	궁께	궁께/궁게	궁께	궁께
그까	-	-	그까	-	그까	-	-
그 외	께/게	-	-	-	-	-	-

<표 24>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남의 북부에 해당하는 곡성과 영광 지역어에서는 ‘궁께’와 ‘궁게’가 교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연결어미 ‘-으니까’는 전남 지역에서 ‘-응께’로 실현되는 반면, 전북 지역에서는 대체로 ‘-응게’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앞의 두 지역이 전북 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전이지대로서의 특성을 보여 준다. 또한 전남 방언에서도 중앙어형과 유사한 형태뿐 아니라 전영옥(2017b)에서 제시한 중앙어 담화 표지 ‘그러니까’의 변이형인 ‘그니까, 근까, 그까’에 대응되는 형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궁께/궁게’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선행절을 대용함으로써 후행절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게 하는 의미를 지니는데, 특히 대용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발화의 연결에 선행 발화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특성은 담화 표지 ‘궁께/궁게’에도 일부 잔재하여 담화 내에서 발화를 결속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남 방언에서 실현된 ‘궁께/궁게’의 담화 기능은 다음에 제시하였다.

<표 25> 담화 표지 ‘궁께/궁게(그러니까)’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교정	
	부연		
	발언권 가져오기	-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태도 관련 기능	긍정적 태도	동의	독립적으로 실현되어 긍정의 응답어로 쓰임

먼저 ‘발화 책략 기능’ 가운데 ‘발언권 유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능에서는 ‘궁께/궁께’가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를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어휘적 의미가 상당히 약화되어 단순히 발화를 연결하고 있다<sup>79)</sup>. 그 예는 다음과 같다.

(38) ㄱ. 뿌러가지고 인자 한나가 꼬꼬. 인자 그라니까 처:으메는 질 드릴 때 마:라자면  
 먼 나무 요로케 시:발 텅거슬 테:다가 도:글 인자 쫓까:난 놈 실:꼬는 인자 멩  
 에를 채야가꼬 인자. (뚫어가지고 이제 하나가 끌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들일 때 말하자면 무슨 나무 이렇게 세 발 된 것을 대다가 이제 조그마한  
 것 싹고는 이제 멩에를 채워가지고 이제.) 《진도: 102~103》

ㄴ. 인자 이:과글 헨:는디 궁께 사뭇 따레 이팍 허고 사:월 오:월 유:월따레 유기요  
 가 나가꼬 고마 하꼬를 몬 가썬요.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러니까 삼월에 입학  
 하고 사월 오월 유월에 육이오가 나가지고 그만 학교를 못 갔어요.)  
 《광양: 18~19》

ㄷ. 나라글 아니 인자 나라글 그니까 보리를 (벼를, 아니 이제 벼를 그러니까 보리  
 를.) 《2012보고서-신안: 74》

ㄹ. 땅이 팍: 어러불면 궁께 땅이 인자 노그머는 그때 인자 쟁이지를 해:요. (땅이  
 뽕뽕 얼어 버리면 그러니까 땅이 이제 녹으면은 그때 이제 쟁기질을 해:요.)  
 《보성: 158~159》

(38ㄱ)은 일반적인 시간 별기의 기능을 하는 예로, ‘그라니까(그러니까)’ 이전에 같은 기능의 담화 표지 ‘인자’가 함께 실현되어 그 기능이 더욱 두드러진다. (38ㄴ)에서는 화자가 당시 학교에 입학한 시기가 3월임을 후행 발화에서 언급함으로써 선행 발화를 보충하고 있다. (38ㄷ, ㄹ)은 교정의 예로, 각 예문에서는 ‘나라(벼)→보리’, ‘땅이 팍: 어러불면(땅이 뽕뽕 얼면)→땅이 인자 노그머는(땅이 이제 녹으면)’으로 고쳐 말하고 있다.

한편 ‘발언권 가져오기’는 화자가 상대방의 발화가 지속되는 도중 혹은 발화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끼어드는 것으로, 이 기능에서는 화자가 상대방을 대신하여 보충 설명을 시도하려 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말할 발화 내용을 화자가 이미 간파하였음을 드러낸다. 다음에 제시된 (39)에서는 ‘궁께/궁께’가 총 두 차례 실현되었다. 첫 번째에 실

79) 이 기능과 가운데 ‘부연’의 경우 전영옥(2017b)에서 선행 발화를 보충하는 데에 본말인 ‘그러니까’보다 축약형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현된 ‘그러니까’는 보조 제보자가 조사자에게서 말차레를 빼앗았음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나타난 ‘궁께’는 주요 제보자가 다시 보조 제보자에게서 발언권을 가로채려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39) @ 노물 잘못 캐다가 비암이라도 만나면 (나물 잘못 캐다가 뱀이라도 만나면)

#2 그러니까 비암 만나면 (그러니까 뱀 만나면)

#1 궁께 조심해 조심해야지요 궁께 (그러니까 조심해 조심해야지요 그러니까)

《곡성: 118~119》

다음으로 화제 전환에 관한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40ㄱ)에서는 화자가 바느질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하다가 ‘그러니까’에 후행하는 발화에서는 며느리의 고충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40ㄴ)의 경우 화자가 어릴 적 학교에 대한 이야기에서 일만 하였다는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되고 있다.

(40) ㄱ. 사리 안 나오게 끼:매 이폐야재. 궁께 잠 잘 여개도 영:꼬. 궁께 메트리드른 주글 이리야 주글 일. 그래도 어:르니라고 먼: 소리를 허고 어:르니라고 메느리 시기 노고 주구는 놀:로 땡기고. (살이 안 나오게 꿰매어 입혀야지. 그러니까 잠 잘 여가도 없고.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죽을 일이야 죽을 일. 그래도 어른이라고 무슨 소리를 하고 어른이라고 며느리 시켜 놓고 저희는 놀러 다니고.)

《광양: 436~437》

ㄴ. 우덜 어려서는 우더리 꼭: 일제 때 생게가가꼬 일본놈더리 학교도 빙비이~업:꼬 일본끄리나 쪼간 머:다고 그레쏘. 그라이~까 순 순:저니 우더른 어려서부터 이:리나 하고 그레쨌요. (우리들 어려서는 꼭 일제 때 생겨가지고 일본놈들이 학교도 변변히 없고 일본 글이나 조금 무엇 하고 그렛소.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일어나 하고 그렛지요.)

《진도: 278~279》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동의를 나타내는 ‘태도 관련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궁께/궁께’가 이 기능으로 실현될 때에는 발화 내부에 실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타나며, 일종의 긍정 응답어로 쓰인다. 아래에 제시한 (41)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41) #1 음, 여우 비서리떼 안 나드라고 안? (음, 여기 싸릿대 났었잖아?)

#2 그랑께. (그러니까.)

《영암: 304~305》

### 2.3.3. ‘근디(그런 데)’

‘그런데’는 본래 뒤따르는 내용을 선행하는 내용과 관련지어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이다. 전남 방언에서는 ‘근디’ 외에 다양한 형태로 쓰이는데, ‘그란데, 그란디, 그런디’와 같이 중양어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부터 중양어의 축약형 ‘근데’에 대응되는 ‘근디, 간디’로도 실현된다. 다음은 ‘근디’의 지역별 변이형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26> 담화 표지 ‘근디(그런 데)’의 지역별 변이형

중양어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그런데	-	그란데/ 그란디	그런디	그란디/ 그런디	그란디	-	-
근데	근데/근디	근데	근데/근디	근데/근디 /간디	근데/근디 /간디	근디	근데/근디

‘근디’의 중양어형 ‘그런데’는 어원적으로 대응언 어간 ‘그리하-’와 상황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디’가 결합하여 접속 부사로 발달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적 특성상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가 함께 결합되어 나타난다(김미선, 2012: 37). 이러한 ‘그런데’가 담화 표지로 발달하였을 때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논리적 연결보다는 담화의 응집성을 위한 연결표지로 기능하게 된다.

<표 27> 담화 표지 ‘근디(그런데)’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가져오기	-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먼저 ‘발언권 가져오기’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근디’의 경우 상대방이 발화를 진행하는 도중 혹은 발화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말차레를 가로챤다는 점에서 ‘궁께/궁께’와 유사하나, 상대방의 발화 내용과는 다소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42) ㄱ. #2 어, 비어서 그거슬 살마서 인자 그거슬 드린디, 새파:라니 그런 마라자면 인자 푸른마시조. 요런 색까리 나오제, 쪽물 너면 요런 색까리 나와서 (어, 베어서 그것을 삶아서 이제 그것을 들이는데, 새파랗게 그런 말하자면 이제 푸른 기운이지요. 이런 색깔이 나오지, 쪽물 넣으면 이런 색깔이 나와서)

#1 근디 그 조:다리란 거시 머신지 뜨슬 몰라 조다리란 거시 머신지 (그런데 조다리란 것이 뭔지 뜻을 몰라, 조다리란 것이 뭔지)

#2 그 저네 그거시 화학푸민데 인자 화학낙푸므로 나온 (그 전에 그것이 화학약품인데 화학약품으로 나온)

#1 근디 그거슬 무레다 영:께 막 부그르르 요러드라고요. 까스가치 그렇가바요. (그런데 그것을 물에다 넣으니까 막 보그르르 이렇더라고요, 가스같이 그런 가봐요.) 《곡성: 78~81》

ㄴ. #1 마:나게 불쌘하다 (만약에 불싸움 하다가)

#2 근데 인자 안 다칠라면 서로 인자 피하고. (그런데 이제 안 다치려면 서로 이제 피하고,) 《2013보고서-영암: 182》

(42ㄱ)은 옷을 염색하는 방법에 관한 발화의 일부로, ‘근디’가 총 두 차례 실현되었다. 주요 제보자는 보조 제보자가 쪽물을 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도중 ‘조다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후 ‘조다리’는 화학 약품이라는 보조 제보자의 발화에 다시 한 번 끼어들어 ‘조다리’를 물에 넣어 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

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제보자는 보조 제보자가 하고 있는 말과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42ㄴ) 또한 마찬가지로, 주요 제보자의 발화 도중 보조 제보자가 불쌍함 하다가 다치지 않으려면 서로 피한다는 발화가 이어진다.

다음은 화제 전환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이 기능은 앞서 설명한 ‘그런데’의 의미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담화 기능일 것이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43) ㄱ. #1 지방 가라볼라고 꼬들빼기 씨를 바다나썬요. 마:니. 근디 지방 어:따 가까 그러네요. 근디 가라서 아그들도 쫘 주고 혈라고. (지방 갈아보려고 고들빼기 씨를 받아냈어요. 많이. 그런데 지금 어디다 갈까 그러네요. 그런데 갈아서 아이들도 쫘 주고 하려고.)

#2 근데 그거시 자여느로 그거시 나라서 그거시 인자 그거또 다 생명:체가 인는 거이라. (그런데 그것이 자연으로 그것이 날아서 이제 그것도 다 생명체가 있는 것이라.) 《곡성: 126~127》

ㄴ. 그리고 어이서 물 함뺑을 나도아나고 올때도 업:꼬하는 노는 젖: 하:토 박토로 그러케 헤썬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까져썬요. (그리고 어디서 물 한 방울 나지도 않고 올 때도 없고 하는 노는 제일 하토 박토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진도: 36~37》

ㄷ. 그렇게 천석꾼 부:자라고 소:문 나썬썬. 근디 인자 다:: 또 그럴 이유가 이썬가꼬 살리를 망해뺑고 (그러니까 천석꾼 부자라고 소문 났었어. 그런데 이제 다 또 그럴 이유가 있어가지고 살림을 망해버리고) 《영광: 56~57》

(43ㄱ)은 상호 대화의 일부를, (43ㄴ, ㄷ)은 화자의 단독 발화의 일부를 발제한 것이다. (43ㄱ)에서는 주요 제보자가 고들빼기 씨앗을 심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반면, 보조 제보자는 고들빼기 씨앗이 바람에 날려 심어지는 것에 관한 말을 꺼내고 있다. (43ㄴ)에서 화자는 환경이 열악하여 농사를 짓기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시대가 달라졌기에 그렇지 않음을 말하고 있으며, (43ㄷ)의 내용은 화자의 할아버지가 당시에는 부자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망해버렸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통틀어 보면, (43ㄴ, ㄷ)은 모두 시간적으로 앞선 상황과는 대조적인 성격의 이야기를 도입하는 데에 ‘그런데’가 사용된 것이다.



### 2.3.4. ‘막(마구)’

‘막’은 본래 ‘아무렇게나 함부로’, 혹은 어떠한 힘이나 기세가 몹시 세차다는 의미를 지닌 부사이다. ‘막’의 중앙어형은 ‘마구’로, 중앙어에서는 ‘마구’가 담화 표지로 사용될 때에 예외없이 축약형인 ‘막’으로 실현된다. 전남 방언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형태를 나타낸다.

위에서 언급한 부사 ‘막’이 정상 부사에서 정도 부사로 쓰일 때, 안정아(2008: 273~274)에서는 [+상태성] 자질을 지닌 ‘아무렇게나 함부로’의 의미에서 [+정도성] 자질을 대표하는 ‘어떠한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의미로 파생되었다고 하였다. 담화 표지 ‘막’은 정도 부사의 의미에서 담화 기능이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민정(2015a)에서는 ‘막’의 담화 기능이 부사 ‘막’의 의미와 관련이 깊으며, 특히 ‘발화 내용 강조’ 기능에서 이러한 의미 특성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발화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도 전사 자료에서는 ‘발언권 유지’에 관한 기능을 발견하였는데, 김영철(2010)에서 제시한 ‘시간 벌기’와 ‘부연’ 이외에도 ‘열거’의 기능에 관한 예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화자가 쉽 없이 발화를 전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8> 담화 표지 ‘막(마구)’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부연	
		열거	
	발화 내용 강조	-	

먼저 ‘발언권 유지’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기능에서는 ‘시간 벌기’와 ‘부연’, ‘열거’가 발화에 실현되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44) ㄱ. 아이, 어린 사라미 아니고 거가서 심께나 쓰고 그라면 인자 그 사라만테 노래

모:뽀 사람 짜 작 트레다 자범 노코, 막 께양 거시기 떼짚 영꼬 그레요. (아니, 어린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서 힘깨나 쓰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노래 못 부른 사람 막 틀어다 잡아 놓고, 막 그냥 거시기 ‘뻗짐’ 없고 그레요.)

《영암: 36~37》

ㄴ. 처:메느 싹: 보이. 제:가 막 거 주를 처서 요리 도라가능거를. (처음에는 싹 보여. 제가 막 그 줄을 처서 이리 돌아가는 것을.) 《광양: 322~323》

ㄷ. 저 시:중에 가서 인자 되야지고기 소고기 인자 막 머: 고기 가튼거 인자 거 생성가튼거 막 이릉글 사다가, (저 시중에 가서 이제 돼지고기 쇠고기 이제 막 뭘 고기 같은 것 이제 그 생선 같은 것 막 이런 것 사다가)

《2013보고서-보성: 38》

(44ㄱ)은 시간 별기의 예로, ‘막’ 뒤에 같은 기능을 하는 담화 표지인 ‘께양(그냥)’과 ‘거시기’가 함께 나타나 뒷말을 생각해내기 위한 화자의 의도를 한층 명확하게 드러낸다. (44ㄴ)은 부연의 예로, 제시된 예문은 누에가 고치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발화의 일부이다. ‘누에가 줄을 처서 돌아가는 모습’이라는 후행 발화가 ‘처음에는 다 보인다’는 선행 발화를 보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ㄷ)은 식료품에 해당하는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등을 나열하는 ‘열거’의 예에 해당하는데, 이 예문에서는 ‘막’이 두 차례 실현되었다.

다음으로 ‘발화 내용 강조’는 화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발화에 명시하는 언어적 장치로, 이 기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사 ‘막’의 본래 의미 가운데 ‘어떠한 정도가 심하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기능에 관한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45) ㄱ. 막 잘자라게 막 싹 싹:: 나제라우. (막 자잘하게 막 싹싹 나지요.)

《2013보고서-신안: 254》

ㄴ. 저지 암:테라도 마당에 어디 해:노코는 막 새:쫓는다고 우여 우여. (저기 아무 테라도 마당에 어디 해 놓고는 막 새 쫓는다고 우여 우여) 《광양: 222~223》

ㄷ. 근디 인자 지그른 이자 이노무거시 머 막 지바내다 샘:도 파고 니:미 벨거또 다 모도 펼리허게 썰라고 오:만 벨진 다허재마넌 앤:나래는 그러케 해썬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놈의 것이 뭐 막 집안에다 샘도 파고 네미 별것도 다 모두 편리하게 쓰려고 오만 별짓 다 하지마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보성: 22~23》

(45ㄱ)은 수두의 증상에 관한 이야기를 발췌한 것으로, 이 예문에서는 ‘막’이 총 두 번 실현되어 ‘잘자라게(자잘하게)’와 ‘씩’을 강조하고 있다. (45ㄴ)에서는 새를 쫓는 행위를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45ㄱ, ㄴ)은 후행하는 발화 요소를 부각함으로써 그것이 수식하는 상태 및 행위를 강조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45ㄷ)은 앞선 예문과 같이 발화 내에 제시된 상태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세태에 대한 화자의 불만 또한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sup>80)</sup>.

### 2.3.5. ‘왜’

‘왜’는 어떠한 사태에 대한 이유를 묻는 의문 부사에서 전성된 담화 표지이다. ‘왜’는 ‘머/뎡’, ‘어디’, ‘뎡’과 같은 의문사에서 발달한 담화 표지에 해당하나, 정윤희(2000: 145, 김광해, 1983에서 재인용)에서는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화자가 모르는 이유를 상대방에게 묻는다는 점에서 ‘머/뎡’, ‘어디’, ‘뎡’과 같이 ‘미정, 미지’의 의미가 약하다고 언급하였다<sup>81)</sup>. 또한 김선희(1995), 구종남(2015b)에서 ‘왜’는 화자가 믿고 있는 사실, 즉 참이라 여기는 상황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것이라 하였다. ‘왜’의 담화 기능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담화 표지 ‘왜’는 전남 방언에서는 중앙어형과 같이 ‘왜’로 실현되며, 그 담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9> 담화 표지 ‘왜’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별기	
	상호작용 유도	-	

80) (46ㄷ)은 ‘부정적 태도 표시(안정아, 2008, 안주호, 2009, 송인성, 2014)’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화자의 태도는 굳이 ‘막’이 실현되지 않아도 발화의 맥락과 어조에 의해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으며, 예문에서도 ‘이노무거시’, ‘니:미’, ‘오:만 벨진’과 같은 표현이 함께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심리 상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57ㄷ)에서 강조되는 화자의 부정적 태도는 부차적인 것이라 하겠다.

81) 이에 관하여 구종남(2015b: 99)에서는 중앙어에서는 부정사로서의 용법이 없으나, 전라, 충청, 경상 방언 등에서 그 용법이 발견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부정사의 예(2015b: 108)는 ‘나는 비 오는 날이 좋더라 왜/그 사람들은 오징어를 안 먹어요 왜’가 있다.

태도 관련 기능	부정적 태도	반박	
----------	--------	----	--

먼저 ‘발화 책략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 가운데 ‘시간 벌기’는 화자 자신에 대한 물음으로, 생각나지 않은 말의 내용을 떠올리기 위하여 발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다. ‘상호작용 유도’는 김선희(1995), 이한규(1997)에 따르면 화자가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의심을 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이를 확인받고자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기능이라고 하였다. 언급한 두 기능에 대한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 (46) ㄱ. 그거슨 위에, 무슨 마리낙 허머뇨, 흐그로 지:차네 거: 논뽀렁이나 저 저런 짜: 거시기 가튼디서 인자 질까에서나 띄를 떠다가요. (그것은 왜, 무슨 말이나 하면은 흙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논두렁이나 저 저런 저 거시기 같은 곳에서 이제 길가에서나 띄를 떠다가요,) 《2013보고서-보성: 77》
- ㄴ. 아이 왜: 인자 니:가 닥 어 그 병:이 인자 들:목써 할 떼게는 (아이 왜 이제 네가 어 그 병이 이제 들목에서 할 때에는) 《2013보고서-신안: 372》
- ㄷ. 밀까리 푸를 끼리가꼬 인자 또 그러고 인자 또또 먼: 헌 지비느 인자 줌 인는 지비느 인자, 풀 매라고 요새 왜 쪼까:너이 풀 매고 압쭈당이 요:리 흐리능 거 아니썸떠여? (밀가루 풀을 끓여가지고 이제 또 그러고 이제 또 또 뭐 한 집은 이제 줌 있는 집은 이제, 풀 매라고 요새 왜 조그맣게 풀 매고 앞 주둥이 이리 흐르는 것 있잖습디까?) 《광양: 432~433》
- ㄹ. 요샌 놀미야::형거 왜:여그 치또 머크라꺼튼거 망 가따가 아 팔등가요? (요샌 놀만한 것 왜 여기 것도 머리카락 같은 것 막 가져다가 팔잖던가요?) 《2013보고서-광양: 346》

(46ㄱ, ㄴ)은 발언권 유지에 관한 예로, (46ㄱ)에서는 ‘띄집’을 짓는 방법에 대하여, (46ㄴ)에에서는 . (46ㄷ, ㄹ)은 상대방의 관심을 유도하여 대화에 끌어들이는 ‘상호작용 유도’ 기능으로, 두 예문 모두 화자가 알고 있거나 예측하는 상황에 대하여 청자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확인의문문 형식으로 실현되었다.

다음으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기능은 상대방의 발화 내용이 화자의 생각이나 신념과 다를 때 의문을 포함함으로써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다른 견해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된다. 그 예는 아

래와 같다.

(47) @ 남자 남자 여자드른 메구 메구 안칭가요? {남자 남자, 여자들은 풍물 풍물 안  
치나요? }

# 왜 여자들도 허고 남자들도 허고. (왜, 여자들도 하고 남자들도 하고.)

《광양: 266~267》

(47)에서 여자들은 풍물을 치지 않느냐는 조사자의 발화에 체보자는 남녀 모두 풍물을 친다고 응수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 화자의 발화 내용이 화자의 생각과 신념에 어긋날 경우, 이에 대한 의문을 품음으로써 선행 화자의 발화를 부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 2.3.6. ‘인자(이제)’

‘이제’는 지시사 ‘이’와 ‘적에’가 줄어든 ‘제’가 결합된 말이다<sup>82)</sup>. 일반적으로 ‘이제’는 시간 부사에 포함되나, 앞서 언급한 어원에 따르면 시간 부사와 공간 부사를 아우르는 ‘지시 부사’의 범주에 속한다. 전남 방언에서는 주로 ‘인자’로 실현되며, 그 외의 형태들은 다음에 제시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0> 담화 표지 ‘인자(이제)’의 지역별 변이형

중앙어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이제	인자/인저 인제 이저/이야 야 자	인자	인자 이자 인/자	인자/인저 인제 은자 이제/이자 인	인자/인제 이자 인/자	인자/인저 이자 은자 인/자	인자/인제/ 인저/이야 은자/은자 이야 인/자

82) 이기갑(2018: 181)에서는 ‘제’를 시간 명사로 파악하고 있다.

<표 3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남 방언에 ‘인자’ 이외의 다양한 변이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보성과 광양 지역어에서 실현되는 ‘언자/은자’형<sup>83)</sup>은 경남 방언에서 사용되는 형태이다. 그 외의 형태는 이기갑(2018: 182)에 따르면 ‘이제’의 변이형은 제1음절 교체 및 /ㄴ/ 삽입 여부와 제2음절의 교체 양상에 따라 다양한 방언형의 분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언급에 따라 음절의 변이 양상 및 탈락, 축약에 따른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48) ㄱ. 제1음절 변이형: 인제
- ㄴ. 제2음절 변이형: 이자/이저, 이야
- ㄷ. 양음절 변이형: 인자/인저, 은자/언자
- ㄹ. 제1음절 탈락형: 자
- ㅁ. 제2음절 탈락형: 인
- ㄴ. 축약형: 야<sup>84)</sup>

‘이제’의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바로 이때’를 뜻하며,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고 정의한다. 이는 ‘이제’가 말할 당시의 시점을 나타내는 의미로, ‘지금’과 유사하게 쓰인다. 그러나 이 두 시간 부사는 서로 문법적·의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예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 (49) ㄱ. (앞 상황과 관계없이 현재의 발화시) \*이제/지금 어디에 살고 있니?
- ㄴ. (몇 달 전에 이사 갔어? 그러면) 이제/지금 어디에 살고 있니?
- ㄷ. 자, 이제/지금 슬슬 일어섭시다. <이기갑, 1995: 265>

(49)에서는 각각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문장에 시간부사인 ‘지금’, ‘이제’가 각각 쓰인 예이다. (49ㄱ)에서는 ‘이제’가 쓰일 경우 문법적으로 어색한 반면, (49ㄴ)에서는 자연스럽다. 이와는 달리 ‘지금’은 (49ㄱ, ㄴ) 모두 문제없이 쓰일 수 있다<sup>85)</sup>. 한편 (49ㄷ)

83) ‘언자’형은 이기갑(2018: 182)에서, ‘은자’형은 이수현(2014: 22)

84) ‘이야’에서 축약된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85) 이는 현재 진행형 자체가 지니는 속성과도 관련지을 수 있다. 이기갑(2019: 265)에 따르면 현재 진행형은 발화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나, 발화시 이전에도 같은 상황이 얼마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은 발화 당시와 그 이전 시점 사이에 일어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전제 없이도 쓰일 수 있는 반면,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61

에서는 ‘이제’와 ‘지금’이 모두 허용되는데, 이 두 시간 부사 가운데 어떠한 것이 사용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이기갑(1995: 265)에서는 ‘이제’가 쓰일 경우 발화 시점까지 지속되어 온 이전의 상황과는 다른 새로운 상황을 전개하기 위한 재촉의 의미가 강한 반면, ‘지금’은 단순히 그 자리를 마무리하자는 시점이 발화 당시임을 나타낼 뿐이라 해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발화 시점 이전에 그 이전의 상황이 전제되었는가의 여부에서 비롯된다. 이를 담화의 차원에 대입해 보면, ‘지금’은 선행된 것과는 관계 없이 현 발화 시점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 없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당시와 관련한 사건이나 상황에 관련한 구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86)</sup>. 이러한 의미와 연관되어 나타난 ‘인자’의 담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31> 담화 표지 ‘인자(이제)’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별기	
		교정	
		부연	
		열거	
	발화 내용 강조	-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작은 범주의 화제 전환

먼저 ‘발언권 유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기능에서는 하위 용법인 ‘시간 별기’, ‘교정’, ‘부연’, ‘열거’에 대한 모두 나타나, 시간 별기로만 사용되었던 중앙어 담화

7)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서두에 제시한 사전적 정의에서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는 설명은 이러한 특징과 부합한다.

86) 이정애(1998: 95)에서는 ‘지금’이 말하는 지금 이 때를 가리키는 일종의 시구간이기 때문에 시작점과 종착점을 갖는 행동 또는 변화를 나타내며, 한 시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반면 ‘이제’는 앞에 지속된 상황이나 행동이 전제되어 있고, 그 상황이나 행동의 연결 및 전환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어원적으로 지시사 ‘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담화 표지 ‘이제’의 특성에도 연결된다. 이기갑(1995)에서는 담화 표지 ‘이제’가 억양 단위의 뒤에 실현된다고 하였다. 또한 임규홍(1996)에서는 ‘비어두·비어말성’이라는 특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담화 표지 ‘인자’가 말 첫머리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후행 발화 없이 담화가 끝나는 환경에서도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표지 ‘이제’와는 폭넓은 쓰임을 보인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 (50) ㄱ. 떠걸 인자 싸를 인자 당가따가 도구통에다 찌거가꼬 그놈만 인자 시리에다 찌  
가꼬 서녕이다 가덩가 그거 (떡을 이제 쌀을 이제 담갔다가 절구통에다 찼어  
가지고 그것만 이제 시루에다 찌가지고 선영에다 가던가 그것)

《2013보고서-신안: 240》

- ㄴ. 큰집씨 사라계제. 나는 인자 우리는 두짱::께 근디 큰집씨 사르시고. 거 종조  
씨. (큰집에서 사셨지. 나는 이제 우리는 둘째니까. 그런데 큰집에서 사시고.  
그 종조 씨.) 《영암: 102~103》

- ㄷ. 예:저네는 가상친다고. 인자 네:나 소놀테로 이케 홀타가꼬는 저녁끄테는 점:부  
모된다갑따다. (예전에는 가상친다고. 이제 내나 손홀태로 이렇게 홀어가지고  
는 저녁 끝에는 전부 모은다고 합디다.) 《진도: 72~73》

- ㄹ. # 저는 인자 예 만 열아홉살래 지:가 구니내를 가가꼬 오:년간 군대생활 형깨  
인자 수무사리 되야짜요. 인자 재 가는 군대갈 때가요. (저는 이제 예 만 열  
아홉 살에 제가 군인을 가 가지고 오 년간 군대생활 하니까 이제 스무 살이  
됐지요. 이제 재 가는 군대갈 때예요.)

@ 음 (음)

- # 인자 마:느로 안허고 인자 현:나이로요. (이제 만으로 안 하고 이제 현 나이  
로요.) 《보성: 68~69》

- ㅁ. # 지금 두:째 동상도 서울씨 산:디 느다답씨 병:나가꼬 죽꼬. 오빠도 도라가시  
고 (지금 둘째 동생도 서울에서 사는데 느닷없이 병 나가지고 죽고. 오빠도  
돌아가시고)

@ 음. (음.)

- # 그러고는 인자 또 두:째 언니가 죽 도라가시고 (그러고는 이제 또 둘째 언니  
가 돌아가시고) 《영광: 46~47》

- ㅂ. 우리는 인자 올 할무니남짜그로 어무니허고 우리 아부지허고는 인자 나허고  
그리 인자 이:꼬 그 동네에 인자 또 노인드른 멘 썩 이꼬 절른 사람드른 인자  
씩:: 가 버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할머니 비롯해서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고는 이제 나하고 그리 이제 있고, 그 동네에 이제 또 노인들은 몇씩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썩 가 버리고.) 《광양: 20~21》

(50ㄱ, ㄴ)은 교정의 예로, 이들 예문에서는 각각 ‘떡→쌀’, ‘나→우리’로 발화의 수정  
이 이루어지고 있다. (50ㄷ, ㄹ)은 부연의 예로, (50ㄷ)에서는 곡식을 타작하는 일을 뜻



하는 ‘가상치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50ㄷ)에서는 화자가 스무 살일 때 막 군에 입대했을 때였으며, 만 나이가 아닌 세는나이라는 부가적인 정보를 말하고 있다. (50口, ㄷ)은 열거에 관한 예에 해당하는데, (50口)에서는 지금까지 사망한 화자의 가족을 발화에 나열하고 있다. (50ㄷ)에서는 화자의 가족 구성원 및 마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예문에서는 모두 열거의 마지막 순서에 ‘인자’가 실현되는 특징을 지닌다<sup>87)</sup>.

(50)에서 제시한 하위 기능은 모두 ‘인자’가 담화 표지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시간 부사로서의 어휘적 의미가 탈색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의 경우 발화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데에 선행 발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발화된 뒷말의 내용이 선행 발화의 내용에서 변화된 것임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선행하는 것과 후행하는 것에 의미적 관련성이 없는 교정의 경우가 그러한 한편, 부연과 열거의 경우 앞선 이야기와 뒤따르는 이야기가 의미적으로 별 차이 없이 같은 맥락 속에서 전개된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한 예 모두 시간적인 인과 관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인자’가 발언권 유지를 위한 담화 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발화 내용 강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기능은 ‘인자’가 발화 시점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그 예는 아래와 같다.

- (51) ㄱ. @ 보메는 머 어떻 게 이꼬 머 (봄에는 뭐 어떤 것이 있고 뭐)  
     # 보메는 인자 상추가통 건 (봄에는 이제 상추 같은 것.) 《영암: 382~383》
- ㄴ. @ 그럼 무슨 생선이나 이렇 거또 미리 사다 (그럼 무슨 생선이나 이런 것도 미리 사다)  
     # 인자 생선 가통거슨 미리서 안 사제, 생선가통거슨. (이제 생선 같은 것은 미리 안 사지, 생선 같은 것은.) 《영광: 68~69》
- ㄷ. 그래가꼬 인자 멩주도 마찬가지로 그러케 쌀:마가지고 소테다 매: 쌀마가지고 이케가꼬 그러케 해나뿌면 인자, 막 보들보들:허니 썩멩주가 막 빠:빠등거시 보들보들:해지쥌. (그래가지고 이제 멩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삶아가지고 술에다 아주 폭 삶아가지고 익혀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면 이제 막 보들보들하게 썩멩주가 막 뻗뻗한 것이 보들보들해지쥌) 《곡성: 66~67》

87) 이는 이기갑(2018: 201)에서 절대적인 제약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발언권 유지를 위한 다른 메음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 일종의 마무리 구조로 실현된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51ㄱ)에서는 ‘상추’, (51ㄴ)에서는 ‘생선 가튼것(생선 같은 것)’으로 사물을 강조하는 반면, (51ㄷ)에서는 강조의 담화 표지 ‘막’에 선행하여 후행 발화를 더욱 부각하고 있다. 이 기능은 ‘이제’가 어휘적으로 발화 당시를 가리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그냥’과 ‘마구’, 그리고 후술할 ‘조금’과는 달리 후행 발화 내용을 강조하는 정도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제’가 어떠한 사태의 변화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태, 즉 담화의 차원에서는 선행 발화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제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51ㄱ, ㄴ)에서는 제보자의 응답 이전에 조사자의 발화가 나타나 있고, (51ㄷ)에서는 ‘인자’의 앞에 ‘그러케 해나뿌면(그렇게 해 놔버리면)’이라는 선행 발화를 대응하는 말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화제에 관련된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52) ㄱ. 인자 그렇 거 인자 허고 나무 인자 또 하린 인제 또 업짜 무슨 수월허문 인자, 우리 씨어머니는 바느질을 모:대. (이제 그런 것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또 하루는 이제 또 없으면 무슨 수월하면 이제, 우리 시어머니는 바느질을 못해.)

《광양: 368~369》

ㄴ. 탄데도 잘 앙 가 붕께 모르고쏘야, 잘. 인자 저 쓰이 거 서:레 그를 떼는 인자 바메 우들 크네기 떼는 인자 사:람 주극:뜯지 안 죽뜯지 마당에다 머 차라 논 사람 이씨라우. (탄 데도 잘 안 가 보니까 모르겠소 잘. 이제 저 그 설에 그런 때는 이제 밤에 우리들 처녀 때는 이제 사람 죽든지 안 죽든지 마당에다 뭐 차려놓는 사람 있어요.)

《2013보고서-신안: 236》

ㄷ. 석:딸 열흘가늘 홀:려늘 바든 그 과:정이 이:루 말혈쑤음씨 고초가 심:해씨꼬 잘못흐면 뚜두래패고 인자 거 분대에서도 먼 문:헌디 도:니 모:지렇게 도:늘 거더라 문:헌디 또 도:니 업:쌍께 도:늘 거더라 그러므뇨 (석달 열흘간을 혼련을 받은 그 과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초가 심해 가지고 잘못하면 두드려 패고 이제 그 분대에서도 무슨 뭐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걷어라 뭐 하는데 또 돈이 없으니까 돈을 걷어라 그러면요)

《보성: 444~445》

(52ㄱ)에서는 ‘인자’를 경계로 화자의 하루 일과 가운데 바느질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어머니가 바느질을 못 한다는 화자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되었다. 한편 (52ㄴ)의 화자는 다른 곳에서 곳을 한 것을 본 적은 없어 잘 모르겠으나, ‘인자’ 뒤에 화자가

젊었을 적에 설날 밤마다 마당에 죽은 사람을 위한 상을 차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  
 기가 이어지고 있다. (52ㄷ)은 화자의 군 생활에서 겪은 고초에 관한 이야기로, 훈련  
 과정에서 구타를 겪은 경험에 대한 발화가 이어지다가 분대에서 돈을 걷은 당시의 부  
 조리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 예문 모두 기존에 지속되던 화제와 관련한 선행 발  
 화와는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만 (52ㄷ)의 경우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 모두 군 생활에서 겪은 고초를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화제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화제 전환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인자’에 상응하는 담화 표지로 ‘시방’이 있다. ‘시방’은 ‘지금’에 대응되는 부  
 사로, 담화 기능은 ‘이제’와 유사하다. 전사 자료에서 ‘시방’은 ‘인자’에 비하여 적은 빈  
 도로 실현되며, 담화 기능보다는 시간 부사의 의미가 더욱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시방’은 ‘인자’보다 담화 표지로서의 발달이 더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시  
 방’의 예는 아래 (53)에 제시하였는데, (53ㄱ)은 ‘시간 벌기’, (53ㄴ)은 ‘발화 내용 강조’,  
 (53ㄷ)은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에 관한 것이다.

(53) ㄱ. 그렇거이 이꼬도 시방 인자 나마가꼬 저저그 시방 멍:배운 그렇 거는 저딴 나  
 농쏘게다 여:노코 채리 봐요. 인자 나 주금 때 되문 인자 가따 내:빼리등가 어  
 쩌등가. (그런 것이 입고도 시방 이제 남아가지고 저 저기 시방 무명 그런 것  
 은 \*\* 내 농 속에다 넣어 놓고 쳐다봐요. 이제 나 죽으면 때 되면 이제 가져  
 다 내버리든지 어찌든지.) 《광양: 48~49》

ㄴ. #1 시방 엔:나링께 (시방 옛날이니까)

#2 엔:나링가 동치 지여다 막 둘::냥 (옛날이니까 동 지어다 막 \*\*)

《영암: 222~223》

ㄷ. 우리 친정 똥네서도 이불 아네가꼬 시지본 사람 인는디라우. 요 요:리 시집간  
 는디 시방. 그레가꼬 삼:도 즈그도 이불 사 허고 다 그러고 사:는디 (우리 친  
 정 동네서도 이불 안 해가지고 시집온 사람 있는데요. 이 이리 시집갔는데 시  
 방 그레가지고 살면서도 저희도 이불 사 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영광: 62~65》

### 2.3.7. ‘죵/잔(죵금)’

‘죵/잔’의 증양어형 ‘죵금’은 일반적으로 대상의 수량 및 분량이 적음을 뜻하며, 시간적으로 짧음을 의미하는 정상 부사이다. 담화 표지 ‘죵/잔’은 증양어뿐 아니라 전남 방언에서도 축약형인 ‘죵’이나 ‘죵’이 압도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전남의 남부 지역에서는 ‘잔’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각 지역어에 따른 ‘죵/잔’의 변이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2> 담화 표지 ‘죵/잔(죵금)’의 지역별 변이형

증양어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죵금 (죵)	죵/죵	죵/죵 잔	죵/죵 잔	죵/죵 잔	죵/죵 잔	죵/죵 잔	죵/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죵/잔’은 ‘양적으로 적음’과 ‘시간적으로 짧음’의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물질적인 것에서 시간적인 것으로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부사 ‘죵금’이 담화 표지로 발달하게 되면 ‘대수롭지 않음’을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를 지니게 되어 담화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담화 표지 ‘죵’의 기능은 다음에 제시하였다.

<표 33> 담화 표지 ‘죵/잔(죵금)’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별기	
	완곡한 발화 표현	-	요청 화행에서 실현됨
	발화 내용 강조	-	발화 내 선행 요소와 휴지 없이 결합하여 선행 요소를 강조함

먼저 발언권 유지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죵/잔’ 또한 다른 담

화 표지와 다른 것 없이 화자가 할 말을 생각할 시간을 마련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은 ‘시간적으로 짧음’을 나타내는 어휘적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54ㄱ)에서는 ‘좁’이 단독으로, (54ㄴ)에서는 ‘좁’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54ㄷ)은 ‘좁’과 같은 기능을 하는 담화 표지 ‘인자’와 함께 실현된 예이다.

(54) ㄱ. 쪼개 덜: 뜨면 또 인자 좁 마시 좁 적:꼬, 거 띄우는 데 가서 인자 거 거 시간 쪼그로 아마 그렇거 가태요. (조금 덜 띄우면 또 이제 좁 맛이 좁 적고, 거 띄우는 데 가서 이제 그 그 시간적으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곡성: 144~145》

ㄴ. 잘못했네 잘했네 그러고, 그래 가꼬 또 넘 바느질: 잘 허는 사람한테 해 옹건 허고 나 험건허고 좁 나: 형 거이 솜씨가 조 좁 앙 구계 구즈면 또 썩:썩 뜨더 뿌리요. (잘못했네 잘했네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남 바느질 잘 하는 사람한테 해 온 것하고 내가 한 것하고 좁 내가 한 것이 솜씨가 좁 좁 굿게 굿으면 또 썩 쥐어뜯어 버려요.)

《광양: 372~373》

ㄷ. 근디 인자 좁 (인)자 도:구통보덤 적:찌요. (그런데 이제 좁 이제 절구통보다 작지요.)

《보성: 252~253》

다음으로 ‘완곡한 발화 표현’은 화자가 상대방에게 명령이나 부탁 및 제안을 할 때, ‘좁’을 사용하여 자신의 발화 내용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청자에게 가해질 부담을 사전에 덜게 하는 것이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공손 및 완화의 기능<sup>88)</sup>과 일치하며, 전사 자료에서는 주로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수행할 것을 완곡하게 요구하는 발화가 주를 이룬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55) ㄱ. 우리 메느리드리 오면 짚차주께 다물레 그러면 어머니 짚차주라고만 해도 어머니맹킬로 모:땅꺼따고 그래요. (우리 며느리들이 오면 ‘가르쳐 줄게 담글래?’ 그러면 ‘어머니 좁 가르쳐 달라고만 해도 어머니처럼 못 담그겠다’고 그래요.)

《진도: 208~209》

88) 이 기능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것으로는 ‘공손(손세모듈, 1988, 송인성·신지영, 2014, 장경현, 2016)’, ‘요청(목정수, 2001)’, ‘공손 및 완화(주경희, 2004)’, ‘중요성의 약화(구종남, 1998)’, ‘정중하게 말하기(안주호, 2009, 2010)’, 주장 약화(안주호, 2009, 2010, 송인성·신지영, 2014), 완화(안정아, 2015), ‘부탁 및 제안(조민정, 2015b)’가 있다.

- 나. 손지드리 어 함무니 이야기 잔 나는 이야기도 업씨야. (손자들이 어 할머니 이야기 줄 나는 이야기도 없어.) 《영암: 194~195》
- 다. 거래가꼬 우리 여 지닐며네 사라는디 거 우리 인자 아저씨가 거그야 인자 이 썩개로 우리 어무니가 인자 거그르 차자가서 우리 아들 줄 살리도라고 그리 가서 인자 사:정을 형께 인자 갱:차레다가 여: 쥬씨. (그레가지고 우리 이 진월 면에 살았는데 그 우리 이제 아저씨가 거기에 이제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거기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 줄 살려달라고 그리 가서 이제 사정을 하니까 이제 경찰에다가 넣어 주었어.) 《광양: 40~41》
- 르. 그렇게 이거시 기양 서:라내 기양 부자덜한테 가서 장:이 잔 주씨요 곡씩 잔 주씨요 머: 쫘 품씩 잔 주씨요 요른 지서리가 허다해씨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설 안에 그냥 부자들한테 가서 “장리 줄 주씨요, 곡식 줄 주씨요”, 뭐 쫘 “품삷 줄 주씨요” 이런 짓거리가 허다했어요.) 《보성: 350~351》

(55ㄱ, ㄴ)은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기를 부탁하는 예로, (55ㄱ)에서는 며느리들이 화자에게 막걸리 담그는 법을, (55ㄴ)에서는 손자들이 화자에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에 ‘쫘’이 실현되었다. 한편 (55ㄷ, ㄹ)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수행할 것을 완곡하게 당부하는 것에 해당한다. (55ㄷ)에서는 화자의 어머니가 정치인인 외사촌에게 아들의 입대를 막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며, (55ㄹ)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마을 부자에게 ‘장:이(장리)’, ‘곡식’, ‘품삷’을 구걸하는 데에서 ‘잔’이 총 세 차례 나타난다.

이외에도 위 기능은 어떠한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혹은 사실성 여부가 불투명한 이야기와 같이 화자가 꺼내기 곤란한 말을 잇기 전에 실현되어 발화를 부드럽게 예두르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다음에 열거한 예들은 모두 그러한 것에 해당하는데, (56ㄱ)에서는 올케가 친정에서 가난하게 살았다는 말하기 곤란한 사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쫘’이 실현되었다. 한편 (56ㄴ, ㄷ)에서는 각각 인물과 상황에 대한 부정적 추측이 드러난 예로, 화자의 발화에 드러난 강한 태도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

- (56) ㄱ. 허능 거이라고, 우리 올케르 열 딸 인자 어매다 엄:는 사라를 우리 친정에도 줄 업:씨 사라씨요. (하는 것이라고, 우리 올케를 열 딸 이제 엄마 없는 사람을 우리 친정에도 줄 없이 살았어요.) 《광양: 350~351》

- 나. 나코 짤 바람도 피:거꼬 보기에가 그러쿠 생기뜨라. (나중에 줄 바람도 피우겠고 보기에 그렇게 생겼더라.) 《2012보고서-신안: 24》
- 다. 나 일치거니 나감서러 저 돈:가꼬강께 줄 무살꺼라 헤뜨이 “네가 먼: 도니 인는지 알건나 누가?” 그러고는 (나 일찍이 나가면서 저 돈 가지고 가니까 줄 무서울 것이라 했더니 “내가 무슨 돈이 있는 줄 알겠니? 누가?” 그러고) 《2012보고서-신안: 101》

마지막으로 ‘발화 내용 강조’는 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화 내용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키려는 의도에서 나타난다. 안주호(2009: 108)에 따르면 ‘좀’이 선행하는 항목과 휴지 없이 결합하여 선행하는 대상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점에서, 일반적으로 후행 발화 내용을 강조하는 다른 담화 표지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한 예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 (57) 가. 우리 어머니미 나를 이케 조아해 저거 짤 바라 느그 성이~른 저러케 자미 온다. (우리 어머니미 나를 이렇게 좋아해. 저것 줄 바라 너희 형님이 저렇게 잠이 온다.) 《진도: 154~155》
- 나. 살리미 줄 재:일 부진해요. (살림이 줄 제일 부진해요.) 《보성: 114~115》
- 다. 그놈 어더무글라고 모다 거시거제 술빤 줄 (그것 얻어먹으려고 모두 거식하지. 술빤 줄) 《영광: 266~267》

(57가)에서는 화자의 형님이 즐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저거(저것)’ 뒤에, (57나)에서는 ‘살리미(살림이)’ 뒤에, (57다)에서는 ‘술빤(술밥)’ 뒤에 ‘좀/잔’이 결합하여 선행하는 대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조금’의 의미가 ‘수량이나 분량이 적음’ 혹은 ‘대수롭지 않은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강조와는 연관이 없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안주호(2009)에서는 다른 것을 약화시킴으로써 강조하고자 하는 것만 부각하기 때문에 ‘조금’에서 강조의 기능이 파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89)</sup>. 즉 발화 내에서 다른 요소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좀/잔’과 결합하는 선행 요소만을 상대

89) 이러한 견해는 목정수(2001)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좀’이 선행하는 대상과 휴지 없이 결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서 ‘좀’이 문법화를 통하여 한정 조사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한정 조사는 ‘는’, ‘가’ 등과 같이 앞말을 강조하는 보조사와 같은 것으로, 그 기제는 양적인 차원에서 피수식 요소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조금’의 어휘적 의미와 다소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적으로 두드러지게 한다는 것이다.

### 2.3.8. ‘야튼/하이튼(하여튼)’

‘야튼/하이튼’의 중앙어형인 ‘하여튼’은 본말인 ‘하여하든’이 줄어든 말로, ‘어떠하든’과 대응되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부사로서는 ‘아무튼’과 동의어로 쓰인다. 전남 방언에서는 ‘하이튼’으로 실현되기도 하나, 첫 음절이 탈락한 ‘야튼’으로도 실현된다. ‘야튼’의 경우 ‘하여튼’의 첫 음절 ‘하’가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야튼/하여튼’의 지역별 변이형은 다음과 같다.

<표 34> 담화 표지 ‘야튼/하이튼(하여튼)’의 지역별 변이형

중앙어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하여튼	야튼	야튼	야튼 하이튼 하여튼	하튼 아이튼	야튼	하이튼	하여튼 가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야튼/하이튼’을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하여튼’은 ‘선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혹은 무관하게’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담화 안에서 선행하는 화제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전환 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러한 기능에서 더 나아가 화자에게 뒷말을 생각할 시간을 벌게 해 주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방언 담화에서 나타나는 ‘야튼’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담화 표지 ‘야튼/하이튼(하여튼)’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화제 복귀	
	화제 종결	-	발화의 끝 부분에 실현됨

먼저 ‘발화 책략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이 범주에서는 ‘시간 벌기’의 하위 기능만을 수행한다. 아래 (58)에 제시한 예는 모두 ‘야튼’이 발화 내에서 단독으로 실현되었는데, 세 예문 모두 후행 발화를 준비할 여유를 마련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 (58) ㄱ. 그때 송구머는 야튼 한: 한달포 이씨야 나능가 한 이씨빌 이씨야 나올꺼 까씨요. 미영씨가 얼릉 만나거든뇨 더디 나요. (그때 심으면 하여튼 한 한 달포 있어야 나능가 한 이십일 있어야 나올 거예요. 목화씨가 얼른 안 나가거든요 더디 나요 ) 《곡성: 18~19》
- ㄴ. 짜:그 저 호:박, 호:박또 야:튼 이녀쩍씨 송굴라문 송구고, (저기 저 호박, 호박도 하여튼 자기 집에서 심으려면 심고,) 《영암》
- ㄷ. 상에 놀로문 야튼 찹쌀로 시리떡 함미다. (상에 놓으려면 하여튼 찹쌀로 시루떡 합니다.) 《2012보고서-진도: 228》

다음으로 ‘화제 전환’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기능에서는 ‘하이튼/야튼’이 본래 전환의 의미를 지니는 것과 관련, ‘선·후행 발화 간 전환’과 ‘화제 복귀’의 하위 기능이 모두 나타난다. 전자의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 (59) # 그래 인잔 서방이라고 인자 땡김서 그렇 곁 해 가꼬 그 지블 자버 가꼬 인자 계:들고 계:나:나따나 노니 안 너머 강께 살:거떼요. 또 배가 고파 어찌 사꼬 시퍼서. (그래 이제 서방이라고 이제 다니면서 그런 곁 해가지고 그 집을 잡아가지고 이제 기어 들고 기어나가더라도 논이 안 넘어 가니까 살겠데요. 또 배가 고파 어찌 살꼬 싶어서,)

@ 음. (음.)

# 가:뜰 그녀네 인잔 이사는 오기는 인자 오두막 찌비로 이노뎨 똥네로 오기는 완  
 는디 금녀네 농사 징: 걸 가꼬 점:분 매상을 하고 인잔 북떼기 인자 홀테로 그  
 때 홀터 농께 인자 가장가리 그렇 거 인자 북떼기가 인는다 그거 뜰게로 한: 서  
 미 곧 싹:: 인잔 나무치는 매상을 해 빠리고 인자 빈 까과 뿌리고 그 항 가마이  
 를 한 서를 찌이가꼬 무꼬 낭께롬 머 얼마나 똥능가. (하여튼 그해에 이제 이사  
 는 오기는 이제 오두막집으로 이놈의 동네로 오기는 왔는데, 금년에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전부 매상을 하고 이제 북떼기 이제 탈곡기로 그때 타작해 놓으니까  
 이제 '가장가리' 그런 것 이제 북떼기가 있는데 그것 뜨니까 한 섬이 곧 싹 이  
 제 나머지는 매상을 해버리고 이제 빗 갠아버리고, 그 한 가마니를 한 섬을 찢  
 어가지고 먹고 나니까 뭐 얼마나 먹는지.) 《광양: 100~101》

(59)는 제보자의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 발췌한 것이다. 이 예문에서는 ‘가:뜰’을 경계로 화자 내외의 분가와 관련된 선행 발화 이후, 빗을 갠으며 생활하는 다른 화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아:뜰’의 화제 전환 기능은 기존의 화제와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막고 다시 본래의 화제로 돌아가려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sup>90)</sup>. 이는 ‘화제 복귀’에 관한 것으로, 그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60) # 박정이가 그레똥가 응 박정이가 그레써. 박정이가 그레따허등구 근디 경상도 그  
 쪼근 그르케 심:하게 안 허고 여그 여그만 그르코 해:따 그러등만. 미야라고. (박  
 정희가 그렸던가 응 박정희가 그렸어. 박정희가 그랬다고 하더구먼. 그런데 경  
 상도 그쪽은 그렇게 심하게 안 하고 여기 여기만 그렇게 했다 그러더구먼. 미워  
 라고.)

@ (웃음)

# 그레가꼬 여가 그 수:가 고러고 적:따 허드마. (그레 가지고 여기가 그 수가 그  
 령게 적다 하더구먼.)

@ 에이 그러 그러 그러지를 양코 여긴짜람드리 서우리나 이런 디로 마:니 (에이,  
 그럴그러 그러지를 양고 여기 사람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로 많이)

# 그라고도 인자 사리 인는 사람 나가부리고 (그리고도 이제 사람이 있는 사람 나  
 가 버리고)

90) 김상훈(2013) 또한 ‘하여튼’의 담화 기능으로 ‘화제 복귀’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화제 복귀’를 화자가 하려던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자신의 발화를 지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는 ‘시간 벌기’와 가깝기 때문에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 나가 부리쨌. (나가 버렸지.)

# 그때 짐::하게 아조 해서. 아튼 예:기 몬:나케. (그때 심하게 아주 했어. 하여튼 아기 못 낳게.)

《영광: 320~323》

(60)은 전라도 지역의 농촌 인구가 왜 적은가에 관한 이야기로, 제보자는 그 원인을 1960년대에 시행된 가족계획정책이 유독 전라도 지역에만 엄격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자는 그것이 아니라 이촌향도 현상 때문임을 언급함으로써 다른 화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후 제보자의 마지막 발화에서 발화 중간에 ‘아튼(하여튼)’이 실현됨으로써 가족계획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화제가 바뀌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가족계획정책 → 이촌향도 현상 → 가족계획정책’의 순서대로 화제가 전환된다. 결국 전라도의 농촌 인구가 적은 이유는 결국 가족계획정책이 전라도 지역에만 엄격하게 적용된 탓이라는 제보자의 믿음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제 종결’은 기존의 화제와 관련된 발화를 마무리하고 다음 화제를 유도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화자가 더 이상 할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더 할 말이 없어 발화를 종결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표시하며, 일반적으로는 발화의 끝에 실현된다. 그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61) ㄱ. 날짜가 고려고 나똥가 어쩐능가 모르거쨌요 아튼. (날짜가 그렇게 낫던가 어쩐능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영광: 320~323》

ㄴ. 그레가꼬 쪼간 찌여가꼬는 또 치로 까불라가꼬 또 찌:코. 그러케 해서 바블헤:머꼬 사라쨌니다, 야:튼. (그레가지고 조금 찢어 가지고는 또 키로 까불러가지고 또 찢고. 그렇게 해서 밥을 해먹고 살았쨌니다, 하여튼.) 《진도: 32~33》

(61ㄱ)에서는 화자가 말하려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주저하다가 발화를 급히 끝맺고 있다. (61ㄴ)은 벼를 손수 정미하는 과정을 나열하는 이야기로, 이 예문에 실현된 ‘야튼’은 화자가 진행 중인 화제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음을 나타냄으로써 화제를 마무리한다.

## 2.4. 감탄사 기원형

감탄사에서 기원한 담화 표지는 ‘그래’, ‘글쎄’, ‘아/어’, ‘아니’, ‘아무렴’, ‘응/예’가 있다. 이 가운데 감정감탄사에 속하는 것은 ‘아/어’가 있으며, 그 외에 감탄사는 모두 의지감탄사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의지감탄사는 모두 응답어에 속하는데, ‘그래’, ‘아무렴’은 긍정의 뜻을 나타낸다. 한편 ‘아니’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응답어이며, ‘글쎄’는 화자의 불명확한 태도를 나타내는 응답어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탄사가 화자의 감정 및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유형에 속하는 형태들이 담화 내에서 맥락에 따라 여러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본 항에서는 전남 방언에 나타난 감탄사 기원형 담화 표지의 특성 및 담화 기능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 2.4.1. ‘그래’

‘그래’는 감탄사로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요청이나 질문에 긍정의 뜻을 나타내는 응답어로 쓰이며, 이외에도 가벼운 놀람을 표현하거나 화자의 말을 강조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전사 자료에서는 선후행 발화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그러하여’의 준말로도 사용되는 예가 다수 나타나기도 한다<sup>91)</sup>. 이는 선행하는 문장이나 발화를 대응하는 표현에서 시작되어 감탄사로서 상대방의 말에 대한 긍정의 응답어로 발달함에 따라 상대방의 발화를 수용하여 긍정의 뜻을 나타내거나 말할 내용을 강조하는 용법으로 발달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담화 표지 ‘그래’ 또한 이러한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남 방언에서는 ‘그래’가 모두 중양어형 ‘그래’로 실현된다. 앞에서 설명한 특징에 따른 ‘그래’의 담화 기능은 다음과 같다.

91) 이때의 ‘그래’는 선후행 발화를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접속부사로, 이한규(199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자의 평가적 태도와 관련한 인과 관계가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인과 관계라는 점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표 36> 담화 표지 ‘그래’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부연	
	발화 내용 강조	-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먼저 ‘발화 책략 기능’ 가운데 ‘발언권 유지’의 경우 ‘부연’의 기능만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한규(1996)에서 ‘시간 벌기’ 기능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전사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연’은 ‘시간 벌기’와 성격상 다소 차이를 보일 뿐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지속할 것임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특성은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 벌기’의 예를 제시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본다. 또한 ‘발화 내용 강조’는 이한규(1996)에서 제시한 ‘그래’의 기본 의미인 ‘선행하는 것이 받아들여질만 함’에 미루어 보면, 화자가 상대방의 발화를 수용하여 ‘그래’가 말할 내용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의 두 가지 담화 기능에 대한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62) ㄱ. 다찬수 소:룩또로 보내버려제. 고흥으로. 소:룩또로. 전:수 그런 그때부터 읍:씨 저씨. 그래 그놈 자버머금서부터. (다 전부 소룩도로 보내버렸지. 고흥으로 소룩도로. 전부 그런 그때부터 없어졌어. 그래 그놈 잡아먹으면서부터.)

《영광: 468~469》

ㄴ. #1 그랑께 그 냥바니 요:랭이 이쨌께 그래. (그러니까 그 양반이 요령이 있으니까 그래.)

#2 나는 그랑께 궁:꼬 머:다고 그라도 아네씨. 그라디, (나는 그러니까 굶고 뭐하고 그러지도 안 했어. 그런데.)

#1 그래, 그냥바니 요:랭이 이쨌께 그라제. (그래, 그분이 요령이 있으니까 그령지.)

《영암: 134~135》

(62ㄱ)은 발언권 유지에 관한 예로, 화자가 사는 지역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소룩도로 가 버리게 되어 없어졌다는 내용이다. 이 예문에서 ‘그래’의 후행 발화는 선행 발화

의 원인에 해당하는바, 앞선 발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루어졌다. (62ㄴ)에서는 보조 제보자의 순위 동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제보자가 ‘형님(보조 제보자의 순위 동서)이 요령이 있으니까 굶지 않고 편하게 살았다’는 자신의 발화를 후행 발화에서 반복하여 ‘그래’로써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화제 전환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기능과 관련하여 이한규(1996: 15)에서는 선행 발화에서 다루어진 화제가 화자에게 충분히 수용되었음을 함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화자의 입장에서 선행 화제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충분히 달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화제를 시작해도 되겠다는 화자의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63) # 인자 고노미 여:물뜨러야 미영이 텀니다. 여무리 드러야. 그라이~까 여물 드러 분 노른 몸:무거요. 여무리 안튼노미테사 먹찌. (이제 그것이 여물어야 목화가 됩니다. 여물어야. 그러니까 여물어 버린 것은 못 먹어요. 여물지 않는 것이어야 먹지.)

@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 그래, 교:수님도 고거 따: 잡싸봐쏘? (그래, 교수님도 그거 따서 잡쉬 봤소?)

@ 예, 어려쓸 때 달짝찌근헤써요. (예, 어렸을 때 달착지근했어요.)

《진도: 142~143》

(63)은 다래에 관한 이야기로, 제보자의 첫 번째 발화에서 다래가 여물어야 목화가 되고, 다래가 여물지 않아야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한편 두 번째 발화에서는 조사자에게 다래를 먹어본 적 있느냐고 질문하는 내용으로, 이는 이전에 진행되던 화제와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4.2. ‘글씨/크메(글쎄)’

‘글씨/크메’의 표준어형인 ‘글쎄’는 화자의 불확실한 태도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태도를 강조, 혹은 고집하는 데에 사용되는 감탄사이다. ‘글쎄’의 어원은 불분명하나, 이상신(2014)에서는 ‘그러하다’의 어간에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르씨’가 결합한 활용형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글쎄’는 용언의 활용형이

부사가 된 이후 감탄사로, 감탄사에서 다시 담화 표지로 발달하였음을 시사한다.

담화 표지 ‘글쎄’는 전남 방언에서 중양어형뿐 아니라 ‘글씨’, ‘클쎄’, ‘크메<sup>92)</sup>’의 형태로도 실현되며,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나 ‘-요’와 같이 종결어미의 활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다음은 지역어에 따른 ‘글쎄’의 변이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 37> 담화 표지 ‘글씨/크메(글쎄)’의 지역별 변이형**

중양어 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글쎄	글씨 크메	글쎄 클쎄	-	-	-	-	-

‘글쎄/크메’는 화자의 불명확한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러한 태도가 자신의 발화에 적용되느냐, 상대방의 발화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지닌다. 전사 자료에서 나타난 ‘글씨/크메’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 담화 표지 ‘글씨/크메(글쎄)’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발언권 가져오기	-	
	발화 내용 강조	-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태도 관련 기능	부정적 태도	반박	

92) 해당 형태는 곡성 지역의 전사 자료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기갑(2007b: 104)에서는 이 형태뿐 아니라 전남 지역에서 ‘금메’, ‘큼메’, ‘글메’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형태는 같은 의미를 지닌 제주 방언의 ‘계메’와도 대응된다.

먼저 발화 책략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64) ㄱ. 아 이거 아무리 비길 수도 업꼬 땀: 수도 업꼬 아 이거 참: 크:메 머 미영베 오시나 되면 언능 주물주물 해가꼬 다시 현디 멩지 저구리 다드마가꼬 헨:는 디. (아 이거 아무리 벗길 수도 업고, 땀 수도 업고 아 이거 참, 글쎄 뭐 무명베 옷이나 되면 얼른, 주물럭주물럭해가지고 다시 하는데, 명주 저고리 다듬어 가지고 했는데.) 《곡성: 76~77》

ㄴ. #1 암:찌게도 소포싸람드리 묘:합떠다. 어찌 기 (아무래도 소포 사람들이 묘합디다.)

#2 글쎄

#1 기린 저뚜고 으비로 보낸다고, (기린 놔두고 읍으로 보낸다고.)

#2 이러케 나간 기린니가 인는다 (이렇게 가까운 기린리가 있는데),

《2012보고서-진도: 197》

ㄷ. #2 머 테:까로 고만치는 또 드봐찌라. (뭐 대가로 그만큼은 또 들어왔지요.)

#1 아, 그라제. 드로제. 드로지마는 그거또 비시여. (아, 그렇지, 들어오지. 들어오지마는 그것도 빛이야.)

#2 아이 글쎄 더 드봐찌꺼시요. (아니, 글쎄 더 들어왔을 거예요.)

《2012보고서-진도: 223~224》

(64ㄱ)은 ‘발언권 유지’ 가운데 ‘시간 벌기’에 관한 예로, 화자가 이물질이 묻은 다리미로 옷을 다리다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 예문에서 ‘크메’는 ‘뭐’와 함께 실현되어 함께 다리던 옷이 무명베 옷이었다면 이물질을 없앨 수 있었음을 가정하는 내용의 뒷말을 생각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기능을 한다. (64ㄴ)은 ‘발언권 가져오기’의 예이다. 이 예문에서 보조 제보자는 주요 제보자의 발화가 끝나기도 전에 ‘글쎄’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화를 시작할 것임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있다. (64ㄷ)은 ‘발화 내용 강조’에 관한 예로, 장례 비용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장례식에 소모한 비용만큼 돈이 들어왔을 거라는 주요 제보자의 말에 보조 제보자가 돈이 더 들어왔을 것이라고 반박하여 자신의 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글쎄’가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화제 관련 기능에서 ‘글쎄’는 ‘화제 전환’의 기능을 한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 (65) #2 여그는 이온 동네에 그케 분 어:른드리 도라가시면 거 품삯 암바드면 조커때.  
 (여기는 이웃 동네에 그렇게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그 품삯 안 받으면 좋겠데.)  
 #1 글쎄 한나페 이십 (글쎄 하나 앞에 이십) 《2012보고서-진도: 222》

(65)는 상호 대화에서 나타나는 화제 전환의 예로, 장례를 치를 때 부르는 소리꾼과 풍물패들이 품삯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보조 제보자의 의견에 주요 제보자가 소리꾼들을 부르는 데 소모되는 비용이 한 명당 20만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문에서는 무작정 진행 중이던 대화를 중단하고 다른 화제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쎄’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화제가 도입될 것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은 부정적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으로, 상대방의 발화 내용을 에둘러 반박하는 것이다. 그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 (66) @ 아이고, 어터케 무꼬 멈: 무:꼬 어:터케 무꼬 사라? (아이고 어떻게 먹고 뭐 먹고 어떻게 먹고 살아?)  
 # 글쎄요, 그라이~까 단수니 몬:저 마:라다시 소금 귀:서 (글쎄요, 그러니까 단수히 먼저 말했듯이 소금 구어서) 《진도: 46~47》

(66)에서는 조사자의 질문 다음에 제보자가 농사를 망치면 화염업(火鹽業)으로 생계를 이어갔다는 발화가 뒤따르는 데에 ‘글쎄요’가 실현되었다. 여기에서는 상대방의 발화에 직접적인 반박은 이루어지지 않는 대신, 발화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완곡한 부정성을 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자의 발화는 농업 이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바, 제보자는 이러한 조사자의 발화에 전제된 생각을 부정하고 있다.

### 2.4.3. ‘아/어’

‘아’와 ‘어’는 감탄사 가운데 감정감탄사에 속하는바, 공통적으로 화자의 놀람, 기쁨, 슬픔 등을 나타내거나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가볍게 내는 소리라는 사전적 정의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외에 ‘아’는 어떠한 사실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어’ 또한 화자의 감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어사전에서 ‘아’에만 ‘화자의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따로 제시한 것은 ‘아’가 ‘어’보다 그러한 성격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sup>93)</sup>. 이러한 점에서 담화 내에서 ‘아’가 특정 기능에서 ‘어’보다 더 많은 빈도를 보이거나, ‘아’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9> 담화 표지 ‘아/어’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아’가 더욱 우세하게 실현됨
		교정	
		부연	
	열거		
	발언권 가져오기	-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먼저 ‘발화 책략 기능’ 가운데 발언권 유지에 관한 기능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전사 자료에서는 ‘아’와 ‘어’ 모두 그 하위 기능인 교정, 부연, 열거에 대한 예가 모두 나타난다. 특히 교정과 부연의 경우, 전사 자료에서는 ‘어’보다 ‘아’가 보다 우세하게 실현되었는데, ‘아’의 의미상 화자의 깨달음의 성격이 ‘어’보다 더 강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곧

93) 이는 강우원(2002: 11)에서 ‘아’는 어떠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지각의 시점과 발화 시점이 거의 일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어’는 발화 시점보다 화자의 의도가 미치는 시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이 없다고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화자가 자신의 선행 발화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후행 발화에서 그러한 표현을 즉시 수정할 시간을 버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67) ㄱ. 저:: 진상면 청암니서 태어나 안: 저저 배:천니. (저 진상면 청암리에서 태어나 안 저저 배천리) 《광양:16~17》

ㄴ. 아 일너네 네가 살:며는 메썸 바꼬 드러간다경걸 나타날 거시야지라. 안 여 썸미면 여썸 가:사 열썸미면 열썸 그르케 바꼬 인자 드러가요. (아, 일 년에 내가 살면은 몇 섬 받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나타냈 뭐하지요. 안, 옛 썸이면 옛 섬 가령 열 섬이면 열 섬 그렇게 받고 이제 들어가요.) 《영암: 338~339》

ㄷ. 이녁또 쓰고 나무면 풀:기도 하고. 안 씨집까고 장:게 가면 또 그놈 막::오데고. 무딸:꼰 하꺼또 업:썸게. (자기도 쓰고 남으면 팔기도 하고. 안, 시집가고 장가 가면 또 그것 막 옷 하고. 뭐 다른 것 할 것도 없으니까.)

《2012보고서-신안: 63》

ㄹ. 그: 하우스에:서는 어: 인 파럴딸 어: 구월따레 요로코 요 이 머냐 요때 시무구면 대:요. 곧 곧 시무문 덴디. (그 하우스에서는 어 인 팔월 어 구월에 이렇게 요 이 뭐냐 요때 심으면 돼요. 곧 곧 심으면 되는데) 《2012보고서-곡성: 127》

ㅁ. 돈:도 그날 인자 시 떡 상에다 노코 시리헌 이따 인자 돈: 노면 돈:도 가져가고. 어 그나른 목썸가 일: 양코 수입허는 나리어. (돈도 그날 이제 시 떡 상에다 놓고 시루 한 이따 이제 돈 놓으면 돈도 가져가고. 어, 그날은 목수가 일 안 하고 수입하는 날이야.) 《영광: 402~403》

ㅂ. 새:꺼슬 주면 인자 자기 힘 단:대로, 어 주글 씨다 줄라면 주글 밀:썸글 씨다 줄라면 밀:썸글 씨다 주고, 자기 인자 떠글 해:다 주고 시푸면 떠글 해:다 주고 인자, 새:꺼슨 맘:대로 인자 술도 바다다 주고 은자 그거시 바로 새:꺼시예요. (결두리를 주면 이제 자기 힘 닿는 대로 어 죽을 썸다 주려면 죽을, 밀죽을 썸다 주려면 밀죽을 썸다 주고, 자기 이제 떡을 해다가 주고 싶으면 떡을 해다가 주고, 이제 결두리는 마음대로 이제 술도 받아다 주고 이제 그것이 바로 결두리예요.) 《보성: 366~367》

(67)에 제시된 예를 살펴보면, ‘발언권 유지’와 관련된 각각의 하위 기능에 따라 (67 ㄱ, ㄴ, ㄷ)에서는 ‘아’가, (67ㄹ, ㅁ, ㅂ)에서는 ‘어’가 실현되었다. (67 ㄱ, ㄹ)은 교정에 관한 예로, (85 ㄱ)에서는 화자의 출생지를 ‘청암리→배천리’로, (67ㄹ)에서는 하지감자를

심는 시기를 ‘8월→9월’로 고쳐 말하고 있다. (67ㄴ, ㄱ)은 부연에 관한 예로, (67ㄴ)에서는 선새경에 대한 이야기로, ‘몇 섬→여섯 섬, 열 섬’으로, (67ㄱ) ‘그 날→목수가 일을 하지 않고 수입하는 날’로 선행하는 정보를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편 (67ㄷ, ㄴ)은 열거에 관한 예로, (67ㄷ)에서는 화자가 겨우내 짜 놓은 면(棉)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가를 열거하는 데에 ‘아’가, (67ㄴ)에서는 결두리로 무엇을 것을 주는가에 관한 예를 열거할 때에 ‘어’가 실현되었다.

한편 ‘발언권 가져오기’는 화자가 상대방이 말을 하는 중간에 끼어들거나 발화가 다 끝나기도 전에 말을 가로채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이다. 이때 실현된 ‘아’와 ‘어’는 상대방의 발화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나타내며, 그 시점에 화자가 상대방의 발화 내용과 관련하여 막 떠오른 생각을 들어볼 것을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68) ㄱ. #2 무시나 상추나 머 머이나 무수 배:추 말하자면 머 상추 편넙 머이나 머 머이나 예:를 들자머는 (무나 상추나 뭐 뭐냐 배추 말하자면 상추 깻잎 뭐냐 뭐 뭐냐 예:를 들자머는)

#1 아 시금치도 이꼬, 썩까또 이꼬, 근:대도 이꼬, 또 또 썩그 썩그 썩그 머시냐 저그 저 우병도 이꼬, 썩부러썩요. 달래도 이꼬. (아 시금치도 있고 썩갯도 있고, 근대도 있고, 또 또 저기저기 저 뭐냐 저기 저 우병도 있고 썩썩요. 달래도 있고.) 《곡성: 106~107》

ㄴ. @ 앤:나래는 모 승굴라면 면: 사:람드리 그냥 (옛날에는 모 심으려면 몇 사람들이 그냥)

# 아 인자 푸마시로 이썩요. (아, 이제 품앗이도 있어요.) 《보성: 152~153》

ㄷ. #2 썩거가꼬. 그레가꼬 업:썩저부떼요. (썩어가지고. 그레가지고 없어서 버렸어요.)

@ 음: (음.)

#1 아, 언:날, 그 전 어:르신드리 그 당:산나무에서 뻐뻐뻐 소리, 하이 요걸 빠라 그라고 막 기양 비여볼고 그레따고 그레썩따다. (어, 옛날 그전 어르신들이 그 당산나무에서 뻐뻐뻐 소리, “아이고 이것 봐라.” 그러면서 막 그냥 배어 버리고 그랬다고, 그레 썩습디다.) 《영암: 24~25》

(68ㄱ, ㄴ)은 ‘아’가 실현된 예로, 선행 화자의 의도 및 발화 내용을 간과함으로써 선행 화자가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는 성격의 발화가 이어지고 있다. (68ㄱ)

에서 보조 제보자가 ‘무, 상추, 배추, 깻잎’을 나열하였으나, 이후에 더 말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 도중에 주요 제보자가 보조 제보자를 대신하여 ‘시금치, 쪽갓, 근대’를 이어 말하고 있다. (68ㄴ)에서는 조사자가 옛날에는 모를 심으려면 여러 사람이 나서야 했다는 말을 하는 도중에 제보자가 끼어들어 품앗이도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 (68ㄷ)은 ‘어’가 실현된 예로 선행 화자의 의견과는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이 예문에서 보조 제보자는 당산나무가 바람이 불어 뿌리째 넘어진 이후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썩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제보자는 당산나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마을 사람들이 베어 없었다는, 보조 제보자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제 전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아’와 ‘어’가 모두 화자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감탄사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갑작스럽게 화자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나타냄으로써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69) ㄱ. 거름 예 업니 저 거그다 나:뛰고 네가 강거시 더 안 나꺼쏘? 그릉께 안, 니가 요까지 또 아따가 또 올라올라문 우리 시어메는 안 헤라 양:꺼또. 예초에 안 해. (그럼 예 어머니 저 거기다 놔두고 내가 가는 것이 더 낫잖겠소? 그러니까, 안, 내가 여기까지 또 왔다가 또 올라오려면 우리 시어머니는 안 해요 아무 것도, 애초에 안 해.)

《2012보고서-신안: 35》

ㄴ. 그면 한:청 다널드른 인자 거그서 인자 자물 자고 거그서 인자 인자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근디, 안 하래찌녀개 인자 안 경비드른 인자 쪽:: 앤:나래는 거 점:부때마동 사:라미 한나씩 다 지켜서가꼬 점:부때를 지켜썬요. (그러면 한청 단원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거기서 이제 이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데, 안, 하루 저녁에 이제 안, 경비들은 이제 쪽 옛날에는 그 전 붓대마다 사람이 하나씩 다 지켜 서 가지고 전봇대를 지켰어요.)

《보성: 432~433》

ㄷ. 거시기인 검불 가통 거슨 따로 나오면 거시기 하고 언 미:른 또 유드끼 또 잘 빠썬니다. (거시기 검불 같은 것은 따로 나오면 거시기 하고, 언 밀은 또 유독 또 잘 빠집니다.)

《영암: 218~219》

(69ㄱ, ㄴ)은 ‘아’가 실현된 예로, (69ㄱ)에서는 화자가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인용하려다가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69ㄴ)에서는 한청 단원들의 생활

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다가 발화가 중단된 후, 전봇대를 지키는 경비에 대한 발화가 이어지고 있다. (69ㄷ)은 밀을 타작하는 과정에 대한 발화 내에 ‘어’가 실현된 예로, 김불을 골라내는 과정에서 밀을 뺏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 2.4.4. ‘아니/아이’

담화 표지 ‘아니/아이’는 본래 부정부사에서 발달한 것으로, 다시 감탄사에서 담화 표지로 발달한 것이다. 감탄사로는 부정 응답이나 놀람 혹은 의아스러움과 같은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표현하는 말로 쓰인다. 전남 방언에서는 주로 중양어형과 같이 ‘아니’를 주로 사용하나, 제2음절의 초성 /ㄴ/이 탈락된 ‘아이’로 실현되기도 한다. 각 변이형을 지역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0> 담화 표지 ‘아니/아이’의 지역별 변이형

중양어 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아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이	아니 아이	아니 아이	아니 아이	아니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니/아이’가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점에서, ‘아니/아이’의 담화 기능은 ‘부정적 태도’에 관한 기능이 기본적으로 나타남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기능에서는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반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신의 발화를 이어가는 ‘발언권 가져오기’, 혹은 ‘발화 내용 강조’와 ‘교정’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발언권 가져오기’와 ‘교정’은 화자 자신의 발화에 부정적 태도가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아니/아이’의 담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41> 담화 표지 ‘아니/아이’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교정	

	발언권 가져오기	-	
	발화 내용 강조	-	
태도 관련 기능	부정적 태도	반박	

먼저 ‘발화 책략 기능’에 관한 하위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에 제시한 예는 ‘발언권 유지’ 가운데 ‘교정’에 관한 것이다.

(70) ㄱ. 예. 결혼하자마 아니 제대하자마자 인자 결혼을 해:씨요. (예. 결혼하자마자 아니 제대하자마자 이제 결혼을 했어요.) 《보성: 68~69》

ㄴ. 그래도 저 갈치 아니 조구 물린 건 갈치 찢자랑 건 그거슨 무거라우. (그래도 저 갈치 아니 조기 말린 것 갈치 자잘한 것 그것은 먹어요.)

《2012보고서-신안: 21》

ㄷ. @ 고거또 나물 해:무거요? (그것도 나물 해 먹어요?)

# 예, 빼뿌쟁이. 아니. 빼뿌쟁이는 나물 해몽는 거시 아이라 그거시 머:따 약초를 쓴다 허드만. (예, 질경이. 아니, 질경이는 나물 해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뒤에 약초를 쓴다고 하더구먼.) 《영광: 226~227》

(70ㄱ)에서는 화자의 결혼 시기가 ‘결혼 직후→제대 직후’로, (70ㄴ)에서는 ‘갈치→조기’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70ㄷ)에서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응답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질경이를 나물이 아닌 약재로 쓰는 것이라 고쳐 말하고 있다. 이는 선행 표현을 즉각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화자의 의도가 반영된 메움말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발언권 가져오기’는 다른 화자가 발화를 진행하는 도중, 혹은 발화를 거의 끝내는 시점에서 화자가 상대방에게서 발언권을 가져오는 기능이다<sup>94)</sup>. 다시 말하면 이는 담화의 주도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그 예는 아래와 같다.

(71) ㄱ. @ 저네 여기 저:수지말고 그면 (전에 여기 저수지 말고 그러면)

94) 이한규(2012: 165)에서는 해당 기능에 관하여 상대의 발화를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그것과 다른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 그것을 적절하게 얘기할 상황이 지금이라는 시기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발언권 가져오기로 발생할 수 있는 체면 손상을 줄여보려는 전략이라 언급하였다.

- # 아니 인자 그때는 거그만 이씨씨. 여기는 오:꼬. (아니, 이제 그때는 거기만 있었어. 여기는 없고.) 《2012보고서-신안: 53》
- 나. # 지그른 저 나이롱이 업:쓱개 글때는 지부로 해:쨌. (지금은 저 나일론이 없으니까 그때는 짚으로 했지.)
- #2 아니 그러니까 그거시 시방도 거 마:니 현 사람드른 그 전:통을 마라자면 그거시 인자 거시기가 웨야가꼬, 시방도 꼭 지페다가 깔고 띄우고 또 지푸로 영꺼서 달고 인자 그거시 이 인자 거시기고 인자 장:을 당근 나를 바다 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도 그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전통을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뭐가 돼가지고, 지금도 꼭 짚에다가 깔고 띄우고 또 짚으로 엮어서 달고 이제 그것이 이 이제 뭐고, 이제 장을 담그는 날을 받았지.) 《곡성: 142~143》
- ㄷ. @2 사기 박끄럭 보더니 쫘 사쓰면 하던데 (사기 밥그릇 보더니 쫘 샐으면 하던데.)
- @ 먼 사기 박끄러글 다 사? 무::슨 그르슬? (무슨 사기 밥그릇을 다 사? 무슨 그릇을?)
- @2 그:리고 십따고. 그:림 그리는 애라. (그리고 싶다고. 그림 그리는 애라.)
- # 아니, 그렇거 모다 거식현 사람더른 절른 사람더른 다 귀쨌다가 나:두고 그레. 모다 엔:날꺼슬. 나도 너무가 도라게싸서 쥐:뿌리고 그레쨌. (아니, 그런 것 모두 거식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다 \*\*에다 놔 두고 그레. 모두 옛날 것을. 나도 남이 달라고 해 대서 쥐 버리고 그랬어.) 《영광: 204~205》

(71ㄱ)에서는 저수지가 다른 곳에 더 있냐는 조사자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제보자가 다른 저수지는 없었다는 발화를 함으로써 담화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제보자가 조사자의 발화 의도를 일정 부분 이해하였음을 전제한다. (71ㄴ)에서는 보조 제보자가 된장을 담그는 법에 관한 주요 제보자의 설명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가져온 것이다. 이 예문에서는 보조 제보자가 주요 제보자보다 된장 담그는 법에 관하여 더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발언권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71ㄷ)은 두 조사자의 대화에 제보자가 끼어들고 있는 예이다. 이 예문에서는 조사자들의 사기 그릇에 관한 이야기에 관하여 제보자 또한 그와 관련된 경험이 있음을 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발화 내용 강조’의 경우, ‘아니’가 지닌 부정적 의미가 긍정적인 뜻보다는 더욱 유효적이기 때문에 강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sup>95)</sup>. 다음에 제시한 (72)가 그



러한 예로, (72ㄱ)에서는 화자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72ㄴ)에서는 당시 병원이 부유한 사람들만 갈 수 있었던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72) ㄱ. 아니 차마리에요. (아니. 정말이에요.) 《2013보고서-영암: 113》

ㄴ. 아:면. 병원::은 업쓰니 병워네 갈 엄두도 몬네고 인는 부자드리나 그때 병원 이쓸때나 가께. 아이, 엄:는 사람드른 기양 천:딩이말로 사라써 엔:나레. (암. 병원은 없으니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부자들이나 그때 병원 있을 때나 갔지. 아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살았어, 옛날에.

《영광: 474~475》

마지막으로 ‘부정적 태도’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기능은 상대방의 발화 내용을 부정하여 반박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이외에도 맥락에 따라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화자 자신의 견해 및 기억하고 있는 사실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경우는 이한규(2012: 167)에서 자신의 견해가 더 타당함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선행 화자의 견해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73) ㄱ. 그 저 데부치러<sup>95)</sup> 온 양바니 어:찌께 할메는 거 이르크 스 에 수:를 난지를 자랴요이~ 그러문서는 아니 이녁손디 어제 모린다우 다: 알:제. (그 저 ‘대 불이러’ 온 양반이 “어떻게 할머니는 그 이렇게 발정이 난 것을 잘 아오?” 그러면서는 “아니 자기 소인테 왜 모른대요? 다 알지.”)

《2012보고서-신안: 92》

ㄴ. @ 그래도 껌찌른 버껴야 땀겨 아십니까? (예, 그래도 껌질은 벗겨야 될 것 아닙니까?)

# 아이 그른 인자 그 껌떡 아으 안 비끼고 (아니, 그러면 이제 그 껌질 안 벗기고)

95) 김미숙(1997: 90)에서는 이에 관하여 중앙어의 ‘철수도 가잖니!’와 같이 확인의문문에 나타나는 장형 부정 형식인 ‘-지 않-’ 또한 긍정전제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며, 서남 방언의 부정 현상 가운데 발화의 앞, 중간, 끝에 나타나는 ‘아니’가 강조의 의미로 발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96) ‘대 불이다’는 ‘수 불이다’와 같은 의미로, 전남 방언에서 동물의 새끼를 얻기 위하여 교배시키는 일을 이른다.

@ 어

# 그냥 막 맏도래다 다 갈:머는 가루가 나와요. (그냥 막 맏돌에다 다 갈면은  
 가루가 나와요.) 《보성: 256~257》

ㄷ. #2 방망골로 와쨌. (방망골로 왔지.)

#1 아이 어장쟁이로 드라쨌. (아니 오장성으로 들어왔지.) 《영암: 88~89》

ㄹ. #1 한 사:월따른 그, 저 보리 고랑에다 안 심능가? (한 사월은 그, 저 보리 고  
 랑에다 심잖나?)

#2 아니 그랑께 오:월 따레도 시머. (아니, 그러니까 오월에도 심어.)

《진도: 140~141》

(73ㄱ)은 상대방의 발화를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예로, 소를 교배시키러 온 사람이 화자에게 ‘소가 발정이 난 것을 어떻게 잘 알고 있냐’는 질문에 ‘내 소니까 어떻게 모르겠냐’고 반박하는 데에 ‘아니’가 사용되었다. 그 외의 예문은 선행 화자의 발화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예로, (73ㄴ)에서는 보리의 껍질을 벗겨야 하지 않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제보자가 껍질을 벗기지 않고 맏돌에 갈면 된다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73ㄷ)에서는 보조 제보자가 이야기한 ‘방망골’을 주요 제보자가 ‘오장성’이라 고쳐 말하고 있다. 또한 (73ㄹ)에서는 목화를 심는 시기에 관하여, 보조 제보자는 주요 제보자가 언급한 ‘4월’이 아닌 ‘5월’임을 주장하고 있다.

#### 2.4.5. ‘아면/하모(아무렴)’

‘아무렴’은 ‘아무려면’의 준말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말할 나위 없이 그렇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말에 강한 긍정을 보일 때 하는 말’이라는 감탄사로서의 뜻을 지니고 있다<sup>97)</sup>. 이기갑(2018)에서는 긍정의 응답어인 ‘그래’, ‘그렇지’, ‘응’, ‘예’보다는 더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태의 당연함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97) ‘아면’이나 ‘하모’가 중양어형인 ‘아무렴’과 동의어로 쓰이나, 두 형태의 발달을 음운론적으로 상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진호(2014)에서는 이들을 동사 활용형 ‘하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기갑(2018: 144)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면 같은 의미를 지니는 ‘그럼’의 발달 과정 또한 유추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하면’은 현재 일반적으로 동사의 활용형으로 쓰이는바, 본 연구에서는 중양어형을 ‘아면/하모’와 같은 의미를 지닌 ‘아무렴’으로 사용하였다.

전남 방언에서는 ‘아무렵’이 ‘아면’, ‘아문’, ‘암’의 형태로 실현된다. 이외에도 보성에서는 ‘하문’, 광양에서는 ‘하모’, ‘하’, ‘함’, ‘항’으로도 나타난다. 특히 ‘하모’는 동남 방언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이러한 사실은 보성과 광양이 경남 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전이지대로서의 특징을 보여준다.

<표 42> 담화 표지 ‘아면/하모(아무렵)’의 지역별 변이형

중앙어 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아무렵	아면/아문	암	아면/아문 /아만 암만/암마 암	암	암	아면/아문 하문	하모/하무 /허무 하/항 아면/아문

담화 표지 ‘아무렵’은 강한 강조 기능은 화자 자신의 발화에 대한 자기응답이라 할 수 있는바, 이는 뒤따르게 될 스스로의 발화 내용에 대한 강한 긍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감탄사 ‘아무렵’이 지닌 강한 긍정의 의미가 화자 자신의 발화에 적용될 경우, 후행 발화에 대한 확신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어질 말의 내용을 강조하는 기능으로 파생된다는 것이다. 이 기능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74) 가. 이거 우게는 중천 인자 중천 지그 저 중천 아:면 중쳐늘 허제. (이것 위에는 반자 이제 반자 지금 저 반자 아무렵 반자를 하지.) 《영광: 352~353》
- 나. 치 치너물 거뜰 머이나그 하모 이파리 굴:궁걸 뜨 뜨더다간, (취 취나물 같은 뭐냐 그 아무렵 이파리 굵은 것을 뜯어다가) 《2013보고서-광양: 356》
- 다. # 인자 빵 낚 트면 트고 인자 쪼끔 크문 이양 한 사뭇리나 되거찌이~. (이제 빵잎 트면 트고 이제 조금 크면 이제 한 삼월이나 되겠지.)
- @2 아
- # 사뭇, 음너그로 사먹이나 되거찌. (삼월, 음력으로 삼월이나 되겠지.)
- @2 그믐 사:월 정도 (그러면 사월 정도.)
- # 사:월 정도 되지. (사월 정도 되지.)
- @ 음
- # 허:무 인자 그거를 인잔 아페 나온 노문 인자 또 또 끄르슬 하나 노코 인자

또 (아무렴. 이제 그것을 이제 앞에 나온 놈은 이제 또 또 그릇을 하나 놓고  
이제 또,) 《광양: 316~317》

(74ㄱ, ㄴ)은 발화 중간에, (74ㄷ)은 발화의 첫 부분에 ‘아면/하모’가 실현된 예이다. 이들 예문은 모두 실현 위치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새로운 정보를 말하기 직전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74)에 제시된 사례 외에도 긍정을 나타내는 응답어 뒤에 실현되어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대한 화자의 긍정 및 동의의 의사를 강조하기도 한다<sup>98)</sup>. 다음에 제시한 (75)에서는 제보자가 발화한 ‘응’ 뒤에 ‘아면’이 실현되었는데, 이러한 양상과 관련하여 이기갑(2018)에 따르면 긍정의 강도가 약한 쪽에서 강한 쪽으로 진행됨으로써 선행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한 화자의 동의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라 하였다.

(75) @ 아 거러요 허청에다 (아, 걸어요, 헛간에다?)

# 응 아:면. (응, 아무렴.)

《영광: 386~387》

#### 2.4.6. ‘응/잉, 예/야’

‘응’과 ‘예’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말에 대한 긍정의 응답어에 속한다. 또한 상대방의 발화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자 할 때, 확인의문문을 형성하는 부가의문문 표지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주지하다시피 ‘응’과 ‘예’는 상대높임법 위계에 따라 교체되는데, 전사 자료에서는 ‘응’과 ‘예’가 번갈아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조사자와 제보자의 관계에서 나이와 사회적 지위라는 두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남 방언에서는 중앙어형인 ‘응’과 ‘예’ 이외에도 각각 ‘잉, 이’와 ‘예, 야’의 변이형을 지닌다. 특히 ‘응’의 경우 때때로 ‘어’, ‘엉’이나 ‘으’로 실현되기도 한다<sup>99)</sup>. ‘응/예’의 지역별 변이형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98) 본래 이기갑(2018: 161)에서는 이러한 사용 양상을 응답적 기능의 일종으로 포함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도 긍정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이는 기능상 ‘응답’보다 ‘강조’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 기능을 ‘발화 내용 강조’에 포함하였다.

99) 이 가운데 ‘이’와 ‘으’는 음절 말음이 약화되어 비모음화된 것이다.

<표 43> 담화 표지 ‘응/잉, 예/야’의 지역별 변이형

증앙어 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응	응	응/잉	응/영	응/잉 으/어	응 으/어 이	-	응 이
예	예/에 야	예/에	예/에 야	예/에 야	예/에 야	예/에 야	예/에

‘응/예’는 긍정의 응답어로서의 의미 이외에도 확신의 태도 및 상대방의 발화에 반응하는 의례적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전자의 경우 긍정의 의미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반면, 후자는 긍정의 의미가 크게 약화되어 상대방의 발화에 호응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 이러한 ‘응/예’의 의미는 담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담화 표지 ‘응/예’의 기능을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44> 담화 표지 ‘응/잉, 예/야’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교정	
		부연	
		열거	
	발화 내용 강조	-	부가의문문 표지의 경우 발화의 끝에 실현됨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화제 종결	-	
태도 관련 기능	긍정적 태도	호응	

먼저 ‘발화 책략 기능’ 가운데 ‘발언권 유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76) ㄱ. 공계 그저네 우리 하나부지가 하나부지 사라게실때는 시방 아드리 우리 하나부지가 메시냐? 나:시냐? 크나들 자근 집 을 니:시 니:신디 아들 다 이려고 요 거시 시방 세:째 아들찌비여.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시방 아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몇이냐? 넷이냐? 큰아들 작은 집 을 넷이 넷인데 아들 다 이렇게 이것이 시방 셋째 아들집이야.)

《영광: 54~55》

ㄴ. 바구리다 따고 여자드른 압초메 이러케 혜:가꼬 초메에다 마이~. 예, 압초메 요케 혜:가꼬 여그다 이케 당:꼬 여그다. (바구니에다 따고 여자들은 앞치마 이렇게 혜가지고 치마에다 많이. 예, 앞치마 이렇게 혜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고 여기다.)

《진도: 142~143》

ㄷ. 베:추는 베:추지만, 베:추지 담:째. 가:시: 으~, 시야네. (베추는 배추김치만, 배추김치 담그지. 가:을 을, 겨울에.)

《영암: 408~409》

ㄹ. 그걸 마:니 헨디는 노네 머이나 바테다가 아조 재배를 해요. 고거슨 열려니. 예. 다년다년 승:근 거시 아니고, 고거슨 시머나:두면 그 뿌리가 마라자면 그 이드매 또 나고, (그것을 많이 하는 데는 눈에 뭐냐 밭에다가 아주 재배를 해요, 그것은 연년이. 예 다년 다년 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심어 놔두면 그 뿌리가 말하자면 그 이듬해 또 나고)

《곡성: 38~39》

ㅁ. 여쭙 치고 을 마늘씨 잔 치고 (엿 좀 치고 을 마늘 좀 치고.)

《영암: 428~429》

(76ㄱ, ㄴ)은 ‘시간 벌기’의 예로, (76ㄱ)에 나타난 의문 발화는 모두 화자 스스로를 대상으로 하는데, 즉 화자 자신이 제시한 의문에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정은 곧 ‘응’이나 ‘예’가 스스로의 발화를 지속하는 기제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00)</sup>. (76ㄴ)에서는 다음에 이어질 말을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하여 ‘예’가 사용되었

100) (96ㄱ)에 대한 예는 이기갑(2018)에서 ‘자신의 확신이나 물음에 대한 긍정 확인’에 대한 예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자기 응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원표(1996: 176)에서 ‘시간 벌기’ 기능으로 실현된 ‘응’이나 ‘예’의 경우, 화자가 마치 스스로에게 질문하듯 떠오르지 않는 정보 내용을 찾아낸 데에 대한 결과라고 주장한 바에 비추어 보면 (76ㄱ)은 ‘시간 벌기’와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는데, 후행 발화에 선행 발화의 일부가 뒤따르고 있다. 즉 ‘응/예’를 발화한 이후에 선행 발화의 일부를 반복하여 발화를 지연시킴으로써 뒤따르는 말을 생각할 시간을 버는 것이다. (96ㄷ~ㄱ)은 각각 교정, 부연, 열거에 대한 예이다. (96ㄷ)에서는 ‘가을→겨울’로 발화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96ㄹ)의 경우 ‘예’에 뒤따르는 발화는 모시를 해마다 재배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96ㄱ)에서는 양념 재료인 ‘엿’과 ‘마늘’을 나열하고 있다.

‘발화 내용 강조’는 자신의 발화를 긍정하면서 발화 내용을 강조한다. 이 기능은 본디 긍정의 응답어에서 기원한 담화 표지 ‘그래’와 ‘아무렴’ 또한 지니고 있으나, ‘응/예’의 경우 부가의문문 표지의 형식으로도 실현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77) ㄱ. 그래따가 바람불:면 인자 그때는 다머다가 뒤릅니다, 쫓:빠기로. 예, 막 뒤러.  
(그랬다가 바람 불면 이제 그때는 담아다가 바람에 날려서 검불을 없앵니다, 쪽박으로. 예 막 바람에 날려서 검불을 없애.) 《진도: 78~79》
- ㄴ. 인자 그래이 인:자 나:가 도매에 오능 계기요. 응? 나:가 인자 멀: 차무꺼이요?  
(이제 그래 이제 내가 도매에 오른 고기요. 응? 내가 이제 뭘 참을 것이오?)  
《광양: 114~115》
- ㄷ. 그냥, 그냥 머이나 보:통 초집 그러지요 인자 초집. 응 인자 먼: 풀과 가튼 거  
시로 인:다 그마리제이~? 초집. (그냥, 그냥 뭐냐 보통 ‘초집’ 그러지요 이제  
‘초집’. 응 이제 뭘 풀과 같은 것으로 인다 그 말이지? 초집.)  
《곡성: 204~205》

(77ㄱ)에서는 선행 발화의 일부인 ‘뒤릅니다(바람에 날려서 검불을 없앵니다)’를 반복함으로써 발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77ㄴ, ㄷ)은 부가의문문 표지 ‘응’이 강조의 용법으로 사용된 예로, 두 예문에서는 각각 화자 자신의 처지와 ‘초집(초가집)’을 강조하고 있다. (77ㄴ, ㄷ)은 이기갑(2018)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발화를 이해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기능인 ‘이해의 확인 또는 상대의 관심이나 동의 촉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여 생각해 보면, 화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발화 내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그 내용이 화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유형 담화 표지 가운데 ‘잉’과 ‘야’가 각각 확인 의문문 표지 ‘응’과 ‘예’에서 발달한 것에 비추어 보면, (77ㄴ, ㄷ)에서 수행하는 ‘응’의 기능 또

한 ‘발화 내용 강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제 관련 기능에 대한 예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 (78) ㄱ. 응 짜버, 아니 몽창 골마가꼬 짜:버리면 나서. 고름만 짜:버리면. 그거슨 야겅 썬도 데야. 응 그:또 다:라또 여러가지여. 민중다:라시 이썬. 밍:가른 그냥 요로 코 양 부서. (응, 짜서, 아니 완전히 굼아가지고 짜 버리면 나아. 고름만 짜 버리면. 그것은 약 없어도 돼. 응, 그것도 다랏도 여러 가지야. ‘민중다랏’이 있어. ‘민중다랏’은 그냥 이렇게 그냥 부어.) 《영광: 472~473》
- ㄴ. 감자는 방아네다 보:가네야조. 예, 감자는 예:저네는 인자 머글꺼시 저궁께 감자는 마:니썬 논는데. (고구마는 방안에다 보관해야지요. 예 고구마는 예전에는 이제 먹을 것이 적으니까 고구마는 많이썬 놓는데.) 《진도: 94~95》
- ㄷ. 아 그랜는디 나:가 그 찰, 부모라 차꺼쏘? 안 차자요. 그런 세상을 사라썬. 응. (아, 그랬는데 내가 그 찰, 부모라 찰썬소? 안 찰아요. 그런 세상을 살았어. 응.) 《광양: 114~115》
- ㄹ. 꿩이야 시양치라 하제 그거뽀다 무:다(거쏘?) 시양치라고 할터제. 시양치 인자 우리 하나 주고 큰소 가져가따고 고려고허제 안 (다 아는 바대로 송아지라 하지 그것보고 뭐라고 하썬소? 송아지라고 할 테지. 송아지 이제 우리 하나 주고 큰 소 가져갔다고 그러고 하지 예.)

《2012보고서-신안: 91》

(78ㄱ, ㄴ)은 화제 전환과 관련한 예로, (78ㄱ)에서는 다래끼의 치료법에 관한 이야기에서 다래끼의 일종인 ‘민중다랏’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되었다. (78ㄴ)은 고구마를 방 안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 고구마를 많이 보관했다는, 선행 발화와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78ㄷ, ㄹ)은 화제 종결에 관한 예로, (78ㄷ)에서는 화자가 흑독한 시집살이로 시어머니와 싸운 이후로, 시어머니를 찾은 적이 없음을 언급하며 시집살이에 대한 화제를 끝맺고 있다. (78ㄹ)에서는 소를 교미시킬 때, 어미소를 씨수소의 주인에게 줌으로써 얻게 되는 송아지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발화를 끝맺고 있다. 각각의 예에서 실현된 ‘응/예’는 모두 화자의 입장에서 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자의 긍정적 태도와 관련한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능



은 선행 연구에서 ‘청자반응표시<sup>101)</sup>(이원표, 1993, 강현석, 2009, 임선희·김선희, 2014)’로 다루어져 온 일종의 맞장구(back-channel)로, 상대방의 말에 대한 경청 및 이해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다음 (79)에 실현된 ‘응/예’는 본래 감탄사로서 긍정적 의미가 다소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공통적으로 상대방의 발화에 호응하는 기능임을 감안하면 긍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기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능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79) ㄱ. # 시리떡 시리는 상에 놀랑게 시리떠근 벨라 안 거시경계 상에 놀라고 쪼끔 허고 (시루떡 시루는 상에 놓으려니까 시루떡은 별로 안 거시기 하니까 상에 놓으려고 조금 하고.)

@ 예. (예.)

# 자 인절미를 지그른 마:니 허제. 그저네는 흰떡또 헨는디 흰떠근 누가 잘 암머궁께 아너고 (이제 인절미를 지금은 많이 하지. 그전에는 흰떡도 했는데 흰떡은 누가 잘 안 먹으니까 안 하고.)

@ 응. (응.)

# 쏙 너서 인절미해. 인 그러든 인절미를 잘 머거 모다. (쏙 넣어서 인절미 해. 인 그러면 인절미를 잘 먹어 모두.)

@ 예. (예.)

# 자 가서 구워서도 머꼬 헨다고 (이제 가서 구워서도 먹고 한다고.)

《영광: 128~131》

ㄴ. # 그래가지고 철또를 가따 고:리 내부러따 그래썌요. (그래 가지고 철도를 그리 내버렸다 그랬어요.)

@ 음

# 예 철또를 고:리 내:가꼬 이 인자 배가 기양 맘:대로 해서 기양 어:디로 가불고크롬 기양 찢라부러야 쓴다 (예, 철도를 그리 내 가지고 이 이제 배가 그냥 마음대로 해서 그냥 어디로 가 버리게끔 그냥 잘라 버려야 된다.)

《보성: 22~23》

ㄷ. @ 아 정위레? 점쟁이 불러다가 그러케 하는 데도 이꼬? (아, 정월애? 점쟁이 불러다가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 보르마네. (보름 안에.)

@ 응 보르마네이~. (응, 보름 안에.)

101) 이외에 ‘응답(전영옥, 2015)’, ‘공손 전략 기능(이한규, 2011)’, ‘상대에 대한 기능(이기갑, 2018)’ 기능이 이와 유사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79ㄱ)에서는 제보자가 발화를 시작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실현된 조사자의 ‘응/예’는 조사자가 제보자의 말을 있다는 태도를 드러내어 제보자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79ㄴ)에서는 조사자가 발화한 감탄사 ‘음’ 다음에 제보자의 ‘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반응에 의례적으로 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9ㄷ)에서는 조사자가 제보자의 발화를 이해하였으며, 동시에 조사자는 제보자의 이해에 대한 호응의 표시로 각각 ‘응’, ‘예’가 실현되었다.

### 3. 체언·용언의 활용 형태 기원형

체언 및 용언의 활용형에서 기원한 담화 표지는 ‘말이다/마다’, ‘마라자면/마라자믄(말하자면)’, ‘머시냐(무엇이냐)’가 있다. ‘말이다/마다’와 ‘머시냐(무엇이냐)’ 체언에 계사와 종결어미가 결합한 형태이며, ‘마라자면/마라자믄(말하자면)’은 용언에 연결어미가 결합된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들 담화 표지의 특징 및 담화 기능을 고찰하고자 한다.

#### 3.1. ‘말이다/마다’

‘말이다/마다’는 체언의 활용형으로, 종결어미 ‘-다’는 담화 참여자 간의 관계 및 서법에 따라 교체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남 방언에서는 중양어형과 유사하게 실현되며, 축약형인 ‘마다’가 드물게 나타나기도 한다. 각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변이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5> 담화 표지 ‘말이다/마다’의 지역별 변이형

중양어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마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마다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는 구성에 따라 다소 의미 차이를 보이나, 주로 관형형 어미 ‘-는’이 결합한 ‘-는 말이다’ 구성으로 나타난다. ‘-는 말이다’ 구성은 간접인용 형식과 유사한데(김영희, 1995), 이러한 점에서 김민국(2011: 78)에서는 ‘말이다’가 간접인용 구문에서 주로 실현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간접인용은 선행 발화를 재구성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화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선행하는 것을 다시 현 발화에 제시함으로써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강조하는 화용적 효과를 지닌다고 하였다<sup>102)</sup>.

**<표 46> 담화 표지 ‘말이다/마다’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발화의 끝 부분에 실현됨
	발화 내용 강조	-	발화의 중간에 실현됨

먼저 ‘발언권 유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능에서 ‘말이다’는 간접인용 형식에서 비롯되는 형태·통사적 특징뿐 아니라 의미 기능까지 크게 약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담화 표지로서 앞선 말을 강조하는 기본적인 기능에서 더욱 확장된 쓰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하는 발화에 뒤따르는 말을 잇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하여 발화를 지연시킴으로써 발화 간 연결을 돕는 표지로 기능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80) 그래도 그래도 교:수님 기:싱께 마리제 네가 더 조:치요. 왜냐? (그래도 그래도 교수님 계시니까 말이지 내가 더 좋지요. 왜냐?) 《2012보고서-진도: 199》

(80)에서 실현된 ‘마리제(말이지)’는 발화 중간에서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이는 청자에게 자신의 발화가 계속될 것임을 알리면서 자신의 발언권을 다른 참여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102) 김민국(2011: 78)에서는 간접인용의 화용적 효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확인’은 청자의 입장에서, ‘강조’는 화자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하였다.

한편 ‘말이야’의 강조 기능은 발화 내용 가운데 화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나 자신의 태도를 부각하는 것을 이른다.

(81) ㄱ. 우리 친정 어머니가 아이마다<sup>103</sup> 찌, 거시기 우리집까 먼: 야기땀마다. 가서 가  
파야쓰거따 그라고. 여그 네:까짱 보가 이씨요. 보 건:닐라른 무리 감:나 지퍼  
요. (우리 친정 어머니가 ‘아이 말이다, 저, 거시기 우리집에 무슨 약이 있단  
말이다. 가서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냇가에 보가 있어요. 보 건너  
려면 물이 매우 깊어요.) 《영암: 124~125》

ㄴ. @ 그렇 거시 업써. 음 (그런 것이 없어. 음.)

# 며:슬 헐꺼시냐 마리여, 그러케 데서. (뭘 할 거냐 말이야 그렇게 돼서?)

@ 그러치요이~. 그니깐 지금 걱정 찌:그 어서 지남버네 조사할 때던데 아 십  
년 지나면 요 마으리 사라 나물까 십따고 그러케 걱정하시데요. (그렇지요.  
그러니깐 지금 걱정 저기 어디서 지난번에 조사할 때던데 아 십 년 지나면  
이 마을이 살아남을까 싶다고 그렇게 걱정하시데요.)

《2012보고서-영광: 298》

ㄷ. @ 꽤:려미며는 염쫘이며는 마이시니 이씨야 대는대 항:생제가 (꽤럼이면은 염  
중이면은 마이신이 있어야 되는데 항생제가)

# 애 (예)

@ 그때는 그거도 업:쓸땠디 (그때는 그것도 없을 때인데)

# 궁께 마리요? 근디 어:트께 나선놓고 그부니 (그러니까 말ियो? 그런데 어떻  
게 나왔는고 그분이) 《보성: 100~101》

(81ㄱ)에서는 집에 약이 있다는 발화를 강조하는 예로, ‘-ㅁ 마다’의 형식으로 실현되었다. 이는 생략되면 부자연스러운 발화가 되기 때문에 의존적인 성격을 지닌다. (81ㄴ)의 제보자는 현재 농촌의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더욱 드러내고 있다. (81ㄷ)에서 제보자는 조사자의 말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 예문에서는 ‘말이다’가 선행 화자의 발화에 대한 동의를 뜻하는 담화 표지 ‘궁께’와 결합하여 제보자의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81)에 제시된 예문에서는 ‘말이다’가 담화 표지로 발달하는 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 김민국(2011)에서는 ‘-는 말이다’가 담화 표지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관형형 어미 ‘-는’

103) 이기갑(2016b: 185)는 아랫사람을 부르는 ‘아이’와 ‘말이다’가 줄어들어 해라 할 정도의 사람에게 말을 붙일 때 시작하는 말로 흔히 쓰인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화를 시작하는 담화 표지로 볼 수 있다.

이 ‘-ㄴ’으로 축약되어 탈락하는 통사적 재구조화를 겪으며 분포 위치가 확대되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81ㄱ①)과 (81ㄷ)의 ‘말이다’는 관형어가 아닌 명사나 부사 기원형 담화 표지에 뒤따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81)의 예문에서는 종결어미의 활용을 제외한 그 어떤 문법 요소와 결합하지 않는다. 특히 시제 표현과 관련된 선어말어미가 그러한데, 이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시점, 즉 발화 시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말이다’가 비록 담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종결어미가 교체되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형태적 고정성을 획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서술어 ‘말이다’와 구별되는 담화 표지 ‘말이다’의 특징이다<sup>104)</sup>.

### 3.2. ‘말하자면/말하자른(말하자면)’

‘말하자면’은 동사 ‘말하다’의 어간과 연결어미 ‘-자면’이 결합하여 담화 표지로 발달한 것이다. 이 가운데 ‘말하다’는 김정남(2017: 92)에서 규정한 ‘[+언급성] 동사<sup>105)</sup>’에 속한다. 특히 ‘-자면’이 ‘말하다’의 어간과 활발히 결합하여 담화 표지로 발달하였다는 사실은 ‘말하다’의 의미가 [+언급성] 동사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담화 표지 ‘말하자면’은 전남 지방에서 주로 ‘말하자면’이나 ‘말하자른’으로 실현된다.

<표 47> 담화 표지 ‘말하자면/말하자른(말하자면)’의 지역별 변이형

중양어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말하자면	말하자면	말하자면 말하자면 말하자른	말하자른 말하자면	말하자면 말하자른 말하자거면	말하자면	말하자면	말하자면 말하자그머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연결어미 ‘-자면’의 의미는 ‘의도하거나 헤아리는 바

104) 이외에도 임규홍(11028)에서는 분열문으로의 변형, 부정, ‘말’과 대응되는 다른 명제적 의미를 지닌 단어와의 대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수의성 및 보문소 제약을 제시하였는데, 수의성은 담화 표지의 기본적인 특징에 해당하며, 보문소 제약은 완형 보문을 이끌 경우 ‘-는’과 같은 보문소를 취할 수 없으며, 불구 보문은 이끌 수 없다고 하였다.

105) ‘표현하다’, ‘강조하다’, ‘해명하다’, ‘고백하다’, ‘이야기하다’, ‘변명하다’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를 가정하여 뒤의 결과적 사실에 이어 주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자면'은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연결 어미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이어준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남(2017: 86)에서는 '-자면'을 '-려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예 또한 존재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를 제시한 것이다.

- (82) ㄱ. 이 일을 오늘 [끝내자면/끝내려면] 바빠 서둘러야겠다. 《표준국어대사전》  
 ㄴ. 두두러가고 모른데다가 [마:라자면/<sup>2</sup>말하려면] 썬나라글 허치고. (두들겨서 마  
 른 데다가 [말하자면/?말하려면] 뻬씨를 흘뜨리고.) 《진도: 40~41》

(82ㄱ)과는 달리 (82ㄴ)의 '-자면'이 '-려면'으로 대체되었을 때 그 의미가 어색하며,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적 의미 또한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말하자면'은 용언의 활용형이 하나의 형태로 고정(106)되어 그 형태가 담화 내에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담화 표지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표 48> 담화 표지 '말하자면/말하자른(말하자면)'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교정	
		부연	
		열거	
	발화 내용 강조	-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화제 종결		발화의 끝 부분에서 실현됨

먼저 발언권 유지 기능과 관련한 용법에 관한 것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106) 김정남(2017: 112~113)에서는 이러한 형태적 고정성이 어휘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으며, 이때의 '말하자면'은 부사 '즉'과 유사한 의미로 파악하였다.

(83) ㄱ. 인자 올 올캐르 인자 열다서쌀 몽능 걸, 어매도 영:꼬 그리 인능 거를 인자 데 이다가 주구 어매가 일칭이 주거 부리고 인자 호래비가 인자 말하자면 호라부 지하고 인자 사:능 걸 테꼬 와 농께 멀: 물: 모리는다, 그리 우리 올캐도 눈쌀 미가 그리 조아서 잘 배우드라네요. (이제 우리 올캐를 이제 열다섯 살 먹은 걸, 엄마도 없고 그리 있는 것을 이제 데려다가 저희 엄마가 일찍 죽어 버리고 이제 홀아비가 이제 말하자면 홀아버지하고 이제 사는 걸 데리고 와 놓으니까 물, 모르는데, 그리 우리 올캐도 눈쌀미가 그리 좋아서 잘 배우더라네요.)

《광양: 350~351》

ㄴ. 어: 막 파부러도 또 나고 파부러도 또 나고 마라자면, 그게 마라 씨가 마:내가 지고, 그근 잡초랑거슨 어: 오히려 마라자면 여 곡씩뽕담도 더: 씨가 잘고, (어 막 파 버러도 또 나고 파 버러도 또 나고 말하자면 그것이 씨가 많아가지고 그것 잡초라는 것은 어 오히려 말하자면 어 곡식보다도 더 씨가 잘고)

《2012보고서-곡성: 134》

ㄷ. 무시나 상추나 머 머이나 무수 배:추 말하자면 머 상추 편넙 머이나 머 머이나 예:를 들자머는 (무나 상추나 뭐 뭐냐 배추 말하자면 상추 깻잎 뭐냐 뭐 뭐냐 예:를 들자머는)

《곡성: 106~107》

ㄹ. 그런데 시방은 지하수를 파가꼬 땅소게서 정:기로 뽕바울리제. 마:라자면 여그 강에서 바로 농사 짓는 무로제. (그런데 지금은 지하수를 파가지고 땅 속에서 전기로 뽑아 올리지. 말하자면 여기 강에서 바로 농사 짓는 물 오지.)

《진도: 38~39》

(83ㄱ)은 교정의 예로, 화자는 올캐의 아버지를 ‘호래비(홀아비)→호라부지(홀아버지)’로 고쳐 말하고 있다. (83ㄴ)은 부연에 관한 예로, 이 예문에서는 잡초의 씨앗이 많아 파도 파도 계속 나고, 그 씨앗이 곡식보다도 잘다고 보충하여 설명하는 데에 ‘말하자면’이 두 차례 실현되었다. (83ㄷ, ㄹ)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항목을 열거하는 예이다. (83ㄷ)은 채소류에 관한 단어를, (83ㄹ)은 수원지(水源池)에 관한 절 단위의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다.

다음으로 강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관한 예는 다음과 같다.

(84) ㄱ. 예: 여그 한 사람도 배를 시머가지고 그러면 인자 공해 업:씨 마라자면 무공해 과이리라고 해:가꼬 싱겨 보니까, (예, 여기 한 사람도 배를 심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공해 없이 말하자면 무공해 과일이라고 해가지고 심어 보니까,)

《2012보고서-곡성: 133》

- ㄴ. 지비로 저와서 우털 나:키저네는 한나한나 요케 홀타딱<sup>107</sup>합따다, 마:라자면 한나한나. (집으로 지고와서 우리들 낳기 전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훑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하나.)
- 《진도: 30~31》

(84ㄱ)은 부연에 관한 예이나, ‘말하자면’으로 후행 발화의 ‘무공해 과일’을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84ㄴ)에서는 화자가 태어나기 이전 시기에 손으로 벼를 하나하나 타작했다는 사실에 관한 표현을 후행 발화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행 발화에 나타난 요소를 후행 발화에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조 기능은 ‘말하자면’이 곧 말할 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가 후행 발화를 시작하려는 때에 초점이 놓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화제 관련 기능에 관한 예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 (85) ㄱ. 미:른 그르케 비여다가 증 마라자면 미:리 여 여 모가지 아니쑈? (밀은 그렇게 베어다가 즉 말하자면 밀이 이 이삭 있잖소?)
- 《영암》

- ㄴ. 엔:나레는 네가 그 지블 아래채 사랑채라고 인자 지블 지스머는 그거뽕고 이르미 머시라거나? 시늘 모시는 디가 이쑈. 마라자면. 삼년 엔:나레는 삼년::날 머리 이발도 양코 손뚝또 안짜리고. (옛날에는 내가 야 그 집을 아래채 사랑채라고 이제 집을 지으면은 그것보고 이름이 뭐라고 하나? 신을 모시는 데가 있어, 말하자면. 삼 년 옛날에는 삼년날 머리 이발도 하지 않고 손뚝도 안 자르고.)
- 《영광: 418~419》

(85ㄱ)은 화제 전환에 대한 것으로, 화자는 발화 중간에 밀을 베는 발화에서 밀 이삭에 관한 것으로 화제를 바꾸고 있다. (85ㄴ)은 화제 종결에 대한 것으로 ‘말하자면’이 발화의 끝에 실현되었다. 예문에서는 사당(祠堂)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삼년상과 관련된 발화를 시작하고 있다.

107) 여기에서는 ‘타작하다’의 뜻으로, 이기갑(2007b: 125)에서는 탈곡기가 나오기 이전에 벼훑이를 사용하여 손으로 벼를 훑었던 시절의 의미가 현재에도 계속 이어져 사용된 것이라 해석하였다.



### 3.3. ‘머시냐/머이나(무엇이나)’

‘무엇이나’는 체언 활용형에서 기원한 담화 표지로, 중앙어에서는 축약형인 ‘뭐냐’로 실현된다. 전남 방언에서는 주로 ‘머시냐’로 실현되며, 이외에도 ‘머이나’, ‘머냐’ 등의 이형태를 지닌다. 각 지역어에 나타난 ‘머시냐’의 변이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9> 담화 표지 ‘머시냐(무엇이나)’의 지역별 변이형

중앙어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무엇이나 (뭐냐)	머이나 머시냐 모이나 머냐	머시냐	머시냐 무시냐	머냐	머시냐	머시냐	머이나

‘머시냐’의 종결어미의 교체는 본래 의문형으로 쓰이기 때문에 서법을 따르지는 않으며,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제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나, 전사 자료에서는 ‘뭐냐’형으로만 실현되었다. 이는 의문의 대상이 화자 자신, 즉 화자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발화 내용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담화 표지 ‘뭐냐’의 기능은 발언권 유지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108)</sup>.

- (86) 가. 우리드 클찌게는 머이나, 소:다 소:다 그걸 그냥 무꼬 무를 마시고 막 경거주  
 준허이 그러커등 그거이. (우리들 자랄 적에는 뭐냐 소다 소다 그걸 그냥 먹고 물을 마시고 막 건건찝찝하게 그렇거든 그것이.) 《광양: 192~193》  
 나. 그: 하우스에:서는 어: 인 파릴딸 어: 구월따레 요로코 요 이 머냐 요때 시무구

108) 선행 연구인 임규홍(1995)에서는 ‘뭐냐’의 기능을 ‘초점 드러내기’, ‘시간 벌기’, ‘들음이 끌어들이기’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초점 드러내기’는 발화 내용의 강조를 통하여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기능으로, 분열문의 구조와 같은 ‘뭐냐하면’ 구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기능은 분열문이 특정한 어구나 말을 강조하기 위하여 쓰이는 문장이라는 점에서 ‘뭐냐’가 나타내는 담화 기능이라기보다 분열문 구조 자체에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들음이 끌어들이기’는 ‘뭐냐’가 본래 의문 형식이라는 점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화자가 말할 내용을 알고 있지만 생각이 나지 않아 청자에게 이를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먼 대:요. 곧 곧 시무문 댄디. (그 하우스에서는 어 인 팔월 어 구월에 이렇게  
 요 이 뭐냐 요때 심으면 돼요. 곧 곧 심으면 되는데) 《2012보고서-곡성: 127》

(86ㄱ)은 ‘뭐냐’가 발화 내에 단독으로 실현된 예이며, (86ㄴ)은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담화 표지와 인접하여 실현된 예이다. (86ㄱ)에서는 화자가 어린 시절 토사곽란에 대한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소다를 먹었다는 발화를 꺼내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다. (86ㄴ)에서는 화자가 하지감자를 심는 시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후속하는 말을 꺼내기 위한 목적으로 ‘뭐냐’를 사용하였다. 특히 ‘이’가 두 번 반복하여 함께 나타남으로써 시간 벌기의 기능이 (86ㄱ)보다는 더 명확하다.

## 4. 구절 기원형

구절에서 기원한 담화 표지는 ‘가만 있어’와 ‘그래가꼬/그래가(그래 가지고)’가 있다. 이들 담화 표지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한 것으로, 각 형태 사이에 어떠한 어휘·문법적 요소가 개입할 수 없다. 또한 음성적인 차원에서도 ‘가만 있어’와 ‘그래가꼬/그래가’는 한 단어처럼 휴지 없이 발음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구절에서 기원한 담화 표지가 형태적으로 고정성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본 절에서는 ‘가만 있어’와 ‘그래가꼬/그래가’의 특징 및 담화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 4.1. ‘가만 있어’

담화 표지 ‘가만 있어’는 부사 ‘가만’과 동사의 활용형인 ‘있어’가 결합하여 고정성을 획득한 형태로, 김선희(1995: 21)에서는 ‘있어’ 외에 ‘있어 봐’가 결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남 방언에서는 중앙어형과 같은 ‘가만있어’ 외에 ‘카만있어’로도 쓰인다. 지역어에 따른 변이형은 다음에 제시하였다.

<표 50> 담화 표지 ‘가만 있어’의 지역별 변이형

중앙어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가만있어	-	가만있어	-	-	카만있어	-	-

부사 ‘가만’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움직임이나 말 없이’를 뜻하며, ‘있다’의 경우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를 뜻한다. 따라서 ‘가만 있어’의 의미는 ‘어떠한 움직임이나 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다’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가 화자 자신에게 적용될 때에는 기억나지 않는 발화 내용을 회상하기 위하여 시간을 버는 기능을 하며, 상대방에게 적용될 때에는 상대방의 발화를 중도에 제지하고 발언권을 가로채는 기능을 한다. ‘가만 있어’가 담화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51> 담화 표지 ‘가만 있어’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발언권 가져오기	-	

다음에 제시된 (87)은 ‘가만 있어’가 수행하는 담화 기능에 관한 예이다. (87ㄱ, ㄴ)은 ‘시간 벌기’의 예로, (87ㄱ)에서는 발화의 첫 부분에 실현되었으며, (87ㄴ)에서는 발화의 끝 부분에 실현되어 화자의 생각을 가다듬음으로써 이어질 발화 내용을 떠올리기 위해 발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87ㄷ)은 발언권을 ‘발언권 가져오기’의 예로, 이 예문에서 주요 제보자가 술 담그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자, 보조 제보자가 이를 제지하며 발언권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다.

(87) ㄱ. 가마 이꺼라 네가 구니네 가따가 한 시물야다레나 제데 헤씨까? 그래가꼬, (가만 있자 내가 군인에 갔다가 한 스물여덟에나 제대했을까? 그래가지고),

《2012보고서-진도: 231》

ㄴ. 그거 이름 다 이저부런는데 가마니써. (그것 이름 다 잊어 버렸는데, 가만 있

언.)

《진도: 242~243》

ㄷ. #1 다른 술 인자 달거께 멩궁께 인자 (다른 술 이제 달도록 만드니까 이제)

#2 카마니씨. 내가 하께. 여그서 차:꼰 거싱향께. (가만 있어. 내가 할께. 여기 서 자꾸 뭐 하니까.)

《영암: 504~505》

## 4.2. ‘그래가꼬/그래가(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동사 ‘그러하다’의 어간에 ‘-어 가지고’ 구성이 결합한 것으로, 전남 지역에서는 주로 ‘가지고’가 ‘갖고’로 축약된 ‘그래가꼬’로 나타난다. 광양 지역에서는 이 형태뿐 아니라 ‘그래가’로도 실현되는데, 이는 동남 방언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라는 점에서 광양이 전이지대라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역어에 따른 변이형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 담화 표지 ‘그래가꼬/그래가(그래 가지고)’의 지역별 변이형

중앙어형	지역별 변이형						
	곡성	진도	영광	신안	영암	보성	광양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래가꼬						그래가꼬 그래가

‘그래 가지고’의 특징을 설명하기 이전에 ‘-어 가지고’ 구성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본래 ‘가지고’는 보조동사에 해당하는데, ‘그래 가지고’의 경우 보조동사의 의미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손혜옥(2012)에서는 연속동사 구성에서 연결어미로 문법화를 겪은 것으로, 선행동사와 후행절을 계기적·인과적으로 이어주는 연결어미 ‘-어’나 ‘-어서’와 기능이 유사하다고 언급하였다<sup>109)</sup>. 또한 이정애(1998: 51)에서는 체언 뒤에서 조사로, 용언 뒤에서 어미로 발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그래 가지고’

109) 손혜옥(2012)에서는 ‘-어 가지고’, ‘-어’, ‘-어서’ 간에는 선행행절 사건의 개념적 연결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표현적 의미에 차이를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어’는 선행절이 후행절에서 나타내는 사건의 일부로 인식되며, ‘-어서’와 ‘-어 가지고’는 ‘-어’와 달리 점차적으로 구분되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즉 ‘-어 가지고’는 이러한 선행 종속절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가 ‘-어’나 ‘-어서’보다 더욱 크다는 것이다.

는 대응언 어간 ‘그러하-’와 결합한 것이므로, 계기 및 인과적 연결어미의 특성을 함께 지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담화 기능을 지닌다.

<표 53> 담화 표지 ‘그래가꼬/그래가(그래 가지고)’의 기능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비고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별기	
		부연	
		열거	
	발화 내용 강조	-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화제 복귀	

먼저 발화 책략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기능에는 ‘발언권 유지’와 ‘발화 내용 강조’가 있는데, ‘발언권 유지’에서는 선행 발화의 정보 내용을 후행 발화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부연’과 발화 내에서 대등한 항목을 나열하는 ‘열거’의 용법이 나타났다. ‘그래가꼬/그래가’는 주로 후자의 용법으로 실현되는데, 다른 담화 표지와 달리 대등한 의미 관계의 항목을 나열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어떠한 일이나 사건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데에만 실현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그래가꼬/그래가’가 선후행 발화의 의미를 계기적·인과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발언권 유지’에 관한 예는 다음과 같다.

(88) ㄱ. # 예 그러가 인자 인자 난:중에 인자 해방 되고는 인자 우리 우리 아푸로 도  
 라져쨌요.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해방 되고는 이제 우리  
 우리 앞으로 되었지요.)

@ 음.

# 그거이 영:거이 인자. 그래가 열판 마지기. (그것이 영구히 이제. 그래가지  
꼬 열닷 마지기.) 《광양: 34~35》

ㄴ. 그러지요, 짐:부 기계로. 제:일 처쨌 트렉타로 농 갈:제. 그래가꼬 트렉타로 노:

타리<sup>110)</sup> 하제. 또 상자에다 씌나락 뿌리는 거또 기계로 뿌리고. (그렇지요, 전부 기계로. 제일 첫째 트랙터로 논 갈지. 그래 가지고 트랙터로 로타리 하지. 또 상자에다 범씨 뿌리는 것도 기계로 뿌리고.) 《진도: 64~65》

- ㄷ. 한 서너게씩 여로코 꼬구작꼭작 여로코 꼭 여로코 진: 늪 여로코 딱 꼬굴차 꼬구작 꼬구자꼬 해: 가머가꼬 거그다 시:게를 꼭꼭 찢러나 그 콩에다가. 그레 가꾼 딱: 머 보제기로나 무:름 씨여서 각 췌:메나라우. 그레가꼬 딱 따따단 방에다가 딱 무더나. 그러면 그거시 한 사날마네 딱 청구기 떠. (한 서너 개씩 이렇게 꼬기작꼬기작 이렇게 꼭 이렇게 긴 것 이렇게 딱 구부려서 꼬기작꼬기작해가지고, 감아 가지고 거기다 세 개를 꼭꼭 찢러 놔. 그 콩에다가. 그레 가지고 딱 뒤 보자기로나 뒤를 썩워서 꼭 잡아매 놔요. 그레 가지고 따뜻한 방에다가 딱 묻어놔. 그러면 그것이 한 사나흘만에 딱 청국장이 떠.)

《영암: 528~529》

(88ㄱ)은 부연에 관한 예로, 화자는 해방 이후 소유하게 된 논외의 넓이를 구체적인 표현인 ‘열닷 마지기’로 보충하여 말하고 있다. (88ㄴ, ㄷ)은 열거의 예로, 모두 나열 구문에 해당한다. (88ㄴ)은 벼농사의 과정을, (112ㄷ)은 청국장을 담그는 방법에 관한 발화로, 일의 과정에 따라 절차를 연속적으로 언급하는 도중에 실현되었다.

한편 강조에 관한 기능은 이수련(2004)에서 제시한 ‘그래 가지고’의 기능 가운데 화제화 기능과 같다. 다음 (89ㄱ)에서는 예문에 제시된 과정의 결과물로서의 청주를, (89ㄴ)에서는 소주를 내리는 과정을 이야기함으로써 화자도 이를 본 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89)ㄱ. 각 가라얹꼬 메:거 드로면 가망가망 떠 네:노코 나면 그거이 도로 드로와 쌀살 차고 드러가 할:라테지고 그레 그러제. 그레가꼬 청주제 그거시. (꼭 가라얹고 말갱게 들어오면 가만가만 떠 내 놓고 나면 그것이 도로 들어와 쌀살 차고 들어가 가득 차고 그레 그러지. 그레가지고 청주지, 그것이.)

《영광: 278~279》

- ㄴ. # 지:미 푹푹 푹소두방 꼭찌에서 푹푹푹 떨어지면 그거이 서주가 데야요.  
(김이 푹푹 푹솔뚜경 꼭지에서 푹푹푹 떨어지면 그것이 소주가 돼요.)

@ 아

110) 예문에서의 ‘로타리’는 경운(耕耘) 및 쇄토(碎土) 작업을 뜻한다. 이는 회전을 의미하는 영어 형용사 ‘rotary’에서 온 말로, 트랙터의 작업기 구동 방식과 관련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그레가꼬 세주 내리데요. (그레 가지고 소주 내리데요.) 《영암: 544~545》

다음으로 ‘화제 전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그레가꼬/그레가’의 경우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 사이에 작용하는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과 기존에 전개되던 화제와는 다른 이야기가 진전되는 것을 막고 다시 원래 지속되던 화제로 전환하는 ‘화제 복귀’의 기능을 모두 지닌다. 이들 기능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90) ㄱ. # 똑 이 사니 말가치 생개따 그래서 마:사니라 그래썬요. (똑 이 산이 말같이 생겼다 그래서 마산이라 그랬어요.)

@ 음

# 그레가지고 거 사:라미 안자 안:장 나:두고 안진 그 자리에가서 아::조 자리가 조아가꼬 명당이 이썬따 그래요. (그레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안장 놔두고 앉는 그 자리에 가서 아주 자리가 좋아 가지고 명당이 있었다 그래요.) 《보성: 18~19》

ㄴ. 궁게 막 꺾:가꼬 오면, 막 너도 한다발 나도 한다발 해가꼬 골무게가 줄주:러니 지베가 어:디가 양거서 비게가꼬 인자, 인자 너러서 그거이 나리 조으머는 말리기가 조으는디 비나 오고 장마가 지른 막 처매 아네다 주를 치고 베가테다 주를 치고 해가꼬. [삼 말리기가 그러케 힘드려요]. 그레가꼬 인자 꼭때기를 짹: 짹:매가지고 인자 전부 너러서 말려가꼬 인자 이 몸때기가 마리머는 자 중간쯤 여기를 짹:매가지고 말려가꼬 인자 여가 가리머는 요만치 또 인자 증가네다 푸러가지고 여그를 짹:매요. (그러니까 막 구워가지고 오면, 막 너도 한 다발, 나도 한 다발 해가지고 골목에 줄줄이 집에 어디에 앉아서 벗겨가지고 이제, 이제 널어서 그것이 날이 좋으면은 말리기가 좋은데, 비나 오고 장마가 지면, 막 처매 안에다 줄을 치고 바깥에다 줄을 치고 해가지고. [삼 말리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레가지고 이제 꼭대기를 짹: 잡아매어가지고 이제 전부 널어서 말려가지고, 이제 이 몸뚱이가 마르머는 자 중간쯤, 여기를 잡아매어가지고 이제 여기가 가리머는 이만큼 또 이제 중간에다 풀어가지고 여기를 잡아매요.) 《곡성: 24~27》

(90ㄱ)은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에 관한 예로, 이 예문에서는 ‘마산’의 유래에 있어 산의 명당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되었다. (90ㄴ)은 ‘화제 복귀’의 예로, 111). 예문에서는 화자가 삼을 말리는 과정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삼 말리기가 그러

케 힘드려요.’는 삼을 말리는 일에 대한 화자의 평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을 말리는 과정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 이는 화자가 화제에서 벗어난 발화를 수정하여 원래의 화제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기능을 한다.

---

111) 이와 관련하여 손혜옥(2012: 224)에서는 ‘그러하다’가 가리키는 범위가 선행 발화뿐 아니라 화자가 화제에 관련하여 앞서 말한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하여 앞선 발화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요약되기 때문에 화제 복귀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어 가지고’와 구별되는 ‘그래 가지고’만의 특징으로, ‘그러하-’와 ‘-어 가지고’가 결합한 이후 자체적으로 문법화를 겪은 것임을 방증한다고 하였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남 방언에 나타난 개별 담화 표지를 유형화하고, 그 문법적 특징 및 담화 기능을 분석하였다. 기원형의 유형은 단어 및 구절의 단위뿐 아니라 체언·용언의 활용형 등까지 담화 표지로 발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담화 표지의 기능은 ‘발화 책략 기능’, ‘화제 관련 기능’, ‘태도 관련 기능’의 측면에서, 단일한 형태라도 화자의 의도에 따라 본래의 어휘적 의미에서 다양한 기능이 분화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각 장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전남 방언의 담화 표지를 유형화하고, 각 담화 표지의 지역별 변이형 및 문법적 특성과 담화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전남 방언 담화 표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또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방언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후, 연구 대상 및 방법을 설계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논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담화 표지의 이론적 배경에 해당하는 담화 표지의 개념, 특징 및 유형과 함께 그 발달 기제를 문법화와 주관화, 영입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담화 표지의 개념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정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발화의 단위를 결속하여 담화를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일종의 담화 책략으로,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언어 형식’이라 정의하였다.

담화 표지의 특징으로는 임규홍(1996)과 전영옥(2002)에 제시된 것을 바탕으로 실현상의 특징, 운율·형태·통사·의미·화용 등의 언어학적 특징, 사용 범위에 나타나는 특징을 표로 정리하였고, 각 특징을 전남 방언의 예로써 확인하였다. 담화 표지의 유형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담화 표지의 분류 체계를 ‘실현 형식’, ‘담화 기능’, ‘기타’ 유형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담화 표지의 발달 요인은 제1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문법화’, ‘주관화’, ‘영입’의 개념 및 그 원리와 기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문법화는 언어 형식의 역사적 발달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통시적이며, 거시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관화와 영입은 화용화와 관련된 개념으로, 공시적이며 미시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담화 표지의 형태와 기능을 파악하는 데에 통시적인 발달 여부뿐 아니라 담화 상황이나 맥락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전남 방언에 나타난 개별 담화 표지를 기원형의 유형에 따라 ‘고유형’, ‘단어 기원형’, ‘체언·용언의 활용형 기원형’, ‘구절 기원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발화 책략 기능’, ‘화제 관련 기능’, ‘태도 관련 기능’에 따라 각 담화 표지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각 담화 표지의 기능을 기술하는 데에는 담화 표지의 기능이 본래의 어휘적 의미에 따라 파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고유형 담화 표지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지니며, 지역에 따른 사용 양상 및 기원형에 따른 사용 양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전자는 전남 지역에서 쓰이거나, 타 지역 방언에서 사용되는 형태라도 통사적 분포 영역이 더 넓은 형태로 간주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해당하는 담화 표지의 기원형이 불분명하거나, 기원형이 존재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발달한 것이라 추정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담화 표지는 ‘와’, ‘웨’, ‘잉’, ‘야’가 확인되었으며, 각 담화 표지가 지닌 상대높임법 등급과 서법에 따른 문법적 특징과 담화 기능을 분석하였다. 다만 ‘와’, ‘웨’의 경우 전사 자료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을 조사자와 제보자와의 관계 및 ‘와’, ‘웨’의 통사적 제약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와’, ‘웨’, ‘잉’, ‘야’의 담화 기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54> 고유형 담화 표지의 기능**

담화 기능			고유형 담화 표지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와	웨	잉	야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	○
	발화 내용 강조	-	○	○	○	○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종결	-	○	○	○	○
태도 관련 기능	긍정적 태도	친밀감 표시	○	○	○	○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발언권 유지’는 ‘잉’과 ‘야’에만 나타나는데, 이들 담화

표지는 상대높임법 등급에서 넓은 분포를 보여 두루낮춤의 종결어미와 호응이 가능해지면서 발화 중간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 외의 기능은 모두 발화의 끝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능으로, ‘와’, ‘웨’, ‘잉’, ‘야’가 공통적으로 지니는 기능임을 확인하였다.

단어 기원형 담화 표지는 기원형의 품사에 따라 ‘대명사 기원형’, ‘관형사 기원형’, ‘부사 기원형’, ‘감탄사 기원형’으로 나누었다. 먼저 대명사 기원형 담화 표지는 ‘거시기’, ‘머(무엇)’, ‘어디’가 있었으며, 각 담화 표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55> 대명사 기원형 담화 표지의 기능

담화 기능			대명사 기원형 담화 표지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거시기	머/멧	어디
발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별기	○	○	○
		교정	○	○	
		부연	○	○	
		열거	○	○	○
	완곡한 발화 표현	-		○	
	발화 내용 강조	-			○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시작	-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	○	○
태도 관련 기능	주저하기	-	○	○	
	부정적 태도	반박		○	○

<표 55>에 제시된 모든 담화 표지는 그 기원형이 모두 지시대명사로, 화자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정보 내용을 지시함으로써 발화의 공백을 메우는 기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거시기’는 화제 전환을 비롯한 여러 담화 기능이 발견되는 등 기능상으로 중양어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머/멋(무엇)’과 ‘어디’는 의문대명사의 의미가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았다. 특히 ‘머’의 경우 어떠한 사물이나 상황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에서 한층 발전한 것이라 추정하였다. 또한 ‘주저하기’의 경우 ‘거시기’와 ‘머(무엇)’는 불특정하거나 모호한 대상을 지시하는 부정대명사의 용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관형사 기원형 담화 표지로는 ‘먼(무슨)’과 ‘이/요, 그/고, 저/조’가 확인되었다. ‘먼(무슨)’의 담화 기능은 대명사 기원형 담화 표지인 ‘머(무엇)’와 같다. 그러나 이기갑(2018: 258~25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언권 유지 이외의 기능들은 모두 명사나 명사구 앞이라는 통사적 제약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를 담화 표지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요, 그/고, 저/조’의 경우 ‘이/요’는 ‘시간 벌기’와 ‘발화 내용 강조’에만 국한된 반면, ‘그/고’, ‘저/조’는 새로운 화제의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 및 화자의 주저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확장된 예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그/고’와 ‘저/조’는 ‘이/요’보다 먼 거리의 대상을 지시하는 어휘적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먼’과 ‘이/요, 그/고, 저/조’의 담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56> 관형사 기원형 담화 표지의 기능**

담화 기능			관형사 기원형 담화 표지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먼	이	그	저
발화 채택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	○	○	○
		교정	○		○	○
		부연	○		○	○
		열거	○			
	완곡한 발화 표현	-	○			
	발화 내용 강조	-		○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		○	○
	화제 종결	-	○			
태도 관련 기능	주저하기	-	○		○	○
	부정적 태도	반박	○			

부사 기원형 담화 표지의 경우 ‘기양(그냥)’, ‘궁께/궁께’, ‘근디(그런데)’, ‘막(마구)’, ‘왜’, ‘인자(이제)’, ‘좀/잔(조금)’, ‘야튼/하이튼(하여튼)’이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기양’, ‘막’, ‘좀/잔’은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상 부사에서 기원한 담화 표지이다. ‘기양’은 어떠한 상태가 그대로 지속됨을 뜻하며, ‘막’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외에도 ‘어떠한 정도가 세차다’는 의미를 지닌다. ‘좀/잔’은 대상의 수량이 적거나, 시간적으로 짧음을 나타낸다. 이들 부사는 담화 표지로 발달하면서 어휘적 의미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을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궁께/궁께’, ‘근디’, ‘야튼/하이튼’은 본래 문장 및 발화의 의미를 연결하는 문법적 기능을 지니는 접속 부사에서 기원한 담화 표지이다. 이들 담화 표지는 담화를 연결하는 기능뿐 아니라 접속의 의미가 약화되어 화자의 발화 의도나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인자(이제)’는 지시 부사 가운데 시간 부사에서 전성되었는데, 본래 화자의 발화 시점을 지시하는 의미에서 화자의 발화 책략 및 화제에 관련된 기능으로 파생되었다. ‘왜’는 의문 부사로, 어떠한 상황에 대한 이유를 묻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어휘적 의미에 화자의 주관의 개입되었을 때, 그 대상에 따라 화자의 발화 책략에 관한 기능과 태도를 드러내는 기능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다음은 부사 기원형 담화 표지의 기능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57> 부사 기원형 담화 표지의 기능

담화 기능			부사 기원형 담화 표지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기양	긍께/ 공께	근디	막	왜	인자	죵/잔	야튼
말화 채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	○		○	○	○	○	○
		교정						○		
		부연	○	○		○		○		
		열거						○		
	발언권 가져오기	-		○	○					
	완곡한 말화 표현	-	○						○	
	상호작용 유도	-					○			
말화 내용 강조	-	○			○		○	○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전환	선·후행 말화 간 화제 전환		○	○			○		○
		화제 복귀								○
	화제 종결	-								○
태도 관련 기능	주저하기	-	○							
	긍정적 태도	동의		○						
	부정적 태도	반박					○			

감탄사 기원형 담화 표지로는 ‘그래’, ‘글씨/크메(글쎄)’, ‘아니/아이’, ‘아면/하모(아무렴)’, ‘응/잉, 예/야가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긍정의 응답어에서 기원한 ‘그래’, ‘아면/하

모’, ‘응/잉, 예/야’와 부정의 응답어에서 발달한 ‘아니’, 그리고 불확실한 태도를 나타내는 응답어 ‘글씨/크메’의 경우 각 형태에 담긴 화자의 태도가 적용되는 대상이 화자 자신의 발화인가 상대방의 발화인가에 따라 담화 기능에 차이를 보였다. ‘아/어’는 화자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감탄사에서 발달한 담화 표지로, 그 기능은 화자의 머릿속에 갑작스럽게 떠오른 정보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보았다. 감탄사에서 기원한 담화 표지의 기능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표 58> 감탄사 기원형 담화 표지의 기능**

담화 기능			감탄사 기원형 담화 표지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그래	글씨	아/어	아니	아면/하모	응/예
발화 전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별기	○	○	○			○
		교정			○	○		○
		부연	○		○			○
		열거			○			○
	발언권 가져오기	-		○	○	○		
	발화 내용 강조	-		○		○	○	○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시작	-	○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	○			○
	화제 종결	-						○
태도 관련 기능	긍정적 태도	호응						○
	부정적 태도	반박		○		○		

다음으로, 체언·용언의 활용형에서 기원한 담화 표지는 ‘말이다/마다’와 ‘말하자면/말

하자른(말하자면), ‘머시냐(무엇이냐)’가 확인되었다. ‘말이다/마다’는 김영희(1995)와 김민국(2011)의 견해에 기대어 간접 인용 형식에서 화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담화 표지로 전성된 것으로 보고, 앞선 발화 내용을 강조하는 기능에서 시간 별기의 기능으로 발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말하자면/말하자른(말하자면)’은 화자가 말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분화된 예를 살펴보았다. 한편 ‘머시냐’의 경우 그 적용 대상이 화자의 발화에 국한된 것만을 담화 표지로 상정하였다. 이때의 기능은 발언권 유지 가운데 시간 별기의 기능에만 한하여 사용되었다. ‘말이다/마다’, ‘말하자면/말하자른’과 ‘머시냐’의 담화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9> 체언·용언의 활용형 기원형 담화 표지의 기능

담화 기능			체언·용언의 활용형 기원형 담화 표지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말이다	말하자면	머시냐
발화 채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별기	○	○	○
		교정		○	
		부연		○	
		열거		○	
	발화 내용 강조	-	○	○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전환	선·후행 발화 간 화제 전환		○	
	화제 종결	-		○	

구절 기원형 담화 표지는 ‘가만 있어’와 ‘그래가꼬/그래가(그래 가지고)’가 발견되었다. ‘가만 있어’는 ‘아무런 움직임이나 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다’를 그 의미로 상정하여 그 적용 대상에 따라 시간 별기와 발언권 가져오기의 기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래가꼬/그래가’의 기능은 대응언 어간 ‘그러하-’와 연결어미와 유사한 기능으로 발달한 ‘-어 가지고’의 의미에서 기원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가만 있어’와 ‘그래가꼬/그래가’의 담화 기능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표 60> 구절 기원형 담화 표지의 기능

담화 기능			구절 기원형 담화 표지	
대분류	소분류	세부 기능	가만 있어	그래가꼬/그래가
말화 책략 기능	발언권 유지	시간 별기	○	○
		부연		○
		열거		○
	발언권 가져오기	-	○	
	말화 내용 강조	-		○
화제 관련 기능	화제 전환	선·후행 말화 간 화제 전환		○
		화제 복귀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담화 표지가 전남 방언을 전사한 자료에서도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와’, ‘웨’, ‘잉’, ‘야’와 같이 전남 방언에 한하여 고유한 특징을 보이는 담화 표지의 존재와 함께 ‘거시기’와 같이 지역적으로 널리 쓰이는 담화 표지라도 중앙어와 기능상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어 전사 자료에 나타나는 전남 방언 담화 표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기존의 방언 담화 표지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개별 담화 표지의 특징과 기능의 분석에만 치중하여 각 담화 표지의 기능에 따른 실제적인 사용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지 못하였다. 또한 자료의 제약으로 전남 방언에서 실현되는 모든 담화 표지를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전남 방언 담화 표지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한계는 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담화 표지의 기능 및 방언 담화 참여자의 사회적 변인에 따른 계량적 분석과 타 방언과의 비교를 통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는 다음을 기약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강민정(2015), <경남 방언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경상대학교 대학원).
- 강소영(2005), <구어 담화에서의 ‘그래 가지고’의 의미>, 《한국어 의미학》 제16권, 한국어의미학회, pp.1~21.
- 강소영(2009), <담화 표지 ‘그러니까’의 사용에 내재한 화자의 담화전략 연구>, 《어문연구》 제60권, 어문연구학회, pp.27~56.
- 강소영(2014a), <화제 첫머리에 분포하는 담화 표지의 실제>, 《어문연구》 제79권, 어문연구학회, pp.5~30.
- 강소영(2014b), <복합형 담화 표지의 의미기능 연구 -아 근데, 아니 근데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제44권, 한국어의미학회, pp.313~344.
- 강우원(2000), <담화 표지 ‘참’과 어찌말 ‘참’의 비교 연구>, 《언어과학》 제7권 1호, 한국언어과학회, pp.5~26.
- 강우원(2012), <경남 방언의 대화 시작말 ‘있다아이가’류에 대한 연구>, 《우리말연구》 제30권, 우리말학회, pp.89~110.
- 강우원(2013), <경남 방언의 대화 시작말 ‘머꼬’에 대한 연구>, 《우리말연구》 제33권, 우리말학회, pp.57~79.
- 강현석(2009), <국어 담화 표지 ‘예’와 ‘네’의 사용에 나타나는 변이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제22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pp.57~86.
- 강희숙(2006), <소설 『태백산맥』의 화용론 -담화 표지 ‘와, 웨, 잉’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57권, 한국언어문학회, pp.5~31.
- 강희숙(2011), <전남방언 담화 표지 고찰 -종결 담화 표지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제27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p.43~67.
- 구종남(1997), <간투사 ‘아니’의 의미 기능>, 《한국언어문학》 제39권, 한국언어문학회, pp.43~64.
- 구종남(1998), <화용표지 ‘좀’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제41권, 한국언어문학회, pp.411~434.
- 구종남(1999), <담화 표지 ‘어디’에 대하여>, 《언어학》 제7권 3호, 대한언어학회, pp.222~234.

- 구종남(2000), <담화 표지 ‘뭐’의 문법화와 담화 기능>, 《국어문학》 제35권, 국어문학회, pp.5~32.
- 구종남(2004), <‘왜’의 담화적 기능>, 《언어학》 제12권 1호, 대한언어학회, pp.61~83.
- 구종남(2008), <담화 표지 ‘다’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제67권, 한국언어문학회, pp.37~59.
- 구종남(2015a), <‘참’의 감탄사와 담화 표지 의미 기능>, 《한민족어문학》 제69권, 한민족어문학회, pp.399~428.
- 구종남(2015b), 《국어의 담화 표지》, 경진출판.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광희(2004), <담화 표지 ‘인자’의 정보 유도과 응집성 실현>, 《한국어 의미학》 제15권, 한국어의미학회, pp.181~206.
- 김명희(2005), <국어 의문사의 담화 표지화>, 《담화와 인지》 제12권 2호, 담화·인지언어학회, pp.41~63.
- 김명희(2006), <국어 의문사 ‘무슨’의 담화 표지 기능>, 《담화와 인지》 제13권 2호, 담화·인지언어학회, pp.21~42.
- 김명희·이다미(2003), <아동담화에서의 문중 ‘-요’의 양상과 기능>, 《텍스트언어학》 제14권,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47~68.
- 김미선(2012), <‘그런데’의 담화 기능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34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35~54.
- 김미숙(1997), <대화구조로 본 ‘아니’의 기능>, 《담화와 인지》 제4권 2호, 담화·인지언어학회, pp.77~101.
- 김미진(2016), <제주도 방언의 접속부사 연구>, 《동남어문논집》 제42권, 동남어문학회, pp.89~111.
- 김미진(2018), <제주도 방언의 담화표지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방언학》 제27호, 한국방언학회, pp.156~180.
- 김민국(2011), <‘말이다’ 구성의 문법화와 화용화>, 《국어학》 제62권, 국어학회, pp.73~106.
- 김상훈(2013), <한국어 담화 표지 연구 -‘아무튼/어쨌든/하여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선영(2016), <구어 담화에서 나타나는 ‘무슨(museun)’의 담화 표지 기능>, 《언어와

- 문화》 제12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83~98.
- 김선희(1995), <담화 표지의 의미연구>, 《논문집-목원대학교》 제27권, 목원대학교, pp.5~26.
- 김영란(2000), <‘왜’의 화용 기능>, 《한국어 의미학》 제6권, 한국어의미학회, pp.1~26.
- 김영철(2004), <우리말 담화 표지의 기능 고찰 -‘거시기’를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학》 제52권, 한국언어문학회, pp.23~36.
- 김영철(2005), <우리말 담화 표지 ‘아’ 고찰>, 《국어문학》 제40권, 국어문학회, pp.161~224.
- 김영철(2006), <국어 담화 표지 ‘어’의 고찰>, 《국어문학》 제41권, 국어문학회, pp.249~266.
- 김영철(2007), <우리말 담화 표지 ‘참’ 고찰>, 《국어문학》 제43권, 국어문학회, pp.235~252.
- 김영철(2008), <우리말 담화 표지 ‘자’ 고찰>, 《국어문학》 제45권, 국어문학회, pp.5~23.
- 김영철(2010), <우리말 담화 표지 ‘막’ 고찰>, 《국어문학》 제48권, 국어문학회, pp.5~22.
- 김영철(2015), <우리말 담화 표지 ‘인자’ 고찰>, 《국어문학》 제58권, 국어문학회, pp.29~48.
- 김원보(2017), <제주방언 문두 담화 표지어 ‘양’과 ‘기’의 담화 기능과 운율적 특성>, 《교육과학연구》 제19권 2호,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pp.1~16.
- 김인환(2018), <‘그러-’ 계열 접속부사의 세 가지 영역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를 중심으로>, 《어문학》 제139권, 한국어문학회, pp.21~49.
- 김정남(2017), <한국어 담화 표지로서의 ‘-자면’>, 《텍스트언어학》 제43권,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85~116.
- 김종택(1982), 《국어화용론》, 형설출판사.
- 김주미(2004), <담화 표지 ‘있잖아’에 대하여>, 《한말연구》 제14호, 한말연구학회, pp.93~116.
- 김진수·이윤희(2015), <대전 지역 담화 표지 사용 양상의 화용론적 분석>, 《인문학연구》 제101권,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67~194.
- 김태엽(2000), <국어 담화 표지의 유형과 담화 표지되기>, 《우리말 글》 제19권, 우

- 리말글학회, pp.1~23.
- 김태엽(2001), 〈기능어의 문법화〉, 《우리말 글》 제23권, 우리말글학회, pp.1~24.
- 김태엽(2002), 〈담화 표지되기와 문법화〉, 《우리말 글》 제26권, 우리말글학회, pp.61~80.
- 김태인(2015), 〈서남방언 담화 표지 ‘이’ 고찰〉, 《방언학》 제21호, 한국방언학회, pp.9~38.
- 김향화(2003), 〈한국어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향화(2005), 〈담화 표지 ‘말이다’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 제136권,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pp.13~16.
- 김현지(2015), 〈한국어 구어에서 ‘정말?’, ‘진짜?’의 담화 기능 연구〉, 《언어와 언어학》 제66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pp.79~111.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길임·차지현(2010), 〈담화 표지 ‘뭐’의 사용패턴과 기능〉, 《한글》 제288호, 한글학회, pp.91~119.
- 노대규(1983), 《국어의 감탄문 문법》, 보성문화사.
- 노은희(2012), 〈본격적인 화제 전환을 위한 담화 표지 연구 -‘다름 아니라’, ‘그건 그렇고’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제20권, 한국화법학회, pp.39~69.
- 목정수(2001), 〈‘좀’의 기능과 문법화〉, 《언어학》 제28권, 한국언어학회, pp.77~100.
- 문순덕·김원보(2012), 〈제주방언 담화 표지 ‘계메’ 연구〉, 《언어학연구》 제22권 1호, 한국언어연구학회, pp.27~42.
- 문순덕·김원보(2016), 〈제주방언에서 ‘가지다’의 문법화 현상 연구〉, 《언어학연구》 제21권 2호, 한국언어연구학회, pp.122~130.
- 박근영(2000), 〈‘거시기’의 문법화〉, 《한국어 의미학》 제7권, 한국어의미학회, pp.29~48.
- 박근영(2006), 〈‘이’, ‘그’, ‘저(더)’의 의미 기능 변화〉, 《언어와 문화》 제2권 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65~93.
- 박석준(2007), 〈담화 표지화의 정도성에 대한 한 논의 : ‘뭐, 어디, 왜’를 대상으로〉, 《한말연구》 제21호, 한말연구학회, pp.87~106.
- 박지윤(2011), 〈경북방언 ‘인자’의 담화 표지 실현 양상 -중부방언 “인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제18권, 한국화법학회, pp.215~250.
- 박혜선(2011), 〈담화 표지어 ‘좀’ 사용 연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 《응용 언어학》 제27권 1호, 한국응용언어학회, pp.29~52.
- 박혜선(2012), <담화 표지어 ‘그냥’에 대하여>, 《언어학》 제20권 1호, 대한언어학회, pp.211~228.
- 서승아·김혜숙(2008), <구어 담화 표지의 환담적 기능 연구 -무릎 탁 도사의 담화 표지 ‘오’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80권, 한국국어교육학회, pp.545~566.
- 서정숙(2016), <화제 표지 ‘은/는’의 담화적 기능과 교육 방안>, 《어문논집》 제66권, 중앙어문학회, pp.205~227.
- 서희정(2010), <한국어 교육 항목으로서 담화 표지 ‘말이다’에 대한 고찰>, 《이중언어학》 제43권, 이중언어학회, pp.222~246.
- 손세모들(1988), <‘좁’의 상황적 기능>, 《동아시아문화연구》 제14권,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pp.477~508.
- 손혜옥(2012), <‘가지다’ 구성의 문법화에 대한 공시적 분석>, 《한국어학》 제55권, 한국어학회, pp.207~238.
- 송병학(1987), <한데, 하나, 하기는 담화불변화사>, 《언어연구》 제4권 1호, 한국현대언어학회, pp.97~112.
- 송병학(1994), <담화불변화사 ‘아니’>, 《우리말 연구의 쟁점》, 연산도수희선생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pp.384~401.
- 송인성(2013), <담화 표지 ‘뭐’의 기능과 운율적 특성>, 《한국어학》 제58권, 한국어학회, pp.83~106.
- 송인성(2014), <‘막’의 운율적 특성과 담화적 기능>, 《한국어학》 제65권, 한국어학회, pp.211~236.
- 송인성(2015), <국어 담화 표지의 기능과 운율>, 박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대학원).
- 송인성(2017), <‘정말’, ‘진짜’의 담화 기능과 운율 특성>, 《한국어학》 제77권, 한국어학회, pp.155~229.
- 송인성·신지영(2014), <담화 표지 ‘좁’의 기능과 형태·운율적 특성의 실현 양상>, 《한국어학》 제62권, 한국어학회, pp.315~339.
- 신우봉(2015), <제주방언 담화 표지 ‘계메’의 운율적 특성과 담화적 기능의 상관관계>, 《어문연구》 제43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143~166.
- 신지연(1988), <국어 간투사의 위상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 신현숙(1989), <담화대용표지의 의미 연구>, 《국어학》 제19권, 국어학회, pp.427~451.

- 신현숙(1990), <담화대용 표지 ‘그래’의 의미 연구>, 《인지과학》 제2권 1호, 한국인지과학회, pp.143~165.
- 심란희(2013), <담화 표지 ‘그냥’의 기능 연구>, 《어문논총》 제59권, 한국문학언어학회, pp.155~186.
- 안윤미(2012), <담화 표지 ‘그러게’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제56권, 한국어학회, pp.313~342.
- 안정아(2008), <담화 표지 ‘막’의 의미와 기능>, 《한국어학》 제40권, 한국어학회, pp.251~279.
- 안정아(2015), <부사 기원 담화 표지의 담화 기능 비교 연구 -‘그냥’, ‘막’, ‘좀’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 사회》 제26권,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p.313~342.
- 안주호(1992), <한국어 담화 표지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2권 1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21~38.
- 안주호(2009), <축약형 담화 표지 ‘좀/막’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제14호, 한국사전학회, pp.199~223.
- 안주호(2010), <축약형 담화 표지 ‘좀’에 대한 연구>, 《국제언어문학》 제22호, 국제언어학회, pp.99~122.
- 안주호(2014), <응답표지 기능의 ‘됐어’류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제46권, 한국어의미학회, pp.407~426.
- 오선화(2008), <함경도 방언의 담화 표지 ‘응’과 ‘야’의 고찰>, 《방언학》 제8호, 한국방언학회, pp.97~121.
- 오승신(1995), <국어의 간투사 연구>, 박사학위논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나(2015), <한국어교육학: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담화 표지 ‘어디’에 대한 연구 -한, 중 화용 기능의 대조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103권, 한국국어교육학회, pp.283~309.
- 유나(2016),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구어 담화 표지 ‘말이다’의 교육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pp.1221~1198.
- 유나(2017), <중국인 학습자의 담화 표지 ‘뭐’ 사용 분석 및 교육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2권 13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pp.465~497.
- 윤석민(1994), <‘-요’의 담화 기능>, 《텍스트언어학》 제2권,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pp.459~484.
- 윤소연(2017), 〈구어자료에 나타나는 담화지속의 표지 ‘그래서’〉, 《언어과학연구》 제80권, 언어과학회, pp.215~242.
-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이근열(2013), 〈부산 지역어 구술 발화 책략 연구〉, 《우리말연구》 제33권, 우리말학회, pp. 81~111.
- 이기갑(1995), 〈한국어의 담화 표지 ‘이제’〉, 《담화와 인지》 제1권, 담화·인지언어학회, pp.261~287.
- 이기갑(2005), 《2005년도 전남 지역어 전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이기갑(2006), 《2006년도 전남 지역어 전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이기갑(2007a), 《2007년도 전남 지역어 전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이기갑(2007b), 《전남 곡성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 이기갑(2008), 《2008년도 전남 지역어 전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이기갑(2009a), 《전남 진도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 이기갑(2009b), 〈동남 방언의 담화 표지 ‘고마’〉, 《우리말연구》 제25권, 우리말학회, pp.41~77.
- 이기갑(2009c), 《2009년도 전남 지역어 전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이기갑(2010a), 〈담화 표지 ‘그냥’, ‘그저’, ‘그만’의 방언 분화〉, 《방언학》 제11호, 한국방언학회, pp.5~35.
- 이기갑(2010b), 《2010년도 전남 지역어 전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이기갑(2011a), 《2011년도 전남 지역어 전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이기갑(2011b), 《전남 영광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 이기갑(2012), 《2012년도 전남 지역어 전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이기갑(2013a), 〈제주방언의 담화 표지 ‘근’과 ‘에’〉, 《방언학》 제22호, 한국방언학회, pp.143~167.
- 이기갑(2013b), 《2013년도 전남 지역어 전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이기갑(2016a), 《전남 보성 지역의 언어와 생활》, 역락.
- 이기갑(2016b), 《전남 영암 지역의 언어와 생활》, 역락.
- 이기갑(2016c), 〈응답어의 문법화〉, 《방언학》 제24호, 한국방언학회, pp.293~320.
- 이기갑(2017), 《전남 광양 지역의 언어와 생활》, 역락.
- 이기갑(2018), 《국어 방언의 담화 표지》, 역락.



- 이동혁(2017), 〈담화 표지 ‘있잖아’의 기능에 대하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1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pp.577~602.
- 이봉선(1998), 〈국어 담화 표지 ‘거시기’의 의미분석〉, 《현대문법연구》 제13권, 현대문법학회, pp.197~212.
- 이상신(2014), 〈‘글썸’과 ‘그러게’의 기원과 방언형〉, 《인문연구》 제71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05~132.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수련(2004), 〈‘가지다’의 문법화 양상 연구〉, 《새얼어문논집》 제16권, 새얼어문학회, pp.239~263.
- 이수현(2014), 〈담화 표지 유형 연구 - 경남 방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경상대학교 대학원).
- 이원표(1992), 〈시간부사 ‘이제’의 담화기능〉, 《인문과학》 제68권,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105~138.
- 이원표(1993), 〈의지감탄사 ‘예, 글썸, 아니’의 담화분석〉, 《인문과학》 제69권,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139~185.
- 이정민·박성현(1991), 〈‘-요’ 쓰임의 구조와 기능 - 문중 ‘-요’의 큰-성분 가르기 및 디딤말 기능을 중심으로-〉, 《언어》 제16권 2호, 한국언어학회, pp.361~389.
- 이정애(1998), 〈국어 화용표지의 연구〉, 박사학위논문(전북대학교 대학원).
- 이주화(2014), 〈한국어 담화 표지 ‘그런데’의 중국어 대응 양상 - 화제 전개 기능을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제30호, 외국학연구소, pp.121~141.
- 이진호(2014), 〈감탄사 ‘하모’ 계통의 방언형에 대하여〉, 《방언학》 제19호, 한국방언학회, pp.121~135.
- 이춘근(1999), 〈담화위임표지 ‘그리고’에 대하여〉, 《어문학교육》 제21권, 한국어문교육학회, pp.321~341.
- 이한규(1996), 〈한국어 담화 표지어 ‘그래’의 의미 연구〉, 《담화와 인지》 제3권, 담화·인지언어학회, pp.1~26.
- 이한규(1997), 〈한국어 담화 표지어 ‘왜’〉, 《담화와 인지》 제4권 1호, 담화·인지언어학회, pp.1~20.
- 이한규(1999), 〈한국어 담화 표지어 ‘뭐’의 의미〉, 《담화와 인지》 제6권 1호, 담화·인지언어학회, pp.137~151.
- 이한규(2008), 〈한국어 담화 표지어 ‘어디’의 화용분석〉, 《우리말 글》 제44권, 우리

- 말글학회, pp.83~111.
- 이한규(2011), 〈한국어 담화 표지어 ‘예’의 의미〉, 《현대문법연구》 제65권, 현대문법학회, pp.221~197.
- 이한규(2012), 〈한국어 담화 표지어 ‘아니’의 의미〉, 《현대문법연구》 제67권, 현대문법학회, pp.145~221.
- 이해영(1994), 〈담화 표지 ‘글썸’의 담화기능과 사용의미〉, 《이화어문논집》 제13권, 이화어문학회, pp.129~150.
- 이호진(2005), 〈‘뭐’의 담화상 의미기능 연구〉, 《어문논총》 제16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pp.65~81.
- 임규홍(1995), 〈담화 표지 ‘뭐냐’와 ‘있지’에 대하여〉, 《어문학》 제56권, 한국어문학회, pp.51~68.
- 임규홍(1996), 〈국어 담화 표지 ‘인자’에 대한 연구〉, 《담화와 인지》 제2권, 담화·인지언어학회, pp.1~20.
- 임규홍(1998), 〈국어 ‘말이야’의 의미와 담화적 기능〉, 《담화와 인지》 제5권 2호, 담화·인지언어학회, pp.159~229.
- 임규홍(2003), 〈국어 정도 부사의 화용화〉, 《언어과학연구》 제24권, 언어과학회, pp.283~302.
- 임규홍(2004), 〈성별에 따른 국어 담화 표지 사용 모습 -중·고등학생 이야기대화를 바탕으로-〉, 《어문학》 제83권, 한국어문학회, pp.93~113.
- 임규홍(2005), 〈국어 담화 표지 ‘자’에 대한 연구〉, 《우리말 글》 제34권, 우리말글학회, pp.99~121.
- 임규홍(2009), 〈경상방언 담화 표지 ‘아이가’에 대한 연구〉, 《어문학》 제104권, 한국어문학회, pp.141~227.
- 임규홍(2011), 〈경상방언 담화 표지 ‘마’에 대한 연구〉, 《배달말》 제48권, 배달말학회, pp.1~33.
- 임선희·김선희(2014), 〈세종 코퍼스 분석을 통한 우리말 ‘예/네’의 담화 표지 기능 연구〉, 《사회언어학》 제22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pp.203~223.
- 장경현(2016), 〈‘좀’의 의미와 담화 기능〉, 《국어문학》 제61권, 국어문학회, pp.77~102.
- 장경희(1980), 〈지시어 ‘이, 그, 저’의 의미 분석〉, 《어학연구》 제16권 2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pp.167~184.

- 장경희(2002), 〈대명사〉, 《새국어생활》 제12권 2호, 국립국어연구원, pp.147~161.
- 장아남(2017), 〈한국어 ‘됐어’와 중국어 ‘X了’의 대조 연구 -담화 표지로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제28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81~219.
- 전성호(2007), 〈Levinon의 GCI 이론을 통한 ‘거시기’의 화용론적 분석〉, 《한국어 의 미학》 제23권, 한국어의미학회, pp.161~180.
- 전영옥(2002), 〈한국어 담화 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연구》 제4권, 한국화법학회, pp.113~145.
- 전영옥(2015), 〈감탄사 ‘어’와 ‘응’의 담화 기능 연구〉, 《언어와 언어학》 제69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pp.129~161.
- 전영옥(2016a), 〈담화에 나타난 ‘그래서’ 연구〉, 《한말연구》 제40권, 한말연구학회, pp.113~146.
- 전영옥(2016b), 〈대화에 나타난 ‘그래서/그러니까’의 실현 양상 연구〉, 《어문논총》 제70권, 한국문학언어학회, pp.81~109.
- 전영옥(2017a), 〈한국어 담화 표지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말연구》 제45권, 한말연구학회, pp.127~160.
- 전영옥(2017b),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그러니까, 그니까, 근까, 그까’ 비교 연구〉, 《어문논총》 제74권, 한국문학언어학회, pp.125~152.
- 전정미(2011), 〈대화의 회고적 기능에서 살펴본 응답어 ‘네’ 연구〉, 《우리말 글》 제52권, 우리말글학회, pp.55~82.
- 정미진(2017),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그래’류 담화 표지의 교수학습 내용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101권, 한국언어문학회, pp.201~229.
- 정윤희(2000), 〈‘왜’의 함축 의미 연구〉, 《새얼어문논집》 제13권,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새얼어문학회, pp.139~166.
- 정윤희(2005), 〈국어 의문사 ‘뭐’의 의미 분석〉, 《겨레어문학》 제35권, 겨레어문학회, pp.109~131.
- 조미희(2016), 〈국어의 주관화 과정과 문법화의 범위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제73권, 한민족어문학회, pp.67~92.
- 조민정(2015a), 〈‘좀’의 의미와 기능 변화 양상 연구〉, 《한국어 의미학》 제49권, 한국어의미학회, pp.1~32.
- 조민정(2015b), 〈문법화에 따른 ‘딱’의 기능 및 의미 변화 연구〉, 《한국사전학》 제26호, 한국사전학회, pp.227~215.

- 조민정(2015c), 〈접속사의 담화 표지적 쓰임에 대한 고찰 -‘그러’ 계열의 단어를 중심으로-〉, 《문법 교육》 제25권, 한국문법교육학회, pp.147~227.
- 조민정(2016), 〈부사의 비대칭적 사용 양상 연구〉, 《한국어 의미학》 제52권, 한국어 의미학회, pp.163~195.
- 주경희(2000), 〈대화에서의 ‘좀’의 기능〉, 《국어국문학》 제126권, 국어국문학회, pp.75~99.
- 주경희(2004), 〈‘좀’ 문법화의 의미, 화용론적 연구〉, 《국어교육》 제115권, 한국어교육학회, pp.433~453.
- 차윤정(2000), 〈이음말의 담화 표지 기능〉, 《우리말연구》 제10권, 우리말학회, pp.105~125.
- 차지현(2010), 〈운율과 담화 기능의 상호 작용 -문장 뒤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담화 표지 ‘뭐’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제25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p.227~256.
- 최현배(1929),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한국회(2013), 〈담화 표지 독립용법의 한국어교육적 의미 -‘물론이다’와 ‘당연하다’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제32권,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pp.513~536.
- 홍정하(2011), 〈담화 표지 ‘-는’/‘-가’와 화자 시점 : 코퍼스 언어학적 접근〉, 《한국어 의미학》 제34권, 한국어 의미학회, pp.451~477.
- 황병순(2010), 〈담화 표지 연구에 드러난 몇 가지 의문〉, 《배달말》 제47권, 배달말학회, pp.115~135.
- Bybee, J. L., Pagliuca, W. and Perkins, R. D.(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fe, W. L.(1988), Linking intonation units in spoken English. in Haiman, J. and Thompson, S. A.(eds.). *Clause Combining in Grammar and Discourse*. Amsterdam/Philadelphia: Benjamins. 1-27.
- Heine, B.(2013), On Discourse Markers: Grammaticalization, Pragmaticalization, or something else?. *Linguistics* 51(6). 1205-1247.
- Heine, B., Kaltenböck, G., Kuteva, T. Long, H.(2012), An outline of Discourse Grammar. In Biscoff, S. and Jeny, C.(eds.). *Reflections on Functionalism in Linguistics*. Berlin and Boston: De Gruyter Mouton. 155-206.

- Hopper, P. J.(1991), On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in Traugott, E. C. and Heine, B.(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1*. Amsterdam: John Benjamins. 22-35.
- Hopper, P. J. and Traugott, E. C.(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ltenböck, G., Heine, B. and Kuteva, T.(2011), On thetical grammar. *Studies in Language* 35(4). 848-893.
- Kuryłowicz, J. (1975),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in Coseriu. 1975. *Esquisses Linguistiques II*. Munich: Fink. 38-54.
- Langacker, R. W.(1977), Syntactic reanalysis. In Li 1977. 57-139.
- Lakoff, G.(1972),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of fuzzy concepts.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2. 458-508.
- Meillet, A.(1912), L'évolution des formes grammaticales. Scientia 12. (Reprinted in Meillet 1948. *Linguistique Historique et Linguistique Generale. 1 Paris: Edouard Champion*. 130-148.
- Schiffrin, D.(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augott, E. C.(1982), From propositional to textual and expressive meanings: Some semantic-pragmatic aspects of grammaticalization. in Malkiel, Y. & Lemann, W. P.(eds.). *Perspectives on Historical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245-271.
- Traugott, E. C.(1995), Subjectification in grammaticalization, in Dieter Stein & Susan Wright.(eds.), *Subjectivity and Subjectivis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7-54.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and Svartvik, J.(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